

English Standard Version
ESV



USPTO Reg. No. 3026768
USPTO Reg. No. 3746835
USPTO Reg. No. 3008631

2020 August

기쁨의 언덕으로
Pleasant
Hill

Dear Lord 주님,

From August 2020, 8월에는

Time 시간

Place 장소

에서

sitting before you 주님 앞에 앉아

eating your Word 주님의 말씀을 읽고

praying to you, 주님께 아뢰며

will have a fellowship with you. 주님과 교제하길 원합니다.

Name 이름

Could you not watch with me one hour?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one hour)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마 26:40)

기쁨의 언덕으로, 이렇게 활용하세요!

① Family BibleTime

“기쁨의 언덕으로”를 통해
온가족이 매일 성경 읽는
시간(Family BibleTime)을
가지세요. 자녀 제자화는
부모에게 맡긴 사명입니다.

① 통독본문

3년 1독을 위한
오늘 통독 범위

② 묵상본문

오늘 묵상할
성경구절의 범위

③ 찬송가

묵상을 시작하기 전
오늘의 찬송을 부르십시오.
찬송가의 고백은 묵상을
위한 기도와 같습니다.

01 JAN
수 Wed

그에 의해,
그를 통해,
그를 위해

By Him,
Through Him,
and For Him

① 통독본문 Reading Plan

골로새서 Colossians 1장

③ 새63장

주가 세상을 다스리시니

④

아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들겠습니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22

내지샘플

⑤

백접기

바울과 디모데는 골로새에 새로 세워진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
를 보내 그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온 만물이
그리스도에게서 창조되고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 지음 받았다는
이 믿음 가운데 더욱 뿌리내리고 성장하기를 기도한다.

②

골로새서 1:9-20

⑥

9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
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
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
게 하시고

10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
라게 하시고

11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
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12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쁨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13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
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14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15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16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
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
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17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
께 섰느니라

18 그는 모든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천히 만물의 으뜸
이 되려 하심이요

19 아버지께서는 모든 총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
시고

20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
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
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기쁨의 언덕으로’를 완료할 경우,

- * 3년에 자동 친구약 일독
- * 소그룹 모임 내용과 함께 1,000개의 적용 질문을 통해 말씀을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Reading Insight

As Paul and Timothy wrote the epistles to the saints of the new churches in Colossae, they thanked God for their faith and love, and prayed for the growth of their deeply rooted faith that all things are created by Christ and for Christ.

Colossians 1:9-20

⁹ And so, from the day we heard, we have not ceased to pray for you, asking that you may be filled with the knowledge of his will in all spiritual wisdom and understanding,

¹⁰ so as to walk in a manner worthy of the Lord, fully pleasing to him, bearing fruit in every good work and increasing in the knowledge of God.

¹¹ May you be strengthened with all power, according to his glorious might, for all endurance and patience with joy,

¹² giving thanks to the Father, who has qualified you to share in the inheritance of the saints in light.

¹³ He has delivered us from the domain of darkness and transferred us to the kingdom of his beloved Son,

¹⁴ in whom we have redemption, the forgiveness of sins.

¹⁵ He is the image of the invisible God, the firstborn of all creation.

¹⁶ For by him all things were created, in heaven and on earth, visible and invisible, whether thrones or dominions or rulers or authorities—all things were created through him and for him.

¹⁷ And he is before all things, and in him all things hold together.

¹⁸ And he is the head of the body, the church. He is the beginning, the firstborn from the dead, that in everything he might be preeminent.

¹⁹ For in him all the fullness of God was pleased to dwell,

²⁰ and through him to reconcile to himself all things, whether on earth or in heaven, making peace by the blood of his cross.

7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만물은 누구에 의해, 누구를 통해, 누구를 위해 창조되었습니까? (16절)

By whom, through whom, and for whom are all things created? (v. 16) -

만물과 만물이, 하나님과 만물이 화목케 되는 일은 누구를 통해, 무엇에 의해 가능한 일입니까? (20절)

Through whom and by what is the harmony among all things and between God and all things possible? (v. 20)

8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4 여는기도

먼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일하시도록 기도합니다.

5 맥잡기

본문의 구조와 주제를 자세히 소개하여 묵상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습니다.

6 영한 대역(ESV/개역개정)

영어와 한글을 함께 읽음으로 본문의 뜻을 더욱 명확히 이해합니다.

7 말씀 속으로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질문은 우리를 적극적으로 반응하게 하고, 주님 말씀에 관심을 갖게 합니다.

8 묵상 중에 만난 주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을 적고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합니다.

기쁨의 언덕으로, 이렇게 활용하세요!

1 한 말씀 One Word

우리 영혼이
생명(life)을 누리고
예수님처럼 한 구절의
말씀의 검(sword)을
사용하여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수 있게 됩니다.

2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묵상한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주신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결단을 갖습니다.

3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미 전역에 흩어져있는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1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2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심전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3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예임스 사랑의 교회, 이병훈(A)
과드시터한인연합감리교회, 조형배(A)
교단총회와 리더를 위한 기도

24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바울의 신년 연설

New Year message by Paul

남북전쟁이 한창이던 1863년 11월 19일, 에이브러햄 링컨은 게티즈버그에서 시어도어 파커의 글을 인용하면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라는 표현을 사람들에게 각인시켰습니다. 그 연설은 of, by, For, 이 세 가지의 전치사를 통해 정부와 국민의 관계를 적절하게 표현합니다. 반면 바울은 링컨보다 약 1,800년 전에 by, through, for라는 전치사를 통해 그리스도가 누구이신 자를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이 새로 세워진 골로새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야만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비록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과 그분의 우월성과 충분성에 대해서 아직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권력과 권세들을 포함한 만물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를 통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16절).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서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분이 만왕의 왕이심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그분 없이는 존속할 수 없습니다(17절). 비록 악의 세력이 이 세상을 장악하는 것처럼 보이는 불의 한 일들이 존재하지만, 그것은 참된 현실이 아닙니다. 불의가 실재하지만, 참된 현실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며, 그를 통해 만물이 화목케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신년을 맞이하는 우리가 붙잡아야 할 믿음은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가 그분에 의해(by) 다스려지고, 그분을 힘입어(through) 행동하며, 그분을 위해(for) 살아가는 한 해가 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In the midst of Civil War on November 19, 1863, Abraham Lincoln at Gettysburg made the famous speech by quoting from Theodore Parker,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and for the people”. The speech used three prepositions: “of, by and for” to illustrate the appropriate relationship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people. On the other hand, Paul 1,800 years earlier than Lincoln, through three prepositions of “by, through, and for”, taught the believers who Christ was. Paul had a special reason for writing the epistle to the saints of the newly planted church in Colossae. Although they had the faith, they did not yet fully understand what it meant to believe in Christ and the sovereignty and sufficiency of Christ. All things including all worldly power and authority were created by Christ and through Christ and for Christ. (v. 16)

We should not forget that Christ was the king of the kings though He died on the cross defenselessly as a young man. All things in the world we live cannot exist without Christ. (v. 17) There exist unrighteous things in the world as if the world is taken over by evil power but that is not true reality. In spite of the existence of unrighteousness, true reality is that Jesus Christ will ultimately rule the world and through Him all things will live in harmony. As we face new year 2020, the faith that we must grab on is that this new year will be ruled by Him, through Him and for Him.

‘기쁨의 언덕으로’를 완료할 경우,

- * 3년에 자동 신구약 일독
- * 소그룹 모임 내용과 함께 1,000개의 적용 질문을 통해 말씀을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4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 ①
- ②
- ③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5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6



25

4 오늘의 감사

감사는 주님께 드리는
최고의 기도입니다.
작은 것부터 감사하는
습관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5 Journaling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합니다.

6 [기쁨의 언덕으로]

Facebook 바로가기

QR코드를 스캔하시면
Facebook 공식계정으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www.facebook.com/kumcddevotion

혼자서도 문제없다

1 시간을 정해 놓고 읽기

매일 아침 혹은 저녁 등 혼자 조용히 정기적으로 가질 수 있는 시간을 정하십시오. 시간을 고정하면 삶의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경건의 훈련은 정기적인 시간에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찬송, 기도

Pleasant Hill에는 그날 부를 찬송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찬송을 통해 마음 문을 열어보세요. 그리고 성경을 읽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잠시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감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시킵니다.

3 어떻게 읽을까?

성경을 읽으며, 단락이 끝날 때 그 단락의 내용을 문장으로 요약하거나 키워드를 기록해 보세요. 핵심구절이나, 마음에 와닿는 구절에는 밑줄도 그어 보십시오. 각 구절에 대한 자신만의 기호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새롭게 깨달아지는 구절에는 느낌표, 이해가 안 되는 구절에는 물음표, 마음에 와닿는 구절에는 전구 표시 등. 본문을 이렇게 한 번 읽고, 표시해 놓은 구절들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4 Journaling, 예수님과 함께

일기(Diary)를 쓸 때 주어는 나(I)입니다. 하지만 저널링(Journaling)의 주어는 예수님(Jesus)입니다. 나의 일상을 반성하고 기록하는 일기도 좋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 안에서 행복을 찾는 우리 여정을 기록하는 저널링은 더 좋습니다.

5 마무리는 이렇게!

자신의 One Verse를 카톡이나 SNS를 통해 가까운 친구들과 나누는 것도 성경을 완독하고, 꾸준히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정예배

기존의 가정예배가 부담스러운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설교일 것입니다. 그러나 설교 없이 말씀을 함께 읽고, 각자 받은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Family Pleasant Hill"이 가능합니다. 이제 부모가 자녀를 제자화해야 합니다!

1 언제가 좋을까요?

온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정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세 번, 매일도 가능합니다. 편안하게 가족들이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좋습니다. 저녁 시간 이후, 혹은 아침 식사 전도 좋습니다. 시간은 20-30분 이내가 좋습니다.

2 모임 장소 Tip!

가족이 다 함께 둘러앉을 수 있는 편안한 장소이면서 어떤 미디어에도 방해 받지 않을 수 있는 장소가 좋습니다. Family Pleasant Hill 전에는 절대 TV를 켜지 않도록 합니다.

3 인도자와 대표 기도자 정하기

인도는 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결정한 원칙을 따라 순서를 정합니다. 아빠 > 엄마 > 첫째 > 둘째, 혹은 집에서 키가 큰 순서를 따라, 노래를 잘하는 순서를 따라 등. 마무리 기도는 인도자가 지정하는 사람이 하거나, 사회의 반대 순서, 혹은 모두가 돌아가며 마디기도를 해봅니다.

* 소그룹교재를 가정예배 자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기쁨의 언덕으로 Facebook 페이지에 목상을 위한 다양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www.facebook.com/kumcdevotion

08

[illegible]

SUNDAY

MONDAY

TUESDAY

2

3

역대기하
2 Chronicles
7-8장 □

4

역대기하
2 Chronicles
9장 □

9

10

역대기하
2 Chronicles
15장 □

11

역대기하
2 Chronicles
16-17장 □

16

17

역대기하
2 Chronicles
22장 □

18

역대기하
2 Chronicles
23장 □

23

24

역대기하
2 Chronicles
29장 □

25

역대기하
2 Chronicles
30장 □

30

31

역대기하
2 Chronicles
36장 □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1 역대기하 2 Chronicles 6장 □
5 역대기하 2 Chronicles 10장 □	6 역대기하 2 Chronicles 11장 □	7 역대기하 2 Chronicles 12-13장 □	8 역대기하 2 Chronicles 14장 □
12 역대기하 2 Chronicles 18장 □	13 역대기하 2 Chronicles 19장 □	14 역대기하 2 Chronicles 20장 □	15 역대기하 2 Chronicles 21장 □
19 역대기하 2 Chronicles 24장 □	20 역대기하 2 Chronicles 25장 □	21 역대기하 2 Chronicles 26-27장 □	22 역대기하 2 Chronicles 28장 □
26 역대기하 2 Chronicles 31-32장 □	27 역대기하 2 Chronicles 33장 □	28 역대기하 2 Chronicles 34장 □	29 역대기하 2 Chronicles 35장 □
		7 June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9 September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이야기로 알아보는 역대기

역대기는 어떤 책인가?

역대기는 아담에서 바벨론 포로 귀환기까지의 계보와 사울의 죽음 이후 다윗의 통치기를 다루는 역대상과 솔로몬의 통치 이후 왕국 분열과 남유다 왕국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역대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 ‘그 시대의 사건들’을 의미하는 ‘디베레 하야밈’이라 불리는 역대기는 본래 상하 구별이 없었습니다. 역대기가 상하로 분리된 것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 성경부터였습니다. 70인역에서 ‘생략된 사건들 1’과 ‘생략된 사건들 2’를 의미하는 ‘파탈레이포메논 알파’와 ‘파탈레이포메논 베타’로 불렸던 역대기는, 라틴어 성경인 벌게이트(Vulgate)에서 ‘거룩한 역사의 역대기 전서’와 ‘거룩한 역사의 역대기 후서’로 불리다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한 성서에서 처음으로 ‘역대상’과 ‘역대하’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역대기는 언제 누가 어떤 목적을 위해 기록했는가?

역대기는 성전 예배와 율법에 대한 해박한 내용을 담고 있는 데다 에스라서와 내용상 연속성과 문체상 유사성이 있다는 점 때문에 레위인인 에스라가 기원전

450-430년 경 기록했다는 주장이 교회의 일반적인 주장입니다. 역대기가 기록된 기원전 5-4세기는 흔히 포로후기 시대라 불립니다.

이 시기는 바벨론의 속국으로 전락한 유다가 사마리아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키며 여호와 신앙에 대한 회의가 강하게 일어나는 등 이스라엘 역사상 정치, 종교, 사회적 혼란이 절정에 달했던 때였습니다. 특히 바벨론에 끌려가 약 70년 동안 포로생활을 한 후 귀환한 유대인들은 파괴된 성전과 폐허 된 예루살렘 성읍을 발견하며 절망과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유다 백성들은 지난날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언약이 여전히 유효하며, 하나님은 아직 이스라엘이 믿고 따라야 할 절대자인가 고민하게 됐고 그 결과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역대기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역대기는 바벨론 유배에서 벗어나 고향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다윗 언약을 상기시키고 성전 중심의 역사를 수립해 나가는 소망과 비전을 심어주기 위해서 기록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역대기와 사무엘서, 열왕기서의 차이는 무엇인가?

역대기는 신명기 사관에 입각해 기록된 사무엘서나 열왕기서가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기록됐습니다. 하지만 역대상과 역대하는 비슷한 시기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사무엘서와 열왕기서가 성전 예배 갱신과 하나님의 이스라엘 통치라는 신명기적 사관을 중심으로 한 제사장적 관점에서 서술된데 반해, 역대기서는 에스라-느헤미야와 함께 '역대기 사가의 역사'로 구분됩니다.

신명기 사관은 신명기를 기록한 사람들의 역사관을 의미합니다. 신명기는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이 믿고 따라야 할 유일신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으로써 모세를 통해 여호와로부터 받은 율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때문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객관적으로 기록하기보다 역사상 일어났던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추구하는데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역대기 사가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역사를 기록하지만 결정적인 차이점은 다윗-예루살렘 중심의 사관으로 무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사무엘서와 열왕

기서가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를 모두 기록하고 있는 반면, 역대기서는 남왕국 유다의 역사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기상 2장 9절부터 15절까지 기록된 다윗의 계보가 룻기에서 인용되는 경우는 제외하고 구약의 다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 역시 다윗 왕조를 중시하는 역대기 사가의 특징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역대기는 다윗을 어떤 인물로 기록하고 있는가?

역대기는 열왕기와 달리 이스라엘의 황금시대였던 다윗-솔로몬 시대를 이상적으로 묘사함으로써 다윗 왕조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정통성을 부여하며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자부심을 회복하고자 시도하고 있습니다.

역대기는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임금으로 등극한 후 뒤늦게 민심을 얻은 다윗과 갈등을 벌이며 왕권을 둘러싼 투쟁을 벌였던 과정을 소상히 전달하고 있는 사무엘서와 달리,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가 다윗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호로 시작된다(대상 11:1)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기가 다윗이 사울과의 권력투쟁을 거치지 않고 바로 모든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됐다는 식으로 묘사한 것은 다윗을 이상적인 인물로 묘사하기 위한 배려라 할 수 있습니다.

역대기 전체를 통해 나타나는 다윗의 이상화는 다윗의 통치를 묘사하는 부분에서 절정에 달합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른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것이며 이로 인해 하나님은 다윗과 그 후손을 통해 '신정(神政)'을 실시하기로 하셨다는 것이 역대기의 입장입니다. 신정의 중심은 예루살렘이며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도 다윗의 후손이 될 것이라는 희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을 이상화하려는 노력은 사무엘서에 기록된 다윗에게 불리한 전승들을 모조리 생략하는 데서도 나타납니다. 역대기가 다윗이 잘못된 일을 기록한 유일한 경우는 인구조사가 초래한 재앙을 소개하는 기사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역시 “사탄이 다윗을 부추겨 인구조사를 하도록 시켰다”라고 변호하고 있습니다. 역대기 사가의 입장에서는 솔로몬 역시 제2의 다윗입니다.

열왕기서에 나오는 솔로몬의 기도는 출애굽 사건의 역사를 회고하는 반면 역대기 사가가 전하는 솔로몬의 기도는 다윗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에 호소하면서 끝이 납니다. 이처럼 역대기 사가는 이스라엘 역사상 최전성기를 구사했던 솔로몬 시대에 대한 기록에서조차 다윗과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강조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 이후 전개되는 유다 왕국의 역사에서 르호보암부터 요시아에 이르는 유다 왕들에게는 다윗이나 솔로몬에 대한 기록에서 보여지는 이상화 경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각각의 왕들이 경건하게 살았는지 여부에 따라 그 왕과 왕국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인과응보 사상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참조문헌

해설성경, 대한기독교서회
왕대일, 신앙공동체를 위한 구약성서이해, 성서연구사

01 AUG
토 Sat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

Prayer of Solomon
for Consecration of
the Temple

통독본문 Reading Plan

역대기하 2 Chronicles
6장



새364장(통482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솔로몬은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들어주시고 그들의 사정을 살피보아 달라고 빕니다.

역대기하 6:12-21

12 솔로몬이 여호와와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 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13 솔로몬이 일찍이 낮으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다섯 규빗이요 너비가 다섯 규빗이요 높이가 세 규빗이라 뜰 가운데에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14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15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16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네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17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18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19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20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 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21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 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Reading insight

Solomon prayed to God while consecrating the temple. Solomon implored God to hear the people in prayer looking up the temple and to heed their pleading.

2 Chronicles 6:12–21

12 Then Solomon stood before the altar of the LORD in the presence of all the assembly of Israel and spread out his hands.

13 Solomon had made a bronze platform five cubits long, five cubits wide, and three cubits high, and had set it in the court, and he stood on it. Then he knelt on his knees in the presence of all the assembly of Israel, and spread out his hands toward heaven,

14 and said, “O LORD, God of Israel, there is no God like you, in heaven or on earth, keeping covenant and showing steadfast love to your servants who walk before you with all their heart,

15 who have kept with your servant David my father what you declared to him. You spoke with your mouth, and with your hand have fulfilled it this day.

16 Now therefore, O LORD, God of Israel, keep for your servant David my father what you have promised him, saying, ‘You shall not lack a man to sit before me on the throne of Israel, if only your sons pay close attention to their way, to walk in my law as you have walked before me.’

17 Now therefore, O LORD, God of Israel, let your word be confirmed, which you have spoken to your servant David.

18 “But will God indeed dwell with man on the earth? Behold, heaven and the highest heaven cannot contain you, how much less this house that I have built!

19 Yet have regard to the prayer of your servant and to his plea, O LORD my God, listening to the cry and to the prayer that your servant prays before you,

20 that your eyes may be open day and night toward this house, the place where you have promised to set your name, that you may listen to the prayer that your servant offers toward this place.

21 And listen to the pleas of your servant and of your people Israel, when they pray toward this place. And listen from heaven your dwelling place, and when you hear, forgive.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솔로몬이 드리는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20, 21절)

What is the content of Solomon’s prayer? (vs. 20–21)

성전과 같이 구별된 기도의 장소가 있으신가요? 나의 기도 생활을 점검해 봅시다.

Do you have your own solitary place to pray like being at the Temple? Let us examine our prayer life.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내쉬빌한인교회, 강희준(TN)
동산연합감리교회, 유화청(TX)
교회와 예배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When praying in looking up the Temple

솔로몬은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사정을 살피달라고 빕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될 것입니다. 동시에 그는 성전이 다 담아낼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백성들이 성전에서, 혹은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구합니다. 사실 성전은 하나님을 위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 필요했습니다.

살면서 속마음을 모두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하물며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면 어떨까요? 마음속의 고민과 걱정을 털어놓으면서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광야 같은 우리 인생에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기 위해 우리는 성전과 같은 곳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해주는 곳 말입니다. 그렇게 구별된 기도의 공간과 시간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눈에 보이는 현실에서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돌릴 수 있습니다. 성전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구별된 기도의 공간이 있을 때 언제나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As Solomon consecrated the Temple, he prayed to God. As the people of God pray looking up the Temple, Solomon implores to God to hear their prayers and heed their pleadings. Solomon built the Temple for God. The Temple will be the house where God will reside. At the same time, Solomon knew that God is much bigger than what the house would be able to accommodate. Nonetheless Solomon prayed to God to hear the prayers of the people whether they pray at the Temple or just looking up the Temple. In fact, the people needed the Temple more than God.

How many friends can you count during your life time with whom you can share heart-to-heart dialogue? If you have someone you can talk to on heart-to-heart basis when you face difficulty or hardship in life, you are blessed. How would it be if that someone is God? If we can let out our pains and worries when we pray, that would be a big comfort and strength in our life in the midst of struggle. To pray such as these, we need a place like the Temple. A Place that could confirm that there is a God and He listens to our prayer of imploration. When there is such a distinguishable space and time for prayer, we can finally turn our attention to God from the reality that we are facing. When there is free time to pray while looking up to God as we look up to the temple, we can continue to pray to God who is present all the time and everywher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①

②

③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약으로



제목 Title

.....

성경본문 Scripture

.....

주요내용 Outline

.....

하나님의 음성 God's Voice

.....

주일 말씀이나 더 깊이 묵상할 내용을 기록합니다.

나의 결단 / 적용 **My Heart / Application**

나의 기도제목 **My Prayers**

교회의 기도제목 **Prayers of My Church**

한 주간의 일정 **This Week**

사랑하면 보입니다

이승우 목사 (원성통교회, MD)

이제 한여름의 계절이 절정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항상 우리 곁에 피어나 무덥고 조금은 지루할 수 있는 여름날을 아름답고 화사하게 밝혀주는 꽃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피었다 지는 것이 아니라 석 달 열흘, 백날 동안 줄곧 피고 지고 다시 피는 배롱나무꽃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언젠가부터 피어있었을 배롱나무꽃이 어제 아침에서야 비로소 보였습니다.

무엇이 바쁜지 곁에 핀 꽃조차 보지 못하고 사는 이들에게 찾아와 사랑하며 살라고 말하는 배롱나무를 노래한 도종환 님의 시, “배롱나무”를 나눕니다.

+++

배롱나무를 알기 전까지는 많은 나무들 중에
배롱나무가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니다.

가장 뜨거울 때
가장 화사한 꽃을 피워놓고는
가녀린 자태로 소리없이

물러서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남모르게 배롱나무를 좋아하게 되었는데
그뒤론 길 떠나면
어디서든 배롱나무가 눈에 들어옵니다.

지루하고 먼 길을 갈 때면 으레 거기 서있었고
지치도록 걸어오고도 한 고개를 더 넘어야 할 때
고갯마루에 꽃그늘을 만들어 놓고 기다리기도 하고

갈림길에서 길을 잘못 들어 다른 길로 접어들면
건너편에서 말없이 진분홍 꽃송이 어리를 떨구며
서있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만 하던 일을 포기하고 싶어
혼자 외딴섬을 찾아가던 날은
보아주는 이도 없는 곳에서 바닷바람 맞으며
혼자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니다.
꽃은 누구를 위해서 피우는 게 아니라는 말하듯

늘 다니던 길에 오래 전부터 피어있어도
보이지 않다가 늦게사 배롱나무를 알게 된 뒤부터
배롱나무에게서 다시 배웁니다.

사랑하면 보인다고
사랑하면 어디에 가 있어도
늘 거기 함께 있는 게 눈에 보인다고

03 AUG
월 Mon

악한 길에서 떠나면

If we leave
the path of evil

통독본문 Reading Plan

역대기하 2 Chronicles
7-8장



새278장(통336장)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들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솔로몬은 성전을 봉헌하면서 엄청난 규모의 제물을 드리며 절기를 지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한 것처럼 성전에 머무시지만 이스라엘이 배반하고 떠나면 자신도 성전을 버리겠다고 하십니다.

역대기하 7:11-20

11 솔로몬이 여호와와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와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12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 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13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14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15 이제 이 곳에서 하는 기도예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16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17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18 내가 네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네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19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20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리니

Reading insight

As Solomon consecrated the Temple, he made an extravagant amount of offering and observed seasonal rituals. God made it clear that He would reside in the Temple as Solomon sought but if the people of Israel betrayed Him and left Him, then He would abandon them.

2 Chronicles 7:11–20

11 Thus Solomon finished the house of the LORD and the king's house. All that Solomon had planned to do in the house of the LORD and in his own house he successfully accomplished.

12 Then the LORD appeared to Solomon in the night and said to him: "I have heard your prayer and have chosen this place for myself as a house of sacrifice.

13 When I shut up the heavens so that there is no rain, or command the locust to devour the land, or send pestilence among my people,

14 if my people who are called by my name humble themselves, and pray and seek my face and turn from their wicked ways, then I will hear from heaven and will forgive their sin and heal their land.

15 Now my eyes will be open and my ears attentive to the prayer that is made in this place.

16 For now I have chosen and consecrated this house that my name may be there forever. My eyes and my heart will be there for all time.

17 And as for you, if you will walk before me as David your father walked, doing according to all that I have commanded you and keeping my statutes and my rules,

18 then I will establish your royal throne, as I covenanted with David your father, saying, 'You shall not lack a man to rule Israel.'

19 "But if you turn aside and forsake my statutes and my commandments that I have set before you, and go and serve other gods and worship them,

20 then I will pluck you up from my land that I have given you, and this house that I have consecrated for my name, I will cast out of my sight, and I will make it a proverb and a byword among all peoples.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일 때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번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까? (14절)

What does the Scripture say about what our attitude should be toward God that would elicit God's promise that He would hear us, forgive us, and bless us with prosperity? (v. 14)

반대로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 이스라엘을 뽑아 버리고 성전도 버리겠다고 하십니까? (20절)

On the other hand, under what circumstance, did God say that He would abandon Israel and the Temple as well? (v. 20)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버먼트제일연합감리교회, 박청수(TX)
윌리엄스메모리얼 UMC, 이병설(TX)
목회자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자기 문제는 아닐까요?

Isn't the problem stemming from you?

솔로몬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를 눈을 뜨고 살피며 귀담아들겠다 하십니다. 눈길과 마음이 항상 성전에 있을 것이라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놀랍습니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형편을 주의 깊게 살피고 우리의 신음 소리를 귀담아들으십니다. 하지만 이 관계가 유지되려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하시는 만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고 지켜야 합니다. 모든 관계가 상호적이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모르는 자신의 문제는 아닐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고 고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지 못하는 자신의 문제는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보다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 기도한 자신의 문제는 아닐까요? 원인이 자신에게 있는데 하나님에게서 찾으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와의 관계를 지켜 나가십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듯 우리 역시 하나님께 신실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관계가 온전해집니다.

God answered the prayer of Solomon. God said that He would listen to the prayers at the Temple with attentive ears and eyes. God also said that His heart and attention would be with the Temple. The promise of God toward the people of Israel is surprising. The same promise of God still applies to us, that is, God still pays attention to our livelihood and hears our mourning. However, there is a necessary condition to maintain the relationship between God and us. As much as God pays attention to us, we need to keep obeying the command of God. As all our relationship is based on mutual reciprocity, our relationship with God is also mutually reciprocal.

There are people who claim that there is no God. It is not that God does not exist but we fail to understand the truth that God exists, do we? There are people who agonize that they could not hear the voice of God. It may be that those could not tune to the same frequency as God, could they? There are people who complain that God does not heed their prayers. It may be that those did not pray to seek the will of God but to seek selfish personal gains, did they? The cause of the problem lies with us but we often seek to find a problem on God. God always keeps faithful relationship with us. The problem lies with us. As God is faithful to us, we must be faithful to God. Only then our relationship with God would be on solid footing.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①

②

③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약으로



04 AUG
화 Tue

솔로몬의 영화

The Glory of
Solomon

통독본문 Reading Plan

역대기하 2 Chronicles
9장



새288장(통204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찾아왔다가 그의 지혜와 왕국의 위엄을 보고 넋을 잃어버립니다. 솔로몬 왕국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세상의 왕들은 그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 이스라엘을 방문합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40년을 다스리다가 죽습니다.

역대기하 9:1-11

1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아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2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3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4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 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5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6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7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당신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으로다

8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라도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9 이에 그가 금 백이십 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10 (후람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도 오빌에서 금을 실어 올 때에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온지라

11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와 전과 왕궁의 층대를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같은 것들은 유다 땅에서 전에는 보지 못하였더라)

Reading insight

To confirm the reputation of Solomon, the Queen of Sheba came to visit Solomon and she was overwhelmed with his wisdom and the grandeur of the kingdom. Solomon's kingdom prospered and enjoyed the glory and wealth and the kings of the world visited Israel to study his wisdom. Solomon ruled Israel for 40 years and died.

2 Chronicles 9:1-11

1 Now when the queen of Sheba heard of the fame of Solomon, she came to Jerusalem to test him with hard questions, having a very great retinue and camels bearing spices and very much gold and precious stones. And when she came to Solomon, she told him all that was on her mind.

2 And Solomon answered all her questions. There was nothing hidden from Solomon that he could not explain to her.

3 And when the queen of Sheba had seen the wisdom of Solomon, the house that he had built,

4 the food of his table, the seating of his officials, and the attendance of his servants, and their clothing, his cupbearers, and their clothing, and his burnt offerings that he offered at the house of the LORD, there was no more breath in her.

5 And she said to the king, "The report was true that I heard in my own land of your words and of your wisdom,

6 but I did not believe the reports until I came and my own eyes had seen it. And behold, half the greatness of your wisdom was not told me; you surpass the report that I heard.

7 Happy are your wives! Happy are these your servants, who continually stand before you and hear your wisdom!

8 Blessed be the LORD your God, who has delighted in you and set you on his throne as king for the LORD your God! Because your God loved Israel and would establish them forever, he has made you king over them, that you may execute justice and righteousness."

9 Then she gave the king 120 talents of gold, and a very great quantity of spices, and precious stones. There were no spices such as those that the queen of Sheba gave to King Solomon.

10 Moreover, the servants of Hiram and the servants of Solomon, who brought gold from Ophir, brought alnum wood and precious stones.

11 And the king made from the alnum wood supports for the house of the LORD and for the king's house, lyres also and harps for the singers. There never was seen the like of them before in the land of Judah.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두고 어떻게 칭찬하고 있습니까?
(5, 6절)

How strongly did the Queen of Sheba extol the wisdom of Solomon? (vs 5-6)

솔로몬의 지혜를 본 스바 여왕의 칭찬은 어디까지 나아갑니까?
(7, 8절)

When the Queen of Sheba realized the wisdom of Solomon, how far did she extol Solomon? (vs. 7-8)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휴스턴제일연합감리교회, 정용석(TX)
로체스터제일교회, 이진국(NY)
국내외 선교사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하나님을 드러내는 지혜

The wisdom that made God shine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그 지혜를 시험해 보려고 예루살렘을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녀는 솔로몬의 지혜와 왕궁의 화려함에 넋을 잃고 맙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이 자신이 들은 소문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이라고 칭찬합니다. 그 칭찬은 솔로몬에게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런 왕을 모신 백성들과 그런 왕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까지 이어집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주기 원하시는지 물으셨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지혜를 구한 바 있습니다(1장).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그의 관심은 지혜를 이용해 자신을 드러내고 인정받으려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을 위해 그 지혜를 활용한다면 사람들은 솔로몬이 아니라 그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자신을 위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위한다고 한 일이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할 때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말리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는 꾸중을 들었습니다. 자기 생각을 앞세우다가 의도와 다르게 사탄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해야 할 이유입니다.

Upon hearing the reputation of Solomon, the Queen of Sheba came to visit Jerusalem to test the wisdom of Solomon. But she became flabbergasted at his wisdom and the grandeur of the palace. The Queen of Sheba proclaimed that Solomon is much more outstanding than the rumor and highly praised him. That praise did not stop at Solomon. The praise extended to the people who were the subjects of Solomon and to God who allowed such king.

When Solomon became king, God asked Solomon what he wanted to be given. When Solomon asked for wisdom, he figured that wisdom of God would be necessary to rule his people. He was not interested in utilizing wisdom for his personal gains or recognition. If the wisdom is used for the people, then people will see not Solomon but God who gave wisdom to Solomon.

People often claim that they are doing what they are doing for God but they end up doing for their own sake. Then what they intended to do for God can come around to bring shame to God. When Peter protested to Jesus about how He would suffer and die on the cross, he was refuted by Jesus who said, “Get behind me, Satan.” Peter was eager to be self-righteous and inadvertently played the role of Satan. It is a reason for our incessant self-examination.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①

②

③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약으로



05 AUG
수 Wed

북 이스라엘의 반역

Betrayal of
Northern Israel

통독본문 Reading Plan

역대기하 2 Chronicles
10장



새503장(통373장)
세상 모두 사랑 없어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들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새롭게 왕이 된 르호보암은 백성들의 호소를 헤아리지 못합니다. 백성들을 너그럽게 대하라는 원로들의 조언 대신 더 가혹하게 대하라는 젊은 신하들의 조언을 받아들입니다. 그 결과 북 이스라엘은 다윗 왕조에 반역하게 됩니다.

역대기하 10:8-19

8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9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메운 멩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10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멩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11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멩에를 메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멩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족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12 삼 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삼 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13 왕이 포박한 말로 대답할새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14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멩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족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15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16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17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18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19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Reading insight

Newly appointed king Rehoboam did not understand the cries of his people. Rehoboam ignored the advice of the elders who recommended generous treatment of the people but accepted the advice of his young subjects who recommended even heavier yoke for the people. As a result, the northern Israel rebelled and betrayed the House of David.

2 Chronicles 10:8–19

8 But he abandoned the counsel that the old men gave him, and took counsel with the young men who had grown up with him and stood before him.

9 And he said to them, “What do you advise that we answer this people who have said to me, ‘Lighten the yoke that your father put on us’?”

10 And the young men who had grown up with him said to him, “Thus shall you speak to the people who said to you, ‘Your father made our yoke heavy, but you lighten it for us’; thus shall you say to them, ‘My little finger is thicker than my father’s thighs.’

11 And now, whereas my father laid on you a heavy yoke, I will add to your yoke. My father disciplined you with whips, but I will discipline you with scorpions.”

12 So Jeroboam and all the people came to Rehoboam the third day, as the king said, “Come to me again the third day.”

13 And the king answered them harshly; and forsaking the counsel of the old men,

14 King Rehoboam spoke to them according to the counsel of the young men, saying, “My father made your yoke heavy, but I will add to it. My father disciplined you with whips, but I will discipline you with scorpions.”

15 So the king did not listen to the people, for it was a turn of affairs brought about by God that the LORD might fulfill his word, which he spoke by Ahijah the Shilonite to Jeroboam the son of Nebat.

16 And when all Israel saw that the king did not listen to them, the people answered the king, “What portion have we in David? We have no inheritance in the son of Jesse. Each of you to your tents, O Israel! Look now to your own house, David.” So all Israel went to their tents.

17 But Rehoboam reigned over the people of Israel who lived in the cities of Judah.

18 Then King Rehoboam sent Hadoram, who was taskmaster over the forced labor, and the people of Israel stoned him to death with stones. And King Rehoboam quickly mounted his chariot to flee to Jerusalem.

19 So Israel has been in rebellion against the house of David to this day.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백성들이 르호보암을 섬기겠다고 하면서 요구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4절)

What was the request of the people when they told Rehoboam that they were ready to serve him as their king? (v. 4)

르호보암은 백성들을 어떻게 대우하기로 결정합니까? (14절)

How did Rehoboam decide to treat his people? (v. 14)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로체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 김동기(NY)
버팔로한인연합감리교회, 국재현(NY)
교단총회와 리더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반역할만한 이유

Excuse for rebellion

솔로몬의 뒤를 이어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사람들은 르호보암을 찾아가 그동안 솔로몬이 자신들에게 지게 했던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호소합니다. 솔로몬의 부귀영화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워진 무거운 종노동의 그늘이 있었던 겁니다. 화려한 역사의 이면에는 언제나 그늘진 곳이 있기 마련입니다. 고맙게도 역대기 사가는 솔로몬의 영화뿐 아니라 백성들의 멍에도 기록해 놓은 것이지요.

르호보암은 양쪽의 조언을 구합니다. 아버지 솔로몬을 섬긴 원로들은 백성들을 너그럽게 대해주라고 조언합니다. 반면 르호보암과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은 아버지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메어 주라고 조언합니다. 불행히도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젊은 신하들의 조언을 따라 백성들에게 가혹한 대답을 내놓습니다.

어느 쪽의 조언을 따르는 것이 옳았느냐 보다 백성들의 아픔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사실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호소하는 사람들에게 더 무거운 멍에를 메게 하겠다는 결정은 그가 얼마나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지도자인가를 여실히 드러냅니다. 자신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지도자를 진심으로 따를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다윗 왕조에 반역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Rehoboam became king after Solomon. People came to Rehoboam and pleaded for lighter yoke than what they had carried under the rule of former king Solomon. Behind the glory of Solomon, there was the shadow of people of Israel laden with heavy yoke. Behind every glorious history there was always a shadow. Fortunately, the author of the Chronicles recorded not only the glory of Solomon but also the yoke of the people.

Rehoboam sought the advice of both sides. The elders who served his late father king Solomon advised him to be generous to the people. On the other hand, the young subjects who grew up with Rehoboam advised him to hand down heavier yoke to the people. Unfortunately, Rehoboam ignored the advice of the elders but followed the advice of the young subjects and handed down horrible answer to the people.

Which advice is right for the king Rehoboam is not as important as the fact that Rehoboam failed to recognize the sufferings of the people. The people pleaded to lighten the heavy yoke but instead the decision to hand down even heavier yoke to the people was a clear indication of his character as a leader as to how incapable he was to understand the pains of the people. There is nobody in the world who would truly follow a leader who is incapable of sharing the same pain as his or hers. That was the cause of Israel's betrayal of the House of David.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①

②

③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약으로



갈라진 나라에 필요한 것은

What is needed
in the divided
countries?

통독본문 Reading Plan

역대기하 2 Chronicles
11장



새486장(통474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르호보암은 장병들을 모아 이스라엘과 싸우려다가 스마야 예언자의 말을 따라 돌아섭니다. 대신 성읍들을 요새로 만들고 방패와 창을 마련해 강화합니다. 이스라엘 전국에 살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살던 지역에서 제사장 직분을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하자 르호보암에게로 옵니다.

역대기하 11:1-12

1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십팔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2 여호와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3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4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 지라 그들이 여호와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5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6 곧 베들레헬과 에담과 드고아와

7 벧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8 가드와 마레사와 십과

9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10 소라와 아얄론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들이라

11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에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12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Reading insight

As Rehoboam assembled a large army, he decided to listen to the prophet Shemaiah and decided not to fight against Israel. Instead they turned their towns into fortresses and fortified their towns with shields and spears. All the priests and Levites throughout the northern Israel came to Rehoboam as they were unable to perform their duties as priests.

2 Chronicles 11:1–12

1 When Rehoboam came to Jerusalem, he assembled the house of Judah and Benjamin, 180,000 chosen warriors, to fight against Israel, to restore the kingdom to Rehoboam.

2 But the word of the LORD came to Shemaiah the man of God:

3 “Say to Rehoboam the son of Solomon, king of Judah, and to all Israel in Judah and Benjamin,

4 ‘Thus says the LORD, You shall not go up or fight against your relatives. Return every man to his home, for this thing is from me.’” So they listened to the word of the LORD and returned and did not go against Jeroboam.

5 Rehoboam lived in Jerusalem, and he built cities for defense in Judah.

6 He built Bethlehem, Etam, Tekoa,

7 Beth-zur, Soco, Adullam,

8 Gath, Mareshah, Ziph,

9 Adoraim, Lachish, Azekah,

10 Zorah, Aijalon, and Hebron, fortified cities that are in Judah and in Benjamin.

11 He made the fortresses strong, and put commanders in them, and stores of food, oil, and wine.

12 And he put shields and spears in all the cities and made them very strong. So he held Judah and Benjamin.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르호보암이 성읍을 강화하기 위해 한 일은 무엇입니까?

(11, 12절)

What did Rehoboam do to fortify the cities? (vs. 11–12)

남북한이 통일이 된다면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과 새롭게 할 수 있는 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What kinds of things would become unnecessary and newly necessary if South and North Korea are united?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불집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올바니한인연합감리교회, 유화성(NY)
가나연합감리교회, 박주섭(VA)
한인총회, 한인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분단의 비용

The cost of division

결국 이스라엘과 유다는 두 나라로 갈려 대립하게 됩니다. 르호보암은 장병 십팔만 명을 소집해 이스라엘과 싸우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만류하시는 바람에 돌아서고 맙니다. 대신 그는 유다 지방의 성읍들을 요새로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각 성읍마다 양식과 기름과 술을 저장해 두고 방패와 창을 마련해 성읍을 크게 강화합니다. 전에는 필요 없던 일들이 분단이 되고 나니 필요한 일들이 됩니다. 십팔만 명이 장병으로 소집됐고, 성읍을 강화해야 했고, 무기들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진 모습은 자연스럽게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 남아있는 한반도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연간 군사비로 남한은 40조, 북한은 10조를 매년 지출하고 있다고 추정합니다. 북한은 130만 명, 남한은 60만 명의 젊은이들이 전쟁을 대비하며 훈련해야 합니다.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남북한이 대립하고 있기에 지불해야 하는 위와 같은 분단 비용을 생각해야 합니다. 국방비보다 적은 돈으로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면 더 많은 경제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고도 예측합니다. 남북으로 갈라져 있기에 부담해야 하는 막대한 비용들은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Israel and Judah were finally divided into two countries and confronted each other. Rehoboam managed to assemble an army of one hundred eighty thousand soldiers and was ready to fight against Israel but God intervened and he decided not to fight after all. Instead Rehoboam decided to build the cities of Judah into fortresses. He fortified the defense of the cities with supply of food, olive oil and wine, and with shields and spears. Having been treated unnecessary before the breakout, now after the division these things are necessary. One hundred eighty thousand soldiers conscribed and cities were fortified and weapons were stock piled.

The situation of the division of Israel and Judah naturally reminds us of Korean peninsula which still remains as the only country divided in the world. It is estimated that the annual military spending of South Korea is about \$40 billion and that of the North is \$10 billion. And 1.3 million young people of the North and 0.6 million of the South are trained to prepare for a potential war. Some people are against unification because the cost would be too high. But the cost of division must be considered because the cost stems from confrontation. It is projected that If the military spending could be diverted to boost the economy, even less amount than the military budget could create more robust economic growth. The enormous opportunities of the prosperity that has been lost due to the divis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s a good indication of how foolish human beings ar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①

②

③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약으로



07 AUG
금 Fri

가까스로 받는 구원

Barely saved?

통독본문 Reading Plan

역대기하 2 Chronicles
12-13장



새289장(통208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들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르호보암은 나라가 견고해지자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립니다. 하나님은 시삭을 보내 유다 백성을 치게 하십니다. 백성들이 잘못을 뉘우치자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구하십니다. 하지만 완전한 구원은 아니었습니다.

역대기하 12:1-12

1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와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2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오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3 그에게 병거가 천이백 대요 마병이 육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숙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4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5 그 때에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아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6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7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8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9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10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놋으로 방패를 만들어 궁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기매

11 왕이 여호와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12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에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Reading insight

As the position of Rehoboam as king became firmly established, he had abandoned the law of the LORD. Then God sent Shishak king of Egypt to attack the people of Judah. When the people repented and humbled themselves, God did not destroy the people of Judah. But it was not a total salvation.

2 Chronicles 12:1-12

1 When the rule of Rehoboam was established and he was strong, he abandoned the law of the LORD, and all Israel with him.

2 In the fifth year of King Rehoboam, because they had been unfaithful to the LORD, Shishak king of Egypt came up against Jerusalem

3 with 1,200 chariots and 60,000 horsemen. And the people were without number who came with him from Egypt--Libyans, Sukkiim, and Ethiopians.

4 And he took the fortified cities of Judah and came as far as Jerusalem.

5 Then Shemaiah the prophet came to Rehoboam and to the princes of Judah, who had gathered at Jerusalem because of Shishak, and said to them, "Thus says the LORD, 'You abandoned me, so I have abandoned you to the hand of Shishak.'"

6 Then the princes of Israel and the king humbled themselves and said, "The LORD is righteous."

7 When the LORD saw that they humbled themselves, the word of the LORD came to Shemaiah: "They have humbled themselves. I will not destroy them, but I will grant them some deliverance, and my wrath shall not be poured out on Jerusalem by the hand of Shishak.

8 Nevertheless, they shall be servants to him, that they may know my service and the service of the kingdoms of the countries."

9 So Shishak king of Egypt came up against Jerusalem. He took away the treasures of the house of the LORD and the treasures of the king's house. He took away everything. He also took away the shields of gold that Solomon had made,

10 and King Rehoboam made in their place shields of bronze and committed them to the hands of the officers of the guard, who kept the door of the king's house.

11 And as often as the king went into the house of the LORD, the guard came and carried them and brought them back to the guardroom.

12 And when he humbled himself the wrath of the LORD turned from him, so as not to make a complete destruction. Moreover, conditions were good in Judah.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하나님께서 유다 사람들을 버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5절)

What was the reason for God's abandonment of the people of Judah? (v. 5)

하나님께서 유다 사람들을 '조금' 구원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7, 8절)

What was the reason for the LORD's incomplete salvation of the people of Judah? (vs. 7-8)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버지니아한인연합감리교회, 민권홍(VA)
새빛교회, 김은관(VA)
성도의 가정, 건강, 자녀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가까스로 받는 구원

Redemption barely made

르호보암은 왕위가 튼튼해지자 주님의 율법을 저버립니다. 온 이스라엘도 그의 뒤를 따릅니다. 역대기 사가는 그 범죄의 결과로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공격했다고 기록합니다. 주님은 예언자 스마야를 통해 너희가 나를 버렸기에 나도 너희를 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르호보암과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칩니다. 주님은 이들의 뉘우침을 보고 멸망시키지는 않겠다고 돌이키십니다. 하지만 이들을 '조금' 구원하겠다고 하십니다. 새번역은 "그들이 구원을 받기는 해도 아주 가까스로 구원을 받게 하겠다."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이 말씀은 구원에도 차별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주님을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구원이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면 구원에도 분명히 차별이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빌 2:12).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었지만 바울의 고백처럼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 간다고 고백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조금' 구원을 누리게 스스로를 차별하는 것입니다.

All Israel followed him. The author of the Chronicles claimed that the price of the sins of Rehoboam was an attack of Jerusalem by Shishak the king of Egypt. The LORD said through the prophet Shemaiah, "You have abandoned me; therefore, I now abandon you to Shishak." Then Rehoboam and the leaders of Israel humbled themselves. When the LORD saw that they humbled themselves the LORD said that he would not destroy them. But the LORD said that they would "barely" be redeemed. The new translation Bible said, "They would be redeemed but barely."

This sounds like there are different grades of salvation. But this means that the LORD would not completely destroy them in order to teach them that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serving the LORD and serving worldly countries. If salvation does not simply mean that we could go to the kingdom of God if we believe in Jesus, then there must be different grades of salvation. St. Paul said in Philippians 2:12, "Continue to work out your salvation with fear and trembling." Though we received redemption by believing in Jesus but we continue to work out our salvation as St. Paul confessed. If we cannot serve God and if we do not have the joy of salvation here and now, then we may be discriminating ourselves as "barely saved".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①

②

③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약으로



08 AUG
토 Sat

주님을 찾으니 평화가 깃들다

Shalom prevails
when we seek
the LORD

통독본문 Reading Plan

역대기하 2 Chronicles
14장



새370장(통455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아비아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아사는 우상들을 없애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실천하게 합니다. 구스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도 아사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적들을 물리칩니다.

역대기하 14:4-13

4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5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6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7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8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삼십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이십팔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9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 하여 군사 백만 명과 병거 삼백 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10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11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니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12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13 아사와 그와 함께 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 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략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Reading insight

As Asa became king succeeding Abijah he destroyed idolatries and ordered his people to obey the Law of the LORD. When the Cushite attacked Judah, Asa repelled them by depending the help of God.

2 Chronicles 14:4-13

4 and commanded Judah to seek the LORD, the God of their fathers, and to keep the law and the commandment.

5 He also took out of all the cities of Judah the high places and the incense altars. And the kingdom had rest under him.

6 He built fortified cities in Judah, for the land had rest. He had no war in those years, for the LORD gave him peace.

7 And he said to Judah, "Let us build these cities and surround them with walls and towers, gates and bars. The land is still ours, because we have sought the LORD our God. We have sought him, and he has given us peace on every side." So they built and prospered.

8 And Asa had an army of 300,000 from Judah, armed with large shields and spears, and 280,000 men from Benjamin that carried shields and drew bows. All these were mighty men of valor.

9 Zerah the Ethiopian came out against them with an army of a million men and 300 chariots, and came as far as Mare-shah.

10 And Asa went out to meet him, and they drew up their lines of battle in the Valley of Zephathah at Mareshah.

11 And Asa cried to the LORD his God, "O LORD, there is none like you to help, between the mighty and the weak. Help us, O LORD our God, for we rely on you, and in your name we have come against this multitude. O LORD, you are our God; let not man prevail against you."

12 So the LORD defeated the Ethiopians before Asa and before Judah, and the Ethiopians fled.

13 Asa and the people who were with him pursued them as far as Gerar, and the Ethiopians fell until none remained alive, for they were broken before the LORD and his army. The men of Judah carried away very much spoil.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아사 왕의 군대 규모와 구스 사람 세라의 군대 규모는 어땠습니까? (8, 9절)

What were the sizes of the army of Asa and that of Zerah of the Cushite? (vs. 8-9)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아사 왕의 기도에서 인상적인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가요? (11절)

In the prayers of king Asa when he asked for God's help, if you could find something impressive, what could it be? (v. 11)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성기연합감리교회, 최윤석(VA)
알링턴한인교회, 류영성(VA)
교회와 예배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Between the Strong and the Week

아사 왕은 우상들을 없애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찾도록 합니다. 아사 왕은 주님을 찾았으므로 주님께서 평안을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평화의 시기에도 위기는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군사 백만 명을 이끌고 쳐들어 옵니다. 두려운 숫자였을 것입니다. 아사 왕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도와달라고 기도를 올립니다. 그는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박에 도와줄 이가 없다고 고백합니다(11). 새번역은 주님께서 도우려고 할 때는 숫자의 많고 적음, 힘의 세고 약함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우선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수에 민감합니다. 수가 많으면 자신감이 올라가고 적으면 내려갑니다. 수는 곧 성공과 실패의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많건 적건 수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앙도 출석 빈도로 계산하고 교회 부흥도 머릿 수로 측정합니다. 하지만 허수일 때가 많습니다. 수가 모든 걸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수를 넘어서는 분이십니다. 약한 사람이 힘센 사람을 이기게도 하시고 적은 숫자로 당신의 역사를 써 내려가기도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라면 수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갈 것입니다.

Asa eliminated idolatries and ordered his people to obey the will of God. Asa confessed that he sought the LORD and the LORD gave him peace. But even at the time of peace, crisis could come without fail. Zerah of the Cushite led army of one million soldiers and marched into Judah. The sheer number must have been scary. King Asa cried out to God and prayed for help. He confessed that "O Lord, no one but you can help the powerless against the mighty!" (v. 11) The new translation of the Bible said, "When the LORD decides to help, the number either large or small, or the strong or the week, is immaterial."

We humans react primarily to what is seen by our eyes. We are especially sensitive to numbers. Our confidence increases when the number is high but decreases when it is low. The numbers become a measuring stick for success or failure. We are never free from the numbers either large or small. And at times our religiosity is measured in terms of frequency of church attendance and the church growth is measured by the head count. But many times, those numbers are empty numbers. The numbers do not necessarily tell the whole story. God is bigger than the numbers. God sometimes allows the week to win over the strong, and uses small number to dictate His history. If we were the kind of people who believe in such God, we would believe that the number alone does not tell the whole story and we would live accordingly.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①

②

③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약으로



제목 Title

.....

성경본문 Scripture

.....

주요내용 Outline

.....

하나님의 음성 God's Voice

.....

주일 말씀이나 더 깊이 묵상할 내용을 기록합니다.

나의 결단 / 적용 **My Heart / Application**

나의 기도제목 **My Prayers**

교회의 기도제목 **Prayers of My Church**

한 주간의 일정 **This Week**

사랑하기 힘든 시대의 선택

장재웅 목사(워싱턴 하늘비전교회, MD)

시계 안에는 세 사람이 살고 있다. 성급한 사람, 차분한 사람, 느긋한 사람이다. 성급한 초침, 차분한 분침, 느긋한 시침이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계는 멋진 조화를 이루며 미래의 문을 열어가고 있다. 성급한 초침은 차분한 분침을 비판하지 않는다. 또한 느긋한 시침은 성급한 초침을 비판하지 않는다. 서로의 차이점을 인정하면서 함께 더불어 공존해 나아가는 것이다.

북미주의 도시들마다 한인들이 모여사는 곳이면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더 나아가 교단 내에서도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는 소식을 자주 접하게 된다. 이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가슴이 아프지만 이런 모습들을 놓고 사람들과 공동체가 모두 다 썩었거나 타락한 것으로 단정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순간을 위해 평생을 투자하라’라는 책에 보면 금세기 최고의 기독교 지성이요, 영성 운동가였던 헨리나우웬은 살아 있을 때 평균 500명 이상의 친구들과 편지를 주고받았고 그들에게 장애우 공동체에 살고 있는 자신을 방문해 주기를 요청했다고 한다. 그의 친구들은 이구동성으로 그는 누구와 만나든지 백 퍼센트 그에게 집중하며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대했다고 말한다. 그는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열린 모습으로 그들의 연합함 뒤에 숨어있는 아름다움을 위해 자신의 전부를 준 것이다.

1990년 중반 첫 이민목회를 캘리포니아에서 시작할 때 선배 목회자들이 자

주 하시는 말씀이 있었다. “목회 1년은 설교로 목회 2년차는 덕으로 목회 3년부터 은퇴 시까지의 사랑으로 하는 것이다.”

사랑이란 상대방의 힘겨운 삶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다. 기꺼이 상대방을 위해 바닥을 기며 오물을 묻히는 것이다. 비록 이해가 안되어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를 더 잘 알기 위해 과거에 그가 입은 상처를 들여다보고 덮어주고 보듬어주는 것이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 빈 구덩이를 메우듯 상대방의 부족한 면을 발견하더라도 조용히 메꾸어 주고 보자기와 같이 남의 허물을 덮어주면 사람이 주변에 모이게 된다. 사람들은 상대방의 실력에는 고개를 숙이지만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것은 사랑이기 때문이다.

사랑하기 힘겨운 ‘나 중심적(ME Generation)’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늘 하는 사랑과 선행이 내일이면 잊혀질지라도 소외되고 고통받는 자들, 그늘진 곳을 향한 사랑의 손길을 지속적으로 베풀어야 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들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해서는 선택할 수가 없지만 다른 사람들을 향한 태도와 반응은 우리 자신들이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 어거스틴(St. Augustine)은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관용을 모든 일에는 사랑을(In essentials, unity; in non-essentials, liberty; in all things, charity)’이라고 말했다. 깊어가는 이민의 역사 가운데 서로의 차이점을 변화와 성숙의 해산하는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승자도 패자도 없는 소모적이고 비본질적인 논쟁보다는 결코 후회함이 없는 사랑의 길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서로의 아픔을 감싸주며 마른 지팡이에 짝이 나듯 사랑의 꽃을 피워야 할 것이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갈등과 위기의식, 변화들은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과 희망의 씨앗들이기 때문이다.

10 AUG
월 Mon

하나님만을 찾기로

Seeking only God

통독본문 Reading Plan

역대기하 2 Chronicles
15장



새461장(통519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들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아사라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자신과 함께 하는 한 자신도 유다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아사 왕은 가증한 물건들을 모두 없애고 백성들을 불러 모아 하나님을 찾기로 언약을 맺습니다.

역대기하 15:1-4, 9-15

- 1 하나님의 영이 오렛의 아들 아사라에게 임하시매
- 2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 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 3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는 지가 오래 되었으나
- 4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으매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 9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라
- 10 아사 왕 제십오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 11 그 날에 노략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칠백 마리와 양 칠천 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 12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 13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 14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매
- 15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망에 평안을 주셨더라

Reading insight

Through the prophet Azariah, God declared that as long as the people of Israel were with Him, He would be with them. At this, king Asa removed all the detestable idols and made a covenant with the people gathered to seek God.

2 Chronicles 15:1-4, 9-15

1 The Spirit of God came upon Azariah the son of Oded,

2 and he went out to meet Asa and said to him, “Hear me, Asa, and all Judah and Benjamin: The LORD is with you while you are with him. If you seek him, he will be found by you, but if you forsake him, he will forsake you.

3 For a long time Israel was without the true God, and without a teaching priest and without law,

4 but when in their distress they turned to the LORD, the God of Israel, and sought him, he was found by them.

9 And he gathered all Judah and Benjamin, and those from Ephraim, Manasseh, and Simeon who were residing with them, for great numbers had deserted to him from Israel when they saw that the LORD his God was with him.

10 They were gathered at Jerusalem in the third month of the fifteenth year of the reign of Asa.

11 They sacrificed to the LORD on that day from the spoil that they had brought 700 oxen and 7,000 sheep.

12 And they entered into a covenant to seek the LORD, the God of their fathers, with all their heart and with all their soul,

13 but that whoever would not seek the LORD, the God of Israel, should be put to death, whether young or old, man or woman.

14 They swore an oath to the LORD with a loud voice and with shouting and with trumpets and with horns.

15 And all Judah rejoiced over the oath, for they had sworn with all their heart and had sought him with their whole desire, and he was found by them, and the LORD gave them rest all around.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때는 언제입니까? 또 백성들을 버리시는 때는 언제입니까? (2절)

When was God with the people of Judah? When did God abandon them? (v. 2)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유다 백성들의 반응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12, 15절)

What was the reaction of the people of Judah to the word of God? What was the result? (vs. 12, 15)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애쉬번 한인교회, 강현식(VA)
엠마오연합감리교회, 김철기(VA)
목회자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당신에게 달려 있다

Up to you

〈행복을 꿈꾸는 수도원〉은 한 구도자가 뉴욕 북부에 있는 수도원 뉴스케테의 로렌스 신부를 찾아가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구도자는 꽤 오랜 기간 영적 여정을 더듬거리며 걸어온 사람입니다. 수도원 생활의 가치는 수도승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중요하다는 신부의 말이 그로 하여금 수도원 방문을 결정하게 했습니다. 푸른색 트랙을 몰고 공항에 마중 나온 로렌스 신부는 평복을 입었습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 신부는 뉴욕까지 날아올 만큼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묻습니다. 신부는 구도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 후 다시 가볍게 묻습니다. “그래 당신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구도자는 “온 세상이 잠들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 자신을 포함해서요.”라고 답합니다. 신부는 잠시 멈추더니 말합니다. “그건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깨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한가 하는 것이지요.”

그러더니 신부는 말을 이어갑니다. “당신은 어디까지 나아갈 건가요? 이곳 생활은 당신을 깨워 일으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당신을 일깨울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아무도 할 수 없어요. 누군가가 당신을 가르치고 초대하고 부추기고 도전할 수는 있지만, 그 누구도 당신이 듣고자 하지 않는 것을 듣게 해줄 수는 없지요. 깨어나는 것은 전적으로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 당신도 함께 하겠다고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 주겠다고 하십니다.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이지요.

The book 〈In the Spirit of Happiness/New Skete Monastery〉 begins with a story of a seeker who was visiting Priest Lawrence of New Skete Monastery located in the northern part of New York state. The seeker was a long-time wanderer of his faith journey. A story of a monk in the book caught the attention of the seeker, that is, the value of life at the monastery is equally important to the monks and to all people, and that claim made him decide to visit the monastery. The Priest Lawrence who came to the airport to pick him up in his blue truck wore an ordinary plain outfit. As they were riding back to Monastery, the Priest asked the seeker what issue he was facing in life important enough to make him fly out to New York. As the Priest listened to the seeker for some time, he again asked lightly, “What have you understood after all these?” The seeker replied, “I realized that the whole world is in sleep, including myself.” After pausing for a while, the Priest said, “It is all the same for us. What is important is how true we are to ourselves when we face the issue of awakening.”

The Priest continued, “How far will you go? The life in this place will do its best to awaken you. But it is only you who can awaken yourself. Nobody else can do it. Someone can teach you, invite you, encourage you, and challenge you, but no one can make you listen to what you do not want to hear. Awakening is entirely up to you.” God says He will be with us when we want to be with God, and we will find God if we seek after God. It is entirely up to us.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①

②

③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약으로



11 AUG
화 Tue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왕

The king who is
self-sufficient
without God

통독본문 Reading Plan

역대기하 2 Chronicles
16-17장



새380장(통424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아사 왕은 이스라엘이 침략했을 때 아람 왕 벤하닷의 도움을 청합니다. 아람의 도움으로 아사 왕은 위기에서 벗어나지만 예언자 하니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을 질책합니다. 화가 난 아사 왕은 예언자를 옥에 가둡니다.

역대기하 16:1-10

1 아사 왕 제삼십육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2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의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3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4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윤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5 바아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6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재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7 그 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8 구스 사람과 룬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9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 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10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 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Reading insight

When Israel attacked Judah, king Asa sought the help of king Ben-Hadad of Aram. With the help from Aram, Asa managed to escape from the crisis but the seer Hanani rebuked him for not seeking the help of God. Asa was enraged and put the seer Hanani in prison.

2 Chronicles 16:1-10

1 In the thirty-sixth year of the reign of Asa, Baasha king of Israel went up against Judah and built Ramah, that he might permit no one to go out or come in to Asa king of Judah.

2 Then Asa took silver and gold from the treasures of the house of the LORD and the king's house and sent them to Ben-hadad king of Syria, who lived in Damascus, saying,

3 "There is a covenant between me and you, as there was between my father and your father. Behold, I am sending to you silver and gold. Go, break your covenant with Baasha king of Israel, that he may withdraw from me."

4 And Ben-hadad listened to King Asa and sent the commanders of his armies against the cities of Israel, and they conquered Ijon, Dan, Abel-maim, and all the store cities of Naphtali.

5 And when Baasha heard of it, he stopped building Ramah and let his work cease.

6 Then King Asa took all Judah, and they carried away the stones of Ramah and its timber, with which Baasha had been building, and with them he built Geba and Mizpah.

7 At that time Hanani the seer came to Asa king of Judah and said to him, "Because you relied on the king of Syria, and did not rely on the LORD your God, the army of the king of Syria has escaped you.

8 Were not the Ethiopians and the Libyans a huge army with very many chariots and horsemen? Yet because you relied on the LORD, he gave them into your hand.

9 For the eyes of the LORD run to and fro throughout the whole earth, to give strong support to those whose heart is blameless toward him. You have done foolishly in this, for from now on you will have wars."

10 Then Asa was angry with the seer and put him in the stocks in prison, for he was in a rage with him because of this. And Asa inflicted cruelties upon some of the people at the same time.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예언자 하나니가 이사 왕을 질책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7절)

What was the reason why the prophet Hanani rebuked king Asa? (v. 7)

예언자 하나니가 말하는 하나님의 특성은 어떤 것입니까? (9절)

What are the traits of God that the prophet Hanani mentioned? (v. 9)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와싱톤사감의교회, 김영봉(VA)
와싱톤제일교회, 정성호(VA)
국내외 선교사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

True trust in God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쳐들어오자 아사 왕은 아람 왕 벤하닷의 도움을 청합니다. 벤하닷은 아사 왕의 요청을 받아들여 도우러 나섭니다. 그 덕분에 아사 왕은 위기를 모면합니다. 왕과 백성들이 승리에 도취되어 있을 때 예언자 하나니는 아사 왕을 찾아와 말합니다.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아람 왕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더 많은 전쟁에 휘말리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아사 왕은 예언자를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아사 왕은 이전에 구스 사람과 룬 사람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권력에 취했는지 그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막아 버렸습니다.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군대가 물려올 때 당연히 현실적인 도움도 생각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사 왕은 가장 중요한 사실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두루 살피고 계신다는 사실, 그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해 자신에게 매달리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이라고 하지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믿음이 들어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는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As king Baasha of Israel attacked Judah, king Asa asked for help from king Ben-Hadad of Aram. Having accepted the request for help, king Ben-Hadad came forward to help Asa. And Asa managed to avert the crisis. While the king and the people were celebrating, the prophet Hanani came to visit king Asa to tell him that because Asa relied on Aram instead of God, he would be entangled with so many wars in the future. Asa was so angry that he put the prophet Hanani in prison. When Asa fought against the Cushite and the Libyans, he depended on the help from God. But he closed his ears to God maybe because his mind became intoxicated by his corrupt life style of power and glory over many years.

Asa may have been fearful. When the army of Israel marched on, naturally he thought about practical help of reality. But Asa had forgotten the most important fact. The fact that God always watch over all people around the world, and the fact that THAT GOD gives strength to people who depend on Him with all their minds and hearts. The opposite word of faith is fear? When fear occupies your mind, there is no room for faith. Faith is the belief that God always looks after us and will not ignore us. The firm belief toward God chases away fears.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①

②

③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약으로



12 AUG
수 Wed

참된 예언자 미가야

The true prophet
Micaiah

통독본문 Reading Plan

역대기하 2 Chronicles
18장



새460장(통515장)
뜻 없이 무릎 꿇는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들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두 왕은 길르앗의 라못을 치러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 보려 합니다. 이때 400여 명의 거짓 예언자는 왕들이 듣고 싶어 하는 예언을 합니다. 하지만 참된 예언자 미가야는 그 반대의 예언을 하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역대기하 18:12-22

12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 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하니

13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14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라 하는지라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이다 하니

15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네게 맹세하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니

16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 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와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17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더라

18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와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19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꺾어 그에게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20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꺾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21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꺾겠고 또 이루어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였은즉

22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Reading insight

The two kings wanted to confirm the will of God before they embarked on their attack on Ramoth of Gilead. Then 400 false prophets prophesied what the two kings wanted to hear. But the true prophet Micaiah prophesied exactly opposite of the what the false prophets had said and drew the anger of the kings and was put in prison.

2 Chronicles 18:12-22

12 And the messenger who went to summon Micaiah said to him, “Behold, the words of the prophets with one accord are favorable to the king. Let your word be like the word of one of them, and speak favorably.”

13 But Micaiah said, “As the LORD lives, what my God says, that I will speak.”

14 And when he had come to the king, the king said to him, “Micaiah, shall we go to Ramoth-gilead to battle, or shall I refrain?” And he answered, “Go up and triumph; they will be given into your hand.”

15 But the king said to him, “How many times shall I make you swear that you speak to me nothing but the truth in the name of the LORD?”

16 And he said, “I saw all Israel scattered on the mountains, as sheep that have no shepherd. And the LORD said, ‘These have no master; let each return to his home in peace.’”

17 And the king of Israel said to Jehoshaphat, “Did I not tell you that he would not prophesy good concerning me, but evil?”

18 And Micaiah said, “Therefore hear the word of the LORD: I saw the LORD sitting on his throne, and all the host of heaven standing on his right hand and on his left.

19 And the LORD said, ‘Who will entice Ahab the king of Israel, that he may go up and fall at Ramoth-gilead?’ And one said one thing, and another said another.

20 Then a spirit came forward and stood before the LORD, saying, ‘I will entice him.’ And the LORD said to him, ‘By what means?’

21 And he said, ‘I will go out, and will be a lying spirit in the mouth of all his prophets.’ And he said, ‘You are to entice him, and you shall succeed; go out and do so.’

22 Now therefore behold, the LORD has put a lying spirit in the mouth of these your prophets. The LORD has declared disaster concerning you.”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미가야 예언자가 말하려는 것은 무엇입니까? (13절)

What does the prophet Micaiah want to tell us? (v. 13)

400명의 예언자들이 거짓 예언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20-22절)

What was the reason why 400 prophets uttered false prophecy? (vs. 20-22)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와싱톤 한인교회, 김한성(VA)
데이튼 한인연합교회, 유준식(OH)
교단총회와 리더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하는 사람

God's Spokesperson

이스라엘 왕 아합은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길르앗의 라못을 치러 올라가자고 합니다. 여호사밧은 그전에 예언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자고 제안합니다. 아합에게 속한 400명의 예언자들은 승리를 예언합니다. 왕들이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를 들려준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진실보다 자신들의 안위와 이익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미가야는 이런 분위기를 거슬러 진실을 말합니다. 그가 들려준 하나님과 한 영의 대화는 섬뜩합니다. 거짓말하는 영이 400명의 예언자들을 꾀어 거짓 예언을 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승리의 예언은 실은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이었던 겁니다. 미가야는 하나님의 뜻을 전한 대가로 뺨을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아합 왕의 태도를 보면 미가야가 평소에 진실을 말하면서 환영받지 못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진실을 말한다고 인정받고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길은 고독과 고난의 길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자신이 잘못해서 받는 고난과는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기에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말해야 하고 행동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바라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목소리는 세상에 들려집니다. 손해를 각오하고라도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사람, 나는 그 한 사람입니까?

king Ahab of Israel suggested to Jehoshaphat king of Judah to join forces to attack Ramoth of Gilead. Before they embarked on the attack, king Jehoshaphat suggested to ask the prophets to check the will of God. The 400 prophets of Ahab prophesied victory. That was what the kings wanted to hear. To them, their own interest and security were more important than truth. However, Micaiah was different, the atmosphere was not conducive to telling the truth, but he revealed the truth any way. The dialogue between God and another soul, revealed by Micaiah was scary. The false soul allured 400 prophets into falsely prophecy. The prophecy of victory was not the blessing but a curse of God. The price that Micaiah paid for telling the truth was a slap on his face and a prison term. Based on Ahab's attitude, it was apparent how unwelcome the words of Micaiah were to Ahab all along. Telling the truth is not a sure bet for recognition and success. Instead it may be a path to isolation and hardship. We need to distinguish from the hardship stemming from our own faults that we deserve. Sometimes when we realize and discern the will of God, we speak out and act knowing that it would bring harm to us. Of course, this causes the hatred of those who do not want the revelation of the will of God. But because of the voice of one who tells the truth, the voice of God is heard in the world. Who would dare to tell the truth even if it would bring harm, am I that on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①

②

③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약으로



13 AUG
목 Thu

여호사밧의 개혁

Jehoshaphat's Reform

통독본문 Reading Plan

역대기하 2 Chronicles
19장



새447장(통448장)
이 세상 끝날까지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선견자 예후는 여호사밧 왕의 잘못된 행위를 질책합니다. 이후 여호사밧은 온 지역을 다니며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노력을 기울입니다. 특별히 재판관을 세워 백성들의 일을 공정하게 판결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역대기하 19:1-11

1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2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3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4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5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6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7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8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9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10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나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11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다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Reading insight

Jehu the seer points out to King Jehoshaphat his wrong. After this, Jehoshaphat travels everywhere to turn people back to the Lord. He also appoints judges and orders them to judge the people fairly with justice.

2 Chronicles 19:1-11

1 Jehoshaphat the king of Judah returned in safety to his house in Jerusalem.

2 But Jehu the son of Hanani the seer went out to meet him and said to King Jehoshaphat, “Should you help the wicked and love those who hate the LORD? Because of this, wrath has gone out against you from the LORD.

3 Nevertheless, some good is found in you, for you destroyed the Asherahs out of the land, and have set your heart to seek God.”

4 Jehoshaphat lived at Jerusalem. And he went out again among the people, from Beersheba to the hill country of Ephraim, and brought them back to the LORD, the God of their fathers.

5 He appointed judges in the land in all the fortified cities of Judah, city by city,

6 and said to the judges, “Consider what you do, for you judge not for man but for the LORD. He is with you in giving judgment.

7 Now then, let the fear of the LORD be upon you. Be careful what you do, for there is no injustice with the LORD our God, or partiality or taking bribes.”

8 Moreover, in Jerusalem Jehoshaphat appointed certain Levites and priests and heads of families of Israel, to give judgment for the LORD and to decide disputed cases. They had their seat at Jerusalem.

9 And he charged them: “Thus you shall do in the fear of the LORD, in faithfulness, and with your whole heart:

10 whenever a case comes to you from your brothers who live in their cities, concerning bloodshed, law or commandment, statutes or rules, then you shall warn them, that they may not incur guilt before the LORD and wrath may not come upon you and your brothers. Thus you shall do, and you will not incur guilt.

11 And behold, Amariah the chief priest is over you in all matters of the LORD; and Zebadiah the son of Ishmael, the governor of the house of Judah, in all the king’s matters, and the Levites will serve you as officers. Deal courageously, and may the LORD be with the upright!”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여호사밧이 재판관들에게 당부한 말은 무엇입니까? (6, 7절)

What did Jehoshaphat urge the judges? (vs. 6, 7)

여호사밧의 말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7절)

What kind of God is God revealed in Jehoshaphat’s words? (v. 7)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베델한인연합감리교회, 이미란(OH)
새생명연합감리교회, 전기상(OH)
한인총회, 한인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As One who Fears God

여호사밧 왕은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간지역에 이르기까지 온 지역을 다니며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힘씁니다. 그는 온 성읍에 재판관을 세워 백성들을 재판하도록 합니다. 재판관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상기시키면서 사람을 위한 재판을 할지 하나님을 위한 재판을 할지 잘 살피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판관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재판에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불의도 없으시고 치우치지도 않으시고 뇌물을 받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교회에서 강조되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우리와 가깝고 친밀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여겨야 한다는 말이 낯설고 생소하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가깝고 친밀한 분이시지만 동시에 아주 다르고 크신 분입니다. 창조자이자 근원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커다란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한다면 함부로 살거나 자기 이익을 위해 불의를 저지르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의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중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King Jehoshaphat goes from Beersheba to the hill country of Ephraim to turn people back to the Lord. He also appoints judges in each of the fortified cities of Judah to judge people. While reminding them the Lord is with them, he urges the judges to fear the Lord and so judge for the Lord rather than for mortals. With the Lord our God, there is no injustice or partiality or bribery.

In the church, God is often described as one who is close to us and intimate with us. For this reason, the idea of fearing God can seem foreign and strange. Although God is indeed very close to us and is intimate with us, God is also very different and great. God is the Creator and the source of all things. To fear God is to live while remembering this God. If we always remember that this great God is with us, then we will not live our life aimlessly or do wrong for one's own self-interest. Unfortunately, there are people who live as if there is no God. They are not only those who do wrong but also those who are self-proclaiming believers. Those who truly fear God should not live that way.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①

②

③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약으로



14 AUG
금 Fri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

The Battle that
Belongs to God

통독본문 Reading Plan

역대기하 2 Chronicles
20장



새365장(통484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들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아람에서 유다를 치러 올라오자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야하시엘의 예언대로 여호사밧은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싸움을 경험하고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역대기하 20:9-20

9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10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 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시므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11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12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13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14 여호와와 그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맛다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브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15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16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귀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17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18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19 그릇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20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아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Reading insight

When a vast army from Aram (Edom) comes to invade Judah, Jehoshaphat and people of Judah cry out to God. With the coming of the Spirit of the Lord, Jahaziel prophesies that the battle belongs to God. Then they offer the praise of thanks to God.

2 Chronicles 20:9-20

9 ‘If disaster comes upon us, the sword, judgment, or pestilence, or famine, we will stand before this house and before you--for your name is in this house--and cry out to you in our affliction, and you will hear and save.’

10 And now behold, the men of Ammon and Moab and Mount Seir, whom you would not let Israel invade when they came from the land of Egypt, and whom they avoided and did not destroy--

11 behold, they reward us by coming to drive us out of your possession, which you have given us to inherit.

12 O our God, will you not execute judgment on them? For we are powerless against this great horde that is coming against us. We do not know what to do, but our eyes are on you.”

13 Meanwhile all Judah stood before the LORD, with their little ones, their wives, and their children.

14 And the Spirit of the LORD came upon Jahaziel the son of Zechariah, son of Benaiah, son of Jeiel, son of Mattaniah, a Levite of the sons of Asaph, in the midst of the assembly.

15 And he said, “Listen, all Judah and inhabitants of Jerusalem and King Jehoshaphat: Thus says the LORD to you, ‘Do not be afraid and do not be dismayed at this great horde, for the battle is not yours but God’s.

16 Tomorrow go down against them. Behold, they will come up by the ascent of Ziz. You will find them at the end of the valley, east of the wilderness of Jeruel.

17 You will not need to fight in this battle. Stand firm, hold your position, and see the salvation of the LORD on your behalf, O Judah and Jerusalem. ‘Do not be afraid and do not be dismayed. Tomorrow go out against them, and the LORD will be with you.’”

18 Then Jehoshaphat bowed his head with his face to the ground, and all Judah and the inhabitants of Jerusalem fell down before the LORD, worshiping the LORD.

19 And the Levites, of the Kohathites and the Korahites, stood up to praise the LORD, the God of Israel, with a very loud voice.

20 And they rose early in the morning and went out into the wilderness of Tekoa. And when they went out, Jehoshaphat stood and said, “Hear me, Judah and inhabitants of Jerusalem! Believe in the LORD your God, and you will be established; believe his prophets, and you will succeed.”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여호사밧이 주님만 바라본다고 기도를 드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12절)

Why did Jehoshaphat pray by saying that their eyes on the Lord? (v. 12)

야하시엘이 적군이 아무리 커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5절)

Why did Jahaziel say to the people of Judah that they should not be afraid or alarmed no matter how great the enemy may be? (v. 15)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아덴스한인연합감리교회, 이근상(OH)
콜럼버스한인연합감리교회, 장이준(OH)
성도의 가정, 건강, 자녀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주님만 바라본다?

Just Look to the Lord?

아람에서 쳐들어오자 여호사밧은 유다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적들을 대적할 힘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른 채 주님만 바라본다는 여호사밧의 고백이 절절하게 다가옵니다. 야하시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전합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싸울 필요가 없다며 단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것을 보라고 하십니다.

주님만 바라봐야 한다고 말하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기도하며 주님의 도움만 바래야 한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하고 문제 앞에서 해결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주님의 도움만 바라다면 상식적이지도 않을뿐더러 좋은 신앙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현대 의학을 통해서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두 가지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가장 궁극적인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서 주님만 바라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것이지요. 사방이 모두 막혔을 때 유일하게 솟아날 수 있는 ‘하늘’을 말합니다.

When a vast army from Aram comes to invade Judah, Jehoshaphat and the people of Judah cry out to God. Acknowledging that they do not have the power to face the enemy, Jehoshaphat confesses their helplessness to God. Jahaziel then delivers God's word to the people, letting them know that this battle belongs to God. Through Jahaziel, God tells them that they do not need to fight but only watch the victory that God will give them.

When people are told to look only to the Lord, they misunderstand that as saying that we should only pray and do nothing. But when we are sick, we need to go to the hospital and when we run into problems, we need to look for solutions. Doing nothing ourselves while expecting the help of the Lord is unreasonable and cannot be considered good faith. Our God is able to work through modern science as well as through other people.

We can understand "looking to the Lord" in two ways. First, looking to the Lord should be our ultimate attitude. We must always do our best. But ultimately, we must always look to the Lord, believing that all of our life is in God's hands. The other is looking to the Lord because we are in a helpless situation and there is really nothing that we can do. In such a time, we can only look to the Lord and seek the guidance of the Lord. When we are completely surrounded, the only way is to look "up" to the Lord.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①

②

③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약으로



15 AUG
토 Sat

악한 길로 간 여호람

Jehoram who
turned evil

통독본문 Reading Plan

역대기하 2 Chronicles
21장



새218장(통369장)
네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여호사밧에 이어 유다의 왕이 된 여호람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길로 갑니다. 그 결과 애들은 반역을 일으키고 립나 성읍은 반란을 일으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도 쳐들어 옵니다. 마침내 여호람은 병이 들어 쓸쓸히 죽어갑니다.

역대기하 21:11-20

11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12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네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13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네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14 여호와와 네 백성과 네 자녀들과 네 아내들과 네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15 또 너는 창자에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16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17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18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19 여러 날 후 이 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20 여호람이 삼십이 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팔 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우리가 그를 다윗 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Reading insight

After Jehoram succeeded Jehoshaphat as king of Judah, he followed the ways of evil in the eyes of God. Because of his evil ways, Edom rebelled against Judah and Libnah also revolted. Philistines and Arabs also attacked Judah. Jehoram died a lonely death from a disease.

2 Chronicles 21:11-20

11 Moreover, he made high places in the hill country of Judah and led the inhabitants of Jerusalem into whoredom and made Judah go astray.

12 And a letter came to him from Elijah the prophet, saying, “Thus says the LORD, the God of David your father, ‘Because you have not walked in the ways of Jehoshaphat your father, or in the ways of Asa king of Judah,

13 but have walked in the way of the kings of Israel and have enticed Judah and the inhabitants of Jerusalem into whoredom, as the house of Ahab led Israel into whoredom, and also you have killed your brothers, of your father’s house, who were better than yourself,

14 behold, the LORD will bring a great plague on your people, your children, your wives, and all your possessions,

15 and you yourself will have a severe sickness with a disease of your bowels, until your bowels come out because of the disease, day by day.’”

16 And the LORD stirred up against Jehoram the anger of the Philistines and of the Arabians who are near the Ethiopians.

17 And they came up against Judah and invaded it and carried away all the possessions they found that belonged to the king’s house, and also his sons and his wives, so that no son was left to him except Jehoahaz, his youngest son.

18 And after all this the LORD struck him in his bowels with an incurable disease.

19 In the course of time, at the end of two years, his bowels came out because of the disease, and he died in great agony. His people made no fire in his honor, like the fires made for his fathers.

20 He was thirty-two years old when he began to reign, and he reigned eight years in Jerusalem. And he departed with no one’s regret. They buried him in the city of David, but not in the tombs of the kings.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하나님은 어떻게 여호람을 벌하셨나요? (18, 19절)

How did God judge Jehoram?
(v. 18, 19)

여호람의 죽음을 슬프게 여기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어떻게 대우받았습니까?
(19, 20절)

No one grieved Jehoram’s death. How did people treat his death? (vs. 19-20)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불집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한인매디슨빌연합감리교회, 우용철(OH)
현팅톤제일 KUMC, 최연(WV)
교회와 예배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아무도 돌보지 않는 죽음

Dying Alone to No One's Regret

32살에 왕위에 오른 여호람은 아버지 여호사밧의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아우들을 죽이고 지도자들도 죽입니다. 유다의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유다 백성을 그릇된 길로 인도합니다. 이런 여호람은 불치의 병을 앓다가 죽고 맙니다. 여호람의 죽음은 무척이나 쓸쓸해 보입니다. 백성들은 왕이 죽으면 으레 피우던 향을 여호람에게만은 피우지 않습니다. 그의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도 없었고 그의 주검은 왕실 무덤에 묻히지도 못합니다. 권력을 누리던 왕이었지만 죽음 후에는 아무도 마음을 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누구도 슬퍼하거나 아쉬워하지 않는 죽음은 그의 삶을 냉혹하게 대변하고 있습니다.

동화 작가 권정생 선생님은 평생을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아동작가로서는 최고의 베스트셀러 작가였지만 그의 삶은 호화로운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16년간 교회 문간방에서 지내며 종지기로 살다가 마지막 20여 년은 조그만 오두막에서 살았습니다. 자신이 쓴 모든 책은 어린이들이 읽는 것이니 여기서 나오는 인세는 어린이들에게 되돌려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은 평생 모은 5천만 원으로 옥수수를 사서 북한 어린이들에게 보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 아닌 '우리들의 하나님'이라 믿었습니다. '우리'를 가슴에 품고 산 사람은 죽음 후에도 산 사람들의 가슴속에 살아 있습니다. 모든 죽음은 그가 살아온 삶을 대변합니다.

After succeeding his father Jehshaphat at age 32, Jerhoram did not follow the ways of his father. He even killed his own brothers as well as some of the officials of the government. He also built high places on the hills of Judah and led the people of Judah astray. At the end, he died of incurable disease with no sympathy from anyone. What a lonely death!

The people made no funeral fire in his honor, as they had for other kings.

No one grieved his death and he was not buried in the tombs of the kings. Although he enjoyed much power as king, no one cared for him after he died. This lonely death ignored by everyone tells the story of his life.

The author of many children's book Jeong Sang Kwon lived a poor life. Although he is the author of many best-sellers, his life was anything but luxurious. He lived as a doorkeeper of a church for 16 years in a small room and lived his final 20 some years in a small hut-like home. At the time of his death, his living will stated that, because of all his books are for children, all of the proceeds from the sale of his books should be used for children. In his final breath, he requested that his entire savings be used to buy corn and send them to children in North Korea. He believed that God is not "my God" but "our God." When one lives for "us," one will never be forgotten by "us." Every death of a person reflects the life that one lived.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①

②

③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약으로



제목 Title

.....

성경본문 Scripture

.....

주요내용 Outline

.....

하나님의 음성 God's Voice

.....

주일 말씀이나 더 깊이 묵상할 내용을 기록합니다.

나의 결단 / 적용 **My Heart / Application**

나의 기도제목 **My Prayers**

교회의 기도제목 **Prayers of My Church**

한 주간의 일정 **This Week**

삶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한다

유기성 목사(선한목자교회, Korea) / 영성일기

주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자신의 삶의 전체 실상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가정이나 교회, 일터에서 일어나는 문제 때문에 우울증에 빠질 정도로 낙담합니다. “오늘은 최악이야!” “지금처럼 힘든 적은 없었어!” “난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나!” 탄식하곤 합니다.

어떤 때는 특별히 어려운 일이 없는데도 원인을 알 수 없는 염려나 두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고 평안했을 때, 오히려 그런 불길한 생각에 시달렸었습니다.

욥 3:25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우리의 이런 두려움과 염려는 우리의 상황을 정확히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9가지 감사할 일이 있어도 한 가지 힘든 것이 있으면 우리는 살 맛을 잃습니다.

99가지 기뻐할 일이 있어도 한 가지 슬픈 일이 생기면 우리는 슬픔에 빠집니다.

만약 다시 살 수 있다면 잘 살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 아이디어로 만든 영화가 [어바웃 타임]이란 영화입니다.

주인공의 집안 남자들에게 ‘과거로의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는 신비한 능력이 있어 지나간 과거를 몇 번이고 다시 살아보는 이야기가 영화 내용입니다.

주인공이 변호사인 데 하루는 가장 친한 친구가 직장 상사에게 부당한 꾸지람을 당하는 일로 불쾌함을 느낍니다. 그날 편의점에서 샌드위치와 음료수를 사는데 다른 일로 정신이 팔린 채로 눈길 한번 안주고 음식을 받았습니 다. 급한 일정으로 열차를 잡기 위해 역 안에서 뛰어야 했으며, 집에 오는 지하철에서 옆에 앉은 사람이 틀어놓은 시끄러운 음악 소리에 짜증이 났습니 다. 한마디로 너무나 힘들고 짜증 났던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루를 다시 살아봅니다. 상황은 똑같습니다.

친구가 부당한 꾸지람을 당할 때 주인공은 상사 몰래 “바보”라고 쓴 종이를 친구에게 보여줍니다. 샌드위치와 음료수를 살 때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와 눈을 마주치고 미소를 지으며 “감사합니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역에서 뛰어야 했을 때, 아름다운 옛 건물의 웅장한 아치형 천장에 감탄하였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집에 돌아올 때는 옆 사람이 틀어놓은 음악을 즐기며 따라 불렀습니다.

주인공이 이렇게 하자 주변 사람들의 분위기가 바뀌었고 하루가 마친 후 “오늘은 정말 최고의 하루였어” 고백합니다.

우리가 두 번만 살아 보아도 힘들게 하는 문제를 대하는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두 번 살아볼 수는 없습니다. 두 번 살아본다고 완벽한 삶을 살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눈 떠야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충분합니다. 주님의 눈으로 보면 힘든 시간도 얼마든지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밤이라고 은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원망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매 순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은혜, 감추어진 사랑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누구를 만나든 무슨 상황 속에서든 주님이 함께 계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삶의 귀한 선물들을 맛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입는 시간]에서 켄 시게마츠는 주례를 부탁하는 커플에게 말해 준다고 했습니다.

“결혼식 당일이 너무 바쁘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 달콤함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바쁜 가운데서도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날인 이 선물을 ‘맛볼’ 시간을 가지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 좋은 날이 정신없이 지나가버리고 말 겁니다.”

오늘 마음의 준비없이 무턱대고 하루를 시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시간을 먼저 가져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모든 순간을 맞이합니다.

주님과 함께 일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혼자 만의 시간은 사실은 주님과 만의 시간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매일 매 순간을 살아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꾸준히 일기로 기록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보는 눈이 놀랍게 달라질 것입니다.

17 AUG
월 Mon

아합 가문의 길을 따라

Following
the Ways of
the House of Ahab

통독본문 Reading Plan

역대기하 2 Chronicles
22장



새549장(통431장)
내 주여 뜻대로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들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야는 22살에 왕위에 오릅니다. 어머니 아달라의 영향 아래 있던 그는 아합 가문의 길을 따라 다스리다가 망하고 맙니다. 그의 죽음 이후 아달라는 유다 왕국의 씨를 진멸하지만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는 살아남습니다.

역대기하 22:1-9

1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야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음이라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더라

2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사십이 세라 예루살렘에서 일 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라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3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꺾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4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 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5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6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7 아하시야가 요람에게 가르코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야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남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쁨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8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에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야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야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9 아하시야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으매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야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Reading insight

Ahaziah became king at the age of 22 and reigned under the influence of his mother Athalia and follows the ways of the house of Ahab, which led to his downfall. After his death, his mother Athalia proceeds to destroy the whole royal family of the house of Judah. But Joash, son of Ahaziah, escapes and survives.

2 Chronicles 22:1-9

1 And the inhabitants of Jerusalem made Ahaziah, his youngest son, king in his place, for the band of men that came with the Arabians to the camp had killed all the older sons. So Ahaziah the son of Jehoram king of Judah reigned.

2 Ahaziah was twenty-two years old when he began to reign, and he reigned one year in Jerusalem. His mother's name was Athaliah, the granddaughter of Omri.

3 He also walked in the ways of the house of Ahab, for his mother was his counselor in doing wickedly.

4 He did what was evil in the sight of the LORD, as the house of Ahab had done. For after the death of his father they were his counselors, to his undoing.

5 He even followed their counsel and went with Jehoram the son of Ahab king of Israel to make war against Hazael king of Syria at Ramoth-gilead. And the Syrians wounded Joram,

6 and he returned to be healed in Jezreel of the wounds that he had received at Ramah, when he fought against Hazael king of Syria. And Ahaziah the son of Jehoram king of Judah went down to see Joram the son of Ahab in Jezreel, because he was wounded.

7 But it was ordained by God that the downfall of Ahaziah should come about through his going to visit Joram. For when he came there, he went out with Jehoram to meet Jehu the son of Nimshi, whom the LORD had anointed to destroy the house of Ahab.

8 And when Jehu was executing judgment on the house of Ahab, he met the princes of Judah and the sons of Ahaziah's brothers, who attended Ahaziah, and he killed them.

9 He searched for Ahaziah, and he was captured while hiding in Samaria, and he was brought to Jehu and put to death. They buried him, for they said, "He is the grandson of Jehoshaphat, who sought the LORD with all his heart." And the house of Ahaziah had no one able to rule the kingdom.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아하시야의 통치 기간은 어떻게 묘사되고 있습니까? (3절)

How is Ahaziah's reign described in the Bible? (v. 3)

아하시야가 패망하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4절)

What is the reason that led to Ahaziah's downfall? (v. 4)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그린스보로 KUMC, 서준석(NC)
메디슨한인연합감리교회, 한명훈(WI)
목회자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누구를 따라 살 것인가?

After Whom Will You Live?

여호람의 막내아들 아하시야는 22살의 어린 나이에 유다의 왕이 됩니다. 아하시야의 재임 기간을 설명하는 것은 그의 어머니 아달라입니다. 이스라엘 아합 왕의 딸이었던 아달라는 아하시야를 꺾어 아합 가문의 길을 따라 가게 합니다. 아합 가문의 길이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일이었습니다(4). 어머니 때문이라고 해서 아하시야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의 통치를 묘사하는 말은 '따르다'입니다. 어머니의 꺾임에 빠져 아합 가문의 길을 따라 산 것은 아하시야였습니다. 그는 잘못된 현실에 저항하는 대신 순응했습니다.

에베소서 2:2-3은 구원받기 전 옛사람의 특징을 '따라 사는 삶'으로 설명합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엡 2:2,3).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이전에 따라 살던 것에 대해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새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을 분별할 수 있게 해서 그 길을 따라 살게 합니다. 신앙은 누구를 따라 사느냐의 싸움입니다.

Ahaziah, son of Jehoram, became king at the tender age of twenty-two. But Athalia, mother of Ahaziah, was the one who controlled Ahaziah. As the daughter of king Ahab, Athalia encouraged Ahaziah to act wickedly, following the ways of the house of Ahab. The ways of the house of Ahab was evil in the eyes of the Lord (v.4). Can we say that Ahaziah is innocent because his mother is the one who encouraged him to act wickedly? The Bible says that he "followed" the evil ways of the house of Ahab, encouraged by his mother. However, instead of resisting the ways of evil, he conceded and went along with them.

In the Book of Ephesians, the life of sin is described as a life of "following." It is life of "following the ways of the world and of the ruler of the kingdom of the air" as well as "gratifying the cravings of our flesh and following its desires and thoughts (Ephesians 2:2,3)." But those who are saved by grace in Christ now have the ability to say "No" to those things that they once followed. It is because they have become new people under the grace of God who are guided by the Holy Spirit. The Holy Spirit helps us to discern the ways of God and to live in obedience to God's will. Having faith means to make the right choice in whom we will follow in lif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①

②

③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약으로



18 AUG
화 Tue

여호야다의 개혁

Jehoiada's reformation

통독본문 Reading Plan

역대기하 2 Chronicles
23장



새320장(통35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6년을 기다린 여호야다는 사람들을 모아 아달라를 처단하고 요아스를 왕위에 앉히는데 성공합니다. 이어 여호야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는 언약을 세우고 바알의 신당들을 부숩니다.

역대기하 23:1-11

1 제칠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2 그들이 유다를 두루 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르지라

3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4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곧 안식일에 당번인 자들의 삼분의 일은 문을 지키고

5 삼분의 일은 왕궁에 있고 삼분의 일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와의 전 뜰에 있을지라

6 제사장들과 수종 드는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즉 여호와와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 외의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키며

7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경호할지니라 하니

8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하여 각기 수하에 안식일에 당번인 자와 안식일에 비번인 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비번인 자들을 보내지 아니함이더라

9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10 또 백성들에게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성전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게 하고

11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새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Reading insight

Jehoiada, who had waited for six years, gathered people to execute Athaliah and succeeded in placing Joash on the throne. Then Jehoiada made a covenant to be God's people and eradicated the Baal shrines.

2 Chronicles 23:1-11

1 But in the seventh year Jehoiada took courage and entered into a covenant with the commanders of hundreds, Azariah the son of Jeroham, Ishmael the son of Jehohanan, Azariah the son of Obed, Maaseiah the son of Adaiah, and Elishaphat the son of Zichri.

2 And they went about through Judah and gathered the Levites from all the cities of Judah, and the heads of fathers' houses of Israel, and they came to Jerusalem.

3 And all the assembly made a covenant with the king in the house of God. And Jehoiada said to them, "Behold, the king's son! Let him reign, as the LORD spoke concerning the sons of David.

4 This is the thing that you shall do: of you priests and Levites who come off duty on the Sabbath, one third shall be gatekeepers

5 and one third shall be at the king's house and one third at the Gate of the Foundation. And all the people shall be in the courts of the house of the LORD.

6 Let no one enter the house of the LORD except the priests and ministering Levites. They may enter, for they are holy, but all the people shall keep the charge of the LORD.

7 The Levites shall surround the king, each with his weapons in his hand. And whoever enters the house shall be put to death. Be with the king when he comes in and when he goes out."

8 The Levites and all Judah did according to all that Jehoiada the priest commanded, and they each brought his men, who were to go off duty on the Sabbath, with those who were to come on duty on the Sabbath, for Jehoiada the priest did not dismiss the divisions.

9 And Jehoiada the priest gave to the captains the spears and the large and small shields that had been King David's, which were in the house of God.

10 And he set all the people as a guard for the king, every man with his weapon in his hand, from the south side of the house to the north side of the house, around the altar and the house.

11 Then they brought out the king's son and put the crown on him and gave him the testimony. And they proclaimed him king, and Jehoiada and his sons anointed him, and they said, "Long live the king."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여호야다가 왕자 요아스를 왕위에 세우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3절)

What was the reason Jehoiada wanting to restore the kingdom of Joash? (v. 3)

여호야다의 반역을 도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1, 2절)

What kind people helped Jehoiada's treason? (vs. 1-2)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애플톤시온연합감리교회, 김찬국(WI)
참아름다운연합감리교회, 김성근(WI)
국내외 선교사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하나님의 뜻을 품은 사람들

People who kept God's intentions faithfully

아달랴가 왕자들을 살해하는 가운데 여호세바는 아하시야 왕의 아들 요아스를 몰래 빼내 목숨을 보전하게 한 바 있습니다. 그 후 요아스가 자라기를 기다린 그녀의 남편 여호야다 제사장은 6년이 지나 용기를 내어 일어납니다. 아달랴의 입장에서는 반역이었지만 여호야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개혁이었습니다. 그는 다윗 가문을 통해 왕위가 계속 이어지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마침내 그는 아달랴를 처단하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데 성공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던 암흑의 시대가 마감됩니다.

1907년 남강 이승훈은 평양에서 도산 안창호의 연설을 듣게 됩니다. “우리나라를 바로잡으려면 먼저 우리가 깨어야 하고, 동포를 깨울 인재를 길러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를 구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이 말에 자신이 깨어지는 듯한 체험을 한 남강은 전 재산을 털어 오산학교를 설립합니다. 남강은 기독교 신앙을 민족을 구원할 사상으로 받아들인 후 오산학교를 그리스도의 믿음을 바탕으로 한 민족학교로 키워갑니다. 조만식, 신채호, 이광수, 유영모, 함석헌, 주기철 목사, 한경직 목사, 염상섭, 홍명희, 김소월, 이중섭... 이들이 모두 오산학교에서 배출한 인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굳게 붙든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은 세상의 불의를 이겨내고 마침내 꽃을 피웁니다.

When Athaliah was murdering all the royal families, Jehosheba hid Joash and kept him safe from Athaliah. Jehosheba's husband, Jehoiada was the priest and he waited 6 years to bring back Joash as the king. For Athaliah, it would've been treason but for Jehoiada, this was to follow God's will. He held up God's plan that it would be the offspring of David that will rule Judah. He finally kills Athaliah and restores Joash's reign. This ends the dark ages of idol worshipping.

In 1907, Lee Seung Hun heard An Chang-Ho's speech. "To have a good and righteous nation, the citizens have to stay awake and it has to raise leaders that will lead the nation. This is the most important strategy to restore our country." Lee was deeply moved by his speech and he built the Osan School investing all of his possessions. He adopted Christian principles as the foundation philosophy for the liberation movement. Jo Man-Shik, Sin Che-ho, Lee koun-g-su, Yu Young-mo, Ham Sok-Hon, Ju Ki-Chul, Han Kyong-Jik, Yom Sang-Sup, Hong Myong-Hee, Kim So-Wol, Lee Jung-Sup are the ones that came out of this school. It is so clear that God's righteousness will prevail when people uphold God's will and righteousness.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①

②

③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약으로



19 AUG
수 Wed

요아스의 변심

The downfall
of Joash

통독본문 Reading Plan

역대기하 2 Chronicles
24장



새325장(통359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들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여호야다가 죽은 후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요아스의 생의 마지막이 좋지 않았던 것도 그 이유 때문입니다.

역대기하 24:1-3, 15-22

1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칠 세라 예루살렘에서 사십 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2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3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15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백삼십 세라

16 무리가 다윗 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라

17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18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19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시매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20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21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죽였더라

22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Reading insight

King Joash did what was right in the eyes of the Lord for a long time. However, after the death of Jehoiada, he started to worship idols. That's why his death wasn't honorable.

2 Chronicles 24:1-3, 15-22

1 Joash was seven years old when he began to reign, and he reigned forty years in Jerusalem. His mother's name was Zibiah of Beersheba.

2 And Joash did what was right in the eyes of the LORD all the days of Jehoiada the priest.

3 Jehoiada got for him two wives, and he had sons and daughters.

15 But Jehoiada grew old and full of days, and died. He was 130 years old at his death.

16 And they buried him in the city of David among the kings, because he had done good in Israel, and toward God and his house.

17 Now after the death of Jehoiada the princes of Judah came and paid homage to the king. Then the king listened to them.

18 And they abandoned the house of the LORD, the God of their fathers, and served the Asherim and the idols. And wrath came upon Judah and Jerusalem for this guilt of theirs.

19 Yet he sent prophets among them to bring them back to the LORD. These testified against them, but they would not pay attention.

20 Then the Spirit of God clothed Zechariah the son of Jehoiada the priest, and he stood above the people, and said to them, "Thus says God, 'Why do you break the commandments of the LORD, so that you cannot prosper? Because you have forsaken the LORD, he has forsaken you.'"

21 But they conspired against him, and by command of the king they stoned him with stones in the court of the house of the LORD.

22 Thus Joash the king did not remember the kindness that Jehoiada, Zechariah's father, had shown him, but killed his son. And when he was dying, he said, "May the LORD see and avenge!"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 있는 동안에 요아스 왕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2절)

What kind of king was Joash when the priest Jehoiada was alive? (v.2)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요아스 왕은 어떻게 달라집니까?

(17, 18절)

How did Joash change after the death of Jehoiada?

(vs. 17-18)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케노사한인연합감리교회, 객한두(WI)
몽고메리주님의교회, (AL)
교단총회와 리더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한 길 가는 인생

A focused life

요하스는 여호야다의 도움을 힘입어 7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여호야다가 살아 있을 때와 죽었을 때로 극명하게 나뉩니다. 여호야다가 살아 있던 시절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합니다. 무너진 성전을 보수하는데 열심을 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일도 끊이지 않게 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그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유다 지도자들의 말을 따르면서 성전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라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만 듣지 않고 그를 돌로 쳐 죽입니다. 그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왕실의 묘지에도 장사되지 못합니다.

“노인들이 저 모양이라는 걸 잘 봐두어라. 너희들이 저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노인 세대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젊은 친구들에게 한 말씀 해 달라는 기자의 질문에 효암 학원 이사장인 채현국 선생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나이 든 사람들은 무조건 존중해야 하는 문화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었다고 모두가 존중받을 만한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젊었을 때는 대의를 위해서 목숨을 던졌던 사람도 늙어서 변심하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명성을 떨쳤던 설교자의 추레한 노년을 보기도 합니다. 젊었을 때 잘 살았다고 해서 노년에도 자동적으로 잘 사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처음처럼’의 마음을 유지하며 살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King Joash became a king at the age of 7. His life shows extreme contrast before and after the death of Jehoiada. When Jehoiada was alive, Joash served God faithfully. He restored the temple and he presented burnt offerings continually in the temple.

However, after the death of Jehoiada, he became a different king. He started to listen to the officials of Judah and abandoned the temple worship. He even started to worship the idols. He also executed Jehoiada's son Zechariah when he came to speak the word of God. He was killed by conspiracy and didn't get to be buried in the tombs of the kings.

Che Hyun Gook, the founder of Hyo-Ahm received a question of “what can we learn from the older generation?” He said, “just watch how unimpressive they are and learn not to be like them.” Koreans grow up in a culture that demands respect for the older people. Just because people are old, it doesn't make them to be worthy of respect and honor. I have seen people changing from their convictions and righteousness they had in their youth. I also see pastors that become unruly and dishonorable. Just because they were well represented in their younger days, it doesn't guarantee they will continue to live a respectful life. Wouldn't it be nice to maintain our godly character just as we did it in the beginning?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①

②

③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약으로



20 AUG
목 Thu

마음을 다하지 않은 아마샤

Not wholeheartedly

통독본문 Reading Plan

역대기하 2 Chronicles
25장



새314장(통511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아마샤 왕은 에돔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경배하고 분향합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공격할 때 유다는 패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였습니다.

역대기하 25:1-4, 14-16

1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이십오 세라 예루살렘에서 이십구 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2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3 그의 나라가 굳게 서매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4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14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15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16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Reading insight

When king Amaziah returned from slaughtering the Edomites, he brought back the gods of the people of Seir. He started to worship those idols. This resulted in God's anger which let God allow Judah to be defeated by the king of Israel.

2 Chronicles 25:1-4, 14-16

1 Amaziah was twenty-five years old when he began to reign, and he reigned twenty-nine years in Jerusalem. His mother's name was Jehoaddan of Jerusalem.

2 And he did what was right in the eyes of the LORD, yet not with a whole heart.

3 And as soon as the royal power was firmly his, he killed his servants who had struck down the king his father.

4 But he did not put their children to death, according to what is written in the Law, in the Book of Moses, where the LORD commanded, "Fathers shall not die because of their children, nor children die because of their fathers, but each one shall die for his own sin."

14 After Amaziah came from striking down the Edomites, he brought the gods of the men of Seir and set them up as his gods and worshiped them, making offerings to them.

15 Therefore the LORD was angry with Amaziah and sent to him a prophet, who said to him, "Why have you sought the gods of a people who did not deliver their own people from your hand?"

16 But as he was speaking, the king said to him, "Have we made you a royal counselor? Stop! Why should you be struck down?" So the prophet stopped, but said, "I know that God has determined to destroy you, because you have done this and have not listened to my counsel."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하나님을 따르는 데 있어 아마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2절)

Why was Amaziah having trouble following God? (v.2)

하나님께서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14, 15절)

Why was God angry with Amaziah? (vs. 14-15)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프렛빌한인교회, 홍성국(AL)
앵커리지한인연합감리교회, 금원재(AK)
한인총회, 한인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전부가 아니라면

If not all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2) 아마스 왕에 대한 역대기 사가의 평가입니다. 새번역은 “마음을 다하여 하지는 않았다.”라고 번역합니다. 이 평가처럼 아마샤는 에돔과의 전투에 나섰다가 돌아올 때 세 일 자손의 신상들을 가져와 자기의 신으로 모시고 그 앞에서 경배하며 분향합니다. 그는 주님께서 보내신 예언자의 충고조차 듣지 않습니다. 예언자의 충고를 무시한 아마샤는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걸다가 패하고 맙니다. 그는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에게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아마샤의 이야기는 예수님을 만나러 왔던 부자 청년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에 대해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한 모든 계명을 다 지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자신을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는 근심하면서 떠나갑니다. 재산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계명도 지키고 영생에 대해서도 궁금해했지만 재산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마음이 있었지만 주님을 따르지는 못했습니다. 전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길에 양다리하는 불가능합니다. 마음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은 마음이 없었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He did what was right in the eyes of the Lord, but not wholeheartedly” (v. 2). This is the commentary on King Amaziah by the Chronicles author. He brought the idols of Seir and set them up as his own gods, bowed down to them and burned sacrifices to them. He didn't listen to God's prophets. He ignored the warnings of the prophet and got defeated by the king of Israel. And he was killed by the conspirators.

Amaziah reminds us of the rich man who came to see Jesus. He came to ask the way to obtain the eternal life. Jesus said “sell everything and follow me.” But this man went away sad because he was wealthy. He was able to keep all the commandments but he could not give up his wealth. He liked Jesus but not to the point of giving up everything to follow Jesus. Jesus requests everything from us. We can't have both. If we can't not give all, we can't have any.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①

②

③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약으로



21 AUG
금 Fri

나병에 걸린 웃시아

Uzziah with leprosy

통독본문 Reading Plan

역대기하 2 Chronicles
26-27장



새328장(통374장)
너 주의 사람아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들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웃시아는 처음에 주님께서 보시기에 바르게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힘이 점점 세지더니 교만하게 돼서 하나님께 범죄 하게 됩니다. 그는 제사장이 해야 할 분향을 하려다가 나병을 얻어 쓸쓸히 죽어 갑니다.

역대기하 26:16-23

16 그가 강성하여지매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러 한지라

17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와 용맹한 제사장 팔십 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18 웃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웃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19 웃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러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20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시므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21 웃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환자가 되었고 나병환자가 되매 여호와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22 웃시아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23 웃시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그는 나병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Reading insight

King Uzziah did what was right in the eyes of God. But as he was becoming powerful, his pride led him to his downfall. He tried to burn incense on the altar which was ascribed to the priests. As he was raging against the priest who were objecting his behavior, leprosy broke out on his forehead and Uzziah had leprosy until he died.

2 Chronicles 26:16-23

16 But when he was strong, he grew proud, to his destruction. For he was unfaithful to the LORD his God and entered the temple of the LORD to burn incense on the altar of incense.

17 But Azariah the priest went in after him, with eighty priests of the LORD who were men of valor,

18 and they withstood King Uzziah and said to him, "It is not for you, Uzziah, to burn incense to the LORD, but for the priests, the sons of Aaron, who are consecrated to burn incense. Go out of the sanctuary, for you have done wrong, and it will bring you no honor from the LORD God."

19 Then Uzziah was angry. Now he had a censer in his hand to burn incense, and when he became angry with the priests, leprosy broke out on his forehead in the presence of the priests in the house of the LORD, by the altar of incense.

20 And Azariah the chief priest and all the priests looked at him, and behold, he was leprous in his forehead! And they rushed him out quickly, and he himself hurried to go out, because the LORD had struck him.

21 And King Uzziah was a leper to the day of his death, and being a leper lived in a separate house, for he was excluded from the house of the LORD. And Jotham his son was over the king's household, governing the people of the land.

22 Now the rest of the acts of Uzziah, from first to last, Isaiah the prophet the son of Amoz wrote.

23 And Uzziah slept with his fathers, and they buried him with his fathers in the burial field that belonged to the kings, for they said, "He is a leper." And Jotham his son reigned in his place.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성전에서 분향하려는 웃시아를 따라 들어가 가로막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16, 17절)

Who were the people who stopped and confronted Uzziah as he entered the temple to burn the incense?

(vs. 16-17)

웃시아 왕의 성전 분향이 잘못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8절)

Why is it wrong for Uzziah to burn incense to the Lord?

(v. 18)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소망연합감리교회, 조선옥(AR)
아칸사한인연합감리교회, 정형권(AR)
성도의 가정, 건강, 자녀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하나님의 대변자

God's spokesperson

웃시아 왕은 바른길을 가는 것 같더니 힘이 세지면서 교만해졌습니다. 급기야 악한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성전 안의 분향단에도 분향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때 아사랴 제사장은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왕의 뒤를 따라 들어갑니다. 제사장들은 분향은 왕의 일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왕이 범칙했으니 거룩한 곳에서 물러가라고 합니다. 이들의 말을 듣고 화를 내던 웃시아는 나병에 걸리고 맙니다. 제사장들은 웃시아를 성소에서 쫓아냅니다.

아사랴와 제사장들은 살아있는 권력을 꾸밈니다. 그들이라고 두렵지 않았을까요? 눈 질끔 감고 모른 척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거룩한 장소가 세속의 권력에 의해 더럽혀지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서로는 각자의 일에 충실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치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때 종교는 일깨워 줄 의무가 있습니다. 종교는 종교라는 영역에서만 아니라 이 세상 전체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데 관심을 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종교는 정치의 불의에 무관심하거나 비겁하게 침묵을 택하기도 합니다. 오히려 정치의 불의를 지지하는 역할을 하면서 혜택을 누리기도 합니다. 살아있는 신앙은 세상의 불의를 향해 하나님의 대변자로 살게 합니다.

Uzziah becomes prideful as he is getting more powerful. He turns away from God and commit sin. He tries to burn incense in the temple but Azariah and eighty other priests confront him with God's instruction that the duty of burning incense belongs to the priests who have been consecrated to burn incense and tell him to leave the sanctuary for he has been unfaithful. Uzziah reacts with rage but immediately his forehead breaks out with leprosy and he leaves the sanctuary.

Azariah and eighty other priests rebuked the living power of the king. Out of fear, they could have had turned their blind eyes on the king. But they could not allow the holy sanctuary to be defiled by the powerful king. Often we say, the religion and the politics should be separated. Each entity should be accountable for their own. However, when the politics do not honor God, Christians should not be silent. Our Christianity is also to bring God's justice into the world. Sometimes, Christians choose to be silent when there is injustice and discrimination. Avoiding those conflicts may reduce tensions, but true faith will always choose to speak up God's truth courageously.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①

②

③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약으로



22 AUG
토 Sat

포로가 아닌 형제자매

Siblings,
not prisoners

통독본문 Reading Plan

역대기하 2 Chronicles
28장



새221장(통525장)
주 믿는 형제들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이스라엘 군대는 유다 사람 20만 명을 사로잡아 사마리아로 데려갑니다. 선지자 오벧은 같은 형제자매니 풀어 주라고 합니다. 이들의 요청에 따라 포로들은 돌봄을 받고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역대기하 28:8-15

8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이십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략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9 그 곳에 여호와와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벧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륙하고

10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11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 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12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한안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가와 살룸의 아들 여히스기야와 하들래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13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매

14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략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15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략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Reading insight

The armies of Israel capture 200,000 Judeans and take them to Samaria. The Prophet Oded wants prisoners to be released because they are the same people like brothers and sisters. At Oded's request, the prisoners are cared for and return to their home.

2 Chronicles 28:8-15

8 The men of Israel took captive **200,000** of their relatives, women, sons, and daughters. They also took much spoil from them and brought the spoil to Samaria.

9 But a prophet of the LORD was there, whose name was Oded, and he went out to meet the army that came to Samaria and said to them, "Behold, because the LORD, the God of your fathers, was angry with Judah, he gave them into your hand, but you have killed them in a rage that has reached up to heaven.

10 And now you intend to subjugate the people of Judah and Jerusalem, male and female, as your slaves. Have you not sins of your own against the LORD your God?

11 Now hear me, and send back the captives from your relatives whom you have taken, for the fierce wrath of the LORD is upon you."

12 Certain chiefs also of the men of Ephraim, Azariah the son of Johanan, Berechiah the son of Meshillemoth, Jehizkiah the son of Shallum, and Amasa the son of Hadlai, stood up against those who were coming from the war

13 and said to them, "You shall not bring the captives in here, for you propose to bring upon us guilt against the LORD in addition to our present sins and guilt. For our guilt is already great, and there is fierce wrath against Israel."

14 So the armed men left the captives and the spoil before the princes and all the assembly.

15 And the men who have been mentioned by name rose and took the captives, and with the spoil they clothed all who were naked among them. They clothed them, gave them sandals, provided them with food and drink, and anointed them, and carrying all the feeble among them on donkeys, they brought them to their kinsfolk at Jericho, the city of palm trees. Then they returned to Samaria.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오뎡은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스라엘이 잘못된 것은 무엇일까요? (10절)

Oded warns that the Israeli army is sinning against God. What did Israel do wrong? (v. 10)

오뎡과 예브라임 자손의 지도자들의 요청을 따르자 포로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14, 15절)

What happens to the captives when the people followed Oded's request? (vs. 14-15)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늘사랑연합감리교회, 박종희(MD)
베다니한인교회, 박대성(MD)
교회와 예배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새롭게 보게 하는 상상력

New Awareness

유다의 아하스 왕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바르게 행하지 못합니다. 진노하신 하나님은 유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십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유다 사람 20명을 사로잡아 사마리아로 데려갑니다. 유다에게는 비극적인 사건이었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커다란 승리였습니다. 승리의 기쁨에 재를 뿌린 건 오돧이라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유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것은 맞지만 그들을 죽이고 노에 삼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유다가 자신들의 동족이며 형제자매들이니 풀어주라고 합니다. 모두가 유다를 적으로 보고 그들로부터 거둔 승리에 도취되어 있을 때 오돧은 그런 생각에 틈을 냅니다. 생각에 틈을 내는 건 상상력입니다. 오돧은 유다가 자신들의 적이 아니라 동족이나 형제자매라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줍니다. 그 상상력이 현실이 된 세상에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빼앗아 온 전리품들은 '형제자매들'을 위해 사용됩니다. 혈벗은 이들을 입히고, 맨발로 걸어온 이들에게 신을 신기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가져다주고, 상처 입은 사람들을 치료해 주고, 환자들은 친척들에게 넘겨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사람들로 태어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이렇게 새로운 시각으로 삶을 해석하고 사람들을 대하게 하는 상상력이 아닐까요? 원수들이 형제자매로 보이게 되는 상상 말입니다.

King Ahaz of Judah served the idols and did not do what please God. The wrathful God delivered Judah into Israel's hands. The Israeli army captured 200,000 Judeans and brought them to Samaria. It was a tragic event for Judah, but a great victory for Israel. It was the prophet Oded who sprinkled cold water over joy of victory. He said that Judah was rightly punished by God, but killing and enslaving them was against God. Then he asked them to release prisoners because they are their own people like brothers and sisters.

Oded breaks their thoughts when everyone sees Judah as an enemy while intoxicated with the victory they have gained. It is new awareness that challenges their mindsets. Oded provides a new perspective in which Judas is not their enemy, but relatives or siblings. When Oded's imagination became a reality, new mindset emerges in amazing reversal. The loot that was taken is used for 'brothers and sisters'; Dress the bare, give shoes to those who walk barefoot, bring food and drink, heal wounded people, and hand over patients to their relatives. What born-again Christians need is an imagination to interpret life with this new perspective. That is the imagination to make enemies appear to you as siblings.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①

②

③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약으로



제목 Title

.....

성경본문 Scripture

.....

주요내용 Outline

.....

하나님의 음성 God's Voice

.....

주일 말씀이나 더 깊이 묵상할 내용을 기록합니다.

나의 결단 / 적용 My Heart / Application

나의 기도제목 My Prayers

교회의 기도제목 Prayers of My Church

한 주간의 일정 This Week

새 학기, 새 아침에...

한진호 목사(은혜한인연합감리교회, CA)

여러 해 전에 글렌데일 교회에서 사역할 때에 목회자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첫날 저녁에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는 목회자들이 자신의 삶의 배경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었습니다. 그때에 영어 회중 목사님이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셨던 일이 기억납니다. 하루는 가족들과 함께 식탁에서 저녁 식사를 하는데 실수로 물 컵을 넘어뜨려서 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즉시로 함께 식사를 하시던 어머니께서 '에그 병신, 너는 눈도 없냐? 조심해야지' 하시면서 핀잔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 쏟는 사람은 병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TV를 보고 있는데 어머니가 지나가시면서 탁자 위에 있던 물컵을 쓰러뜨려서 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너는 물 컵을 이렇게 아무 데나 두면 어떡하냐?'고 하시면서 화를 내시더라는 겁니다.

그때에 2세였던 영어회중 목사님이 자신이 부모님들에게서 느끼는 세대 차이를 설명하면서 이민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2세나 3세들이 이러한 가정의 분위기에서 성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격려와 따뜻한 위로의 말보다는 부모님 위주의 사고로 자녀들이 외로움을 느끼고 힘들게 지내고 있다는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역시 자녀에게 한 제 행동을 생각하면서 깊이 반성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이 새 학기를 맞이하여 한 학년씩 진급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너무 긴 방학을 보냈습니다. 미국의 여름방학이 길기 때문에 자녀들의 생활 습관도 새 학기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시기에 엄마와 자녀들과의 관계에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생활에서 이제 학교 시간에 맞춰서 적응하려면 엄마들이 많이 힘든 때이기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어머니 되시는 분들, 아침에 아이들이 잠자리에서 잘 일어나지 않을 때, 특별히 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 아이들이 학교에 다닐 때에, 그 아침을 상상해보면, 이렇습니다. ‘야, 빨리 일어나, 학교 가야지!(양반입니다)’ 그래도 못 일어나면 그다음 단계는 ‘그래서 엄마가 어젯밤에 불 끄고 일찍 자라고 했지!(약간 열이 오르기 시작하지요)’ 그래도 못 일어나면, ‘으이그, 저게 누굴 닮아서 꼭...(그다음에는 뭐 대부분 아빠죠)’

아이들의 버릇이나 습관은 거의 대부분 가정에서 형성이 됩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하면 아이들은 건강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가정이 불행하면 아이들은 덩달아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은 우리 자녀들의 꿈을 키워줄 수 있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새 학기, 개학을 맞이하여 우리들의 자녀들이 새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24 AUG
월 Mon

히스기야의 개혁

Hezekiah's reform

통독본문 Reading Plan

역대기하 2 Chronicles
29장



새545장(통344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봐어도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들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히스기야 왕은 주님께서 보실 때 바르게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는 아하스 왕이 망가뜨려 놓은 성전과 성소를 다시 복원시킵니다. 그런 후에 온 백성이 함께 모여서 감격의 예배를 드립니다.

역대기하 29:1-11

1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이십오 세라 예루살렘에서 이십구 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2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3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4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5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6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와 성소를 등지고

7 또 낭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8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려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9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10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11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Reading insight

King Hezekiah rules the country right when the Lord sees it. He restores the temple and sanctuary that King Ahaz had destroyed. After that, the whole people gather together to worship in joy.

2 Chronicles 29:1–11

1 Hezekiah began to reign when he was twenty-five years old, and he reigned twenty-nine years in Jerusalem. His mother's name was Abijah the daughter of Zechariah.

2 And he did what was right in the eyes of the LORD, according to all that David his father had done.

3 In the first year of his reign, in the first month, he opened the doors of the house of the LORD and repaired them.

4 He brought in the priests and the Levites and assembled them in the square on the east

5 and said to them, "Hear me, Levites! Now consecrate yourselves, and consecrate the house of the LORD, the God of your fathers, and carry out the filth from the Holy Place.

6 For our fathers have been unfaithful and have done what was evil in the sight of the LORD our God. They have forsaken him and have turned away their faces from the habitation of the LORD and turned their backs.

7 They also shut the doors of the vestibule and put out the lamps and have not burned incense or offered burnt offerings in the Holy Place to the God of Israel.

8 Therefore the wrath of the LORD came on Judah and Jerusalem, and he has made them an object of horror, of astonishment, and of hissing, as you see with your own eyes.

9 For behold, our fathers have fallen by the sword, and our sons and our daughters and our wives are in captivity for this.

10 Now it is in my heart to make a covenant with the LORD, the God of Israel, in order that his fierce anger may turn away from us.

11 My sons, do not now be negligent, for the LORD has chosen you to stand in his presence, to minister to him and to be his ministers and make offerings to him."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신 원인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6, 7절)

Where does Hezekiah find the cause of God's wrath against Judah? (vs. 6–7)

히스기야가 개혁을 위해 레위인들에게 내린 지시는 무엇입니까? (5절)

What instructions did Hezekiah give to the Levites for the reform? (v. 5)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성령의불꽃교회, 유재유(MD)
알파커뮤니티한인교회, (DC)
목회자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쓰레기들을 깨끗이 치우고

Clean up the trash

히스기야는 닫혔던 성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성소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없애고 성전을 성결하게 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신 이유를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성소를 등진 것에서 찾았습니다. 히스기야의 명령을 따라 레위 사람들이 성전을 깨끗하게 합니다. 성전 안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가져다 버립니다. 대신 아하스 왕이 버렸던 성전의 모든 기구들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습니다. 성전의 청소를 마친 후 온 회중이 모여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히스기야의 성전 개혁은 로버트 명어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을 생각나게 합니다.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 들이기 원할 때 그분은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우리의 내면은 그분이 머무시는 성소가 됩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오래 머무시며 우리와 친밀한 사귀를 나누기 위해서는 청소가 필요합니다. 내면의 서재, 주방, 거실, 작업실, 오락실, 침실, 벽장 등에 있는 쓰레기들을 깨끗이 치우고 불필요한 것들을 내다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편안히 머무시도록 새롭게 정돈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주인으로 우리와 함께 살아가십니다.

Hezekiah opens the closed temple doors and starts repairing them. He summons the priests and Levites and orders them to remove all the defiled things from the sanctuary and sanctify the temple. He found the reason why God is angry with Judah because they left God and turned their backs on the sanctuary. Following the orders of Hezekiah, the Levites cleanse the temple. Take away all the defiled things in the temple. Then, they return all the utensils of the temple that King Ahaz had abandoned. After the temple has been cleaned, the whole congregation gathers and worships God with thanksgiving.

Hezekiah's temple reform reminds me of Robert Munger's book "My Heart Christ's home". When we want to bring the Lord into our hearts, He comes into us. Our inner side becomes the sanctuary where Christ dwells. He needs to clean up to stay in us for a long time and to share intimate relationships with us. You need to clean up the garbage in your interior library, kitchen, living room, workroom, recreation room, bedroom, closet, and throw out unnecessary things. And it is to tidy up so that the Lord stays comfortable. Then the Lord lives with us as the master in all parts of our lives.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①

②

③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약으로



25 AUG
화 Tue

히스기야 때의 유월절

Passover in the era
of King Hezekiah

통독본문 Reading Plan

역대기하 2 Chronicles
30장



새535장(통325장)
주 예수 대문 밖에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히스기야는 유다와 온 이스라엘에 편지를 보내 유월절을 지키도록 초청합니다. 보발꾼들은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지역을 다니며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요청합니다. 이에 감동된 큰 무리가 모여서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킵니다.

역대기하 30:1-12

1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와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2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3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수 없었음이라

4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5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라

6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 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렀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앗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7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 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8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9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10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니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11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12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와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Reading insight

Hezekiah sends letters to Judah and all Israel to invite them to celebrate the Passover. Following the king's orders, the messengers travel all over the area, asking people to return to God. A large crowd of inspired people gather to celebrate the Passover.

2 Chronicles 30:1–12

¹ Hezekiah sent to all Israel and Judah, and wrote letters also to Ephraim and Manasseh, that they should come to the house of the LORD at Jerusalem to keep the Passover to the LORD, the God of Israel.

² For the king and his princes and all the assembly in Jerusalem had taken counsel to keep the Passover in the second month--

³ for they could not keep it at that time because the priests had not consecrated themselves in sufficient number, nor had the people assembled in Jerusalem--

⁴ and the plan seemed right to the king and all the assembly.

⁵ So they decreed to make a proclamation throughout all Israel, from Beersheba to Dan, that the people should come and keep the Passover to the LORD, the God of Israel, at Jerusalem, for they had not kept it as often as prescribed.

⁶ So couriers went throughout all Israel and Judah with letters from the king and his princes, as the king had commanded, saying, "O people of Israel, return to the LORD, the God of Abraham, Isaac, and Israel, that he may turn again to the remnant of you who have escaped from the hand of the kings of Assyria.

⁷ Do not be like your fathers and your brothers, who were faithless to the LORD God of their fathers, so that he made them a desolation, as you see.

⁸ Do not now be stiff-necked as your fathers were, but yield yourselves to the LORD and come to his sanctuary, which he has consecrated forever, and serve the LORD your God, that his fierce anger may turn away from you.

⁹ For if you return to the LORD, your brothers and your children will find compassion with their captors and return to this land. For the LORD your God is gracious and merciful and will not turn away his face from you, if you return to him."

¹⁰ So the couriers went from city to city through the country of Ephraim and Manasseh, and as far as Zebulun, but they laughed them to scorn and mocked them.

¹¹ However, some men of Asher, of Manasseh, and of Zebulun humbled themselves and came to Jerusalem.

¹² The hand of God was also on Judah to give them one heart to do what the king and the princes commanded by the word of the LORD.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5절)

Why is King Hezekiah trying to celebrate the Passover?

(v. 5)

보발꾼들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도 돌아오실 것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 회복을 가능하게 합니까?

(9절)

The messengers say that if the people return to God, God will also return to them. What character of God makes recovery possible? (v.9)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에덴연합감리교회, 신요섭(MD)
워싱턴감리교회, 이승우(MD)
국내외 선교사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너희가 만일 돌아오면

If you come back

성전 제사를 회복한 히스기야 왕은 이제 유월절을 지키려고 합니다. 히스기야는 유다뿐 아니라 온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 유월절을 지키도록 초청합니다. 보발꾼들은 왕의 명령을 따라 두루 다니며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백성들에게 요청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도 돌아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반응은 제각기 갈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발꾼들을 비웃고 놀려댑니다. 하지만 이 초청에 겸손하게 귀를 기울이고 예루살렘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유월절의 은총을 누립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탁월한 비유입니다. 하나님은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라 기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있습니다. 우리가 그 초청을 받아들이면 그분은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함께 살아가십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의 선택에 그 관계가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기초합니다. 그분의 한없는 인내와 무한한 사랑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지탱하게 하는 뿌리입니다.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라면 더 이상 하나님을 문밖에 세워둘 수 없습니다.

King Hezekiah, who restored the temple sacrifice, wanted to celebrate the Passover. Hezekiah sent letters to all Israel, Ephraim, and Manasseh, as well as to Judah, and invited them to celebrate the Passover together. The messengers followed the king's orders and asked the people to return to God. In response the Lord would return then, because God is gracious and merciful. Each person had different reactions. Some people laughed and made fun of messengers. However, there were those who humbly listened to this invitation and came to Jerusalem. Those gathered together experienced the grace of Passover.

“Here I am! I stand at the door and knock. If anyone hears my voice and opens the door, I will come in and eat with that person, and they with me.” Revelation 3:20 is an excellent analogy to our relationship with God. God is not a taskmaster, but is tolerant. The choice is up to us. When we accept the invitation, He comes in and eats and lives with us. Therefore, it seems that the relationship depends on our choice. However, the relationship is based entirely on God's grace and mercy. His boundless patience and infinite love are the roots that sustain the relationship between God and us. Anyone who knows God can no longer let Him stand outside the door.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①

②

③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약으로



26 AUG
수 Wed

앗수르의 위협 앞에서

Under the threat
of Assyria

통독본문 Reading Plan

역대기하 2 Chronicles
31-32장



새351장(통389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들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히스기야는 앗수르 왕 산헤립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는 백성들을 격려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 히스기야는 영화를 누리다가 죽고, 온 백성의 존경을 받으며 다윗 자손의 묘실 제일 높은 곳에 장사됩니다.

역대기하 32:1-8

1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앗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2 히스기야가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3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4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앗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5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 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6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7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앗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8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Reading insight

Hezekiah is attacked by Sennacherib, king of Assyria. He encourages the people for crying out to God and leading the war to victory. Hezekiah, who served God well and died while enjoying prosperity, is respected by all the people, and is buried in the section of the royal tombs that is reserved for the most respected kings.

2 Chronicles 32:1-8

1 After these things and these acts of faithfulness, Sennacherib king of Assyria came and invaded Judah and encamped against the fortified cities, thinking to win them for himself.

2 And when Hezekiah saw that Sennacherib had come and intended to fight against Jerusalem,

3 he planned with his officers and his mighty men to stop the water of the springs that were outside the city; and they helped him.

4 A great many people were gathered, and they stopped all the springs and the brook that flowed through the land, saying, “Why should the kings of Assyria come and find much water?”

5 He set to work resolutely and built up all the wall that was broken down and raised towers upon it, and outside it he built another wall, and he strengthened the Millo in the city of David. He also made weapons and shields in abundance.

6 And he set combat commanders over the people and gathered them together to him in the square at the gate of the city and spoke encouragingly to them, saying,

7 “Be strong and courageous. Do not be afraid or dismayed before the king of Assyria and all the horde that is with him, for there are more with us than with him.

8 With him is an arm of flesh, but with us is the LORD our God, to help us and to fight our battles.” And the people took confidence from the words of Hezekiah king of Judah.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히스기야 왕이 군사들을 향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7절)

What is the basis for King Hezekiah to encourage his soldiers to strengthen their hearts and be bold? (v. 7)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육신의 팔’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8절)

Do you have “the arm of the body” that you rely more than God? What is it? (v. 8)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하늘비전교회, 장재웅(MD)
가나안한인연합감리교회, 이상현(CA)
교단총회와 리더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하나님이 계신다

God is alive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긴 히스기야 왕 시절에도 여김없이 시련은 찾아옵니다. 앗수르 왕 산헤립은 유다로 쳐들어와 백성들을 위협합니다. 히스기야는 성 밖에 있는 물줄기를 막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고 창과 방패도 준비합니다. 그런 다음 강하고 담대하라고 군사들을 격려합니다. 앗수르 왕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앗시리아 왕에게 있는 것이 '육신의 팔'이라고 합니다. 새번역은 '군대의 힘뿐'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군사력이 전부라고 여겨지는 싸움터에서 그는 그 절대 가치를 비웃습니다. 승리의 궁극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꿰뚫어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자신들을 도우실 뿐 아니라 대신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군사들에게 요청합니다. 백성들은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 힘을 냅니다.

돈과 권력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절대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이런 것들이 넉넉하면 우쭐해지고 부족하면 위축됩니다. 이 절대 가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은 때로 무기력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지향하는 것이 믿음의 여정입니다. 세상의 절대적인 가치를 향해서 '그것뿐'이라고 말하면서 진실로 절대적인 신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Even in the days of King Hezekiah, who faithfully serves God, trials continue to come. Sennacherib, king of Assyria, invades into Judah and threatens the people. Hezekiah blocks the stream outside the castle, rebuilds the collapsed walls and manufactures large numbers of weapons and shields. Then he encourages the soldiers to be strong and bold. It is because he believes that there is a God greater than King Assyria. Hezekiah says that the king of Assyria is the "arm of the flesh." The new translation is 'only the power of the military'. In the battlefield where military power is considered to be everything, he laughs at its absolute reality. He's seeing where the ultimate cause of victory is. Hezekiah also asks the soldiers to look at God fighting on their behalf. They listen to Hezekiah and receive strength.

Money and power exert absolute power in our world. When these things are enough, people become proud and when they are insufficient, people become discouraged. In front of this absolute principle, our faith sometimes feels powerless. But it is our journey of faith that aims for reaching to the invisible divine principles. We must trust Him who sets what is absolute truth while defeating the noncompromising principle of the world.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①

②

③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약으로



27 AUG
목 Thu

므낏세의 회개

Manasseh's
Repentance

통독본문 Reading Plan

역대기하 2 Chronicles
33장



새435장(통49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므낏세는 하나님 대신 우상들을 섬깁니다. 그 결과 앗수르 왕의 공격을 받고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므낏세가 주님께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다시 왕이 되어 다스립니다.

역대기하 33:10-13, 15-18

10 여호와께서 므낏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11 여호와께서 앗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낏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12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13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낏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15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산에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16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17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18 므낏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권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Reading insight

Manasseh served idols instead of God. As a result, he was attacked by the King of Assyria and taken to Babylon. As God responded to Manasseh's prayers, he was able to return to Jerusalem and rule again as king.

2 Chronicles 33:10-13, 15-18

10 The LORD spoke to Manasseh and to his people, but they paid no attention.

11 Therefore the LORD brought upon them the commanders of the army of the king of Assyria, who captured Manasseh with hooks and bound him with chains of bronze and brought him to Babylon.

12 And when he was in distress, he entreated the favor of the LORD his God and humbled himself greatly before the God of his fathers.

13 He prayed to him, and God was moved by his entreaty and heard his plea and brought him again to Jerusalem into his kingdom. Then Manasseh knew that the LORD was God.

15 And he took away the foreign gods and the idol from the house of the LORD, and all the altars that he had built on the mountain of the house of the LORD and in Jerusalem, and he threw them outside of the city.

16 He also restored the altar of the LORD and offered on it sacrifices of peace offerings and of thanksgiving, and he commanded Judah to serve the LORD, the God of Israel.

17 Nevertheless, the people still sacrificed at the high places, but only to the LORD their God.

18 Now the rest of the acts of Manasseh, and his prayer to his God, and the words of the seers who spoke to him in the name of the LORD, the God of Israel, behold, they are in the Chronicles of the Kings of Israel.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므낏세가 환난을 당한 후에 달라진 것은 무엇입니까? (12절)

What changed after Manasseh's tribulation (v. 12)

환난을 겪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서 므낏세가 알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13절)

What did Manasseh realize after experiencing tribulation and God's response to his prayer? (v. 13)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버클리새교회, 김종식(CA)
베델연합감리교회, 한인희(CA)
한인총회, 한인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겸손을 배우다

He learns humility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 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고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쌓고 각종 우상들을 섬깁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습니다. 그 결과 앗수르의 공격을 받아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신세가 됩니다. 그는 고통을 겪은 후에야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배웁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고 간구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므낫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다시 왕이 되어 다스립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그는 주님만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후로 그는 전과 다르게 우상들을 없애고 하나님만을 섬기게 됩니다.

회개를 하나님께 드리는 말의 고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개라는 동전을 넣으면 용서라는 제품이 자동으로 나오는 자판기같이 말입니다. 회개를 가볍게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값싸집니다. 변화는 없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양심의 가책 없이 회개를 반복하게 됩니다. 므낫세는 회개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그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고 겸손해집니다. 겸손은 겸손한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신이 누군지를 발견한 사람에게서 우러나오는 삶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진 므낫세는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Manasseh rebuilds the high places that his father Hezekiah has destroyed, and builds an altar to serve Baal and various idols. He doesn't even listen to God. As a result, he is attacked by Assyria and taken to Babylon. He learns humility before God only after suffering. Only then he begins to see God and learn to pray. With the grace of God, Manasseh returns to Jerusalem and reigns as king. Through this experience, he realizes that the Lord is the only God. Since then, he has eliminated idols and served God alone.

There are those who think repentance is a verbal confession to God. When you put a coin called repentance, a product called forgiveness comes out automatically. The more superficial you think of repentance, the cheaper the grace of God will be. There is no transformation, and you keep on repeating repentance without remorse. Manasseh sets an example of repentance. In pain, he discovers who God is and becomes humble. Humility is not a humble attitude, but an attitude of life that comes from someone who discovers who God is and who he or she is. Manasseh, humbled before God, lives a completely different lif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①

②

③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약으로



28 AUG
금 Fri

요시아의 개혁

Josiah's reform

통독본문 Reading Plan

역대기하 2 Chronicles
34장



새200장(통235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들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요시아는 온 지역을 다니며 우상들을 제거하는 일에 힘씁니다.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발견된 율법 책이 낭독되자 요시아는 자기 옷을 찢습니다. 그는 온 백성들을 불러 모아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합니다. 왕과 백성들은 모두 그 말씀을 따르겠다는 언약을 세웁니다.

역대기하 34:14-21, 29-32

14 무리가 여호와와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와 율법책을 발견하고

15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와 전에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16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17 또 여호와와 전에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18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으매

19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20 왕이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21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와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29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30 여호와와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와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 주고

31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32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Reading insight

Josiah travels all over the region, trying to get rid of idols. Josiah tears his clothes as the book of the law found while repairing the temple is read. He brings the people of Jerusalem together and makes the words heard. Both the king and the people make a covenant to follow all the words of the covenant written in the scroll.

2 Chronicles 34:14-21, 29-32

14 While they were bringing out the money that had been brought into the house of the LORD, Hilkiah the priest found the Book of the Law of the LORD given through Moses.

15 Then Hilkiah answered and said to Shaphan the secretary, "I have found the Book of the Law in the house of the LORD." And Hilkiah gave the book to Shaphan.

16 Shaphan brought the book to the king, and further reported to the king, "All that was committed to your servants they are doing.

17 They have emptied out the money that was found in the house of the LORD and have given it into the hand of the overseers and the workmen."

18 Then Shaphan the secretary told the king, "Hilkiah the priest has given me a book." And Shaphan read from it before the king.

19 And when the king heard the words of the Law, he tore his clothes.

20 And the king commanded Hilkiah, Ahikam the son of Shaphan, Abdon the son of Micah, Shaphan the secretary, and Asaiah the king's servant, saying,

21 "Go, inquire of the LORD for me and for those who are left in Israel and in Judah, concerning the words of the book that has been found. For great is the wrath of the LORD that is poured out on us, because our fathers have not kept the word of the LORD, to do according to all that is written in this book."

29 Then the king sent and gathered together all the elders of Judah and Jerusalem.

30 And the king went up to the house of the LORD, with all the men of Judah and the inhabitants of Jerusalem and the priests and the Levites, all the people both great and small. And he read in their hearing all the words of the Book of the Covenant that had been found in the house of the LORD.

31 And the king stood in his place and made a covenant before the LORD, to walk after the LORD and to keep his commandments and his testimonies and his statutes, with all his heart and all his soul, to perform the words of the covenant that were written in this book.

32 Then he made all who were present in Jerusalem and in Benjamin join in it. And the inhabitants of Jerusalem did according to the covenant of God, the God of their fathers.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의 말씀을 듣고 나서 요시아 왕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9절)

How did King Josiah react after hearing the words of the law found in the temple? (v. 19)

성전에 모인 백성들은 율법책의 말씀을 모두 들은 후 어떤 일을 합니까? (30-32절)

What did the people who gather at the temple do after they heard all the words of the book of the law? (vs. 30-32)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산티클라라연합감리교회, 홍삼열(CA)
상향한국인연합감리교회, 송계영(CA)
성도의 가정, 건강, 자녀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말씀이 들려질 때

When the words are heard

복음서에 나오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는 말씀과 우리들 사이의 역동적인 관계를 잘 보여줍니다. 씨로 비유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길 가든, 돌짜밭이든, 가시덤불이든 가리지 않고 뿌려집니다. 씨앗은 자신이 내려앉는 토양이 어떤지에 따라 그 생명력이 결정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게도 그걸 받는 사람의 마음의 토양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성전 수리 중에 모세가 전한 주님의 율법책이 발견됩니다. 사반 서기관은 그 책을 요시아 왕 앞에서 큰 소리로 읽습니다. 말씀을 다 들은 왕은 애통해하면서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 하나님의 진노가 크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왕은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어야만 한다고 결정합니다.

성전에 모인 백성들에게 언약 책에 적힌 모든 말씀이 큰 소리로 들려집니다. 말씀을 들은 후 왕과 백성들은 그 말씀을 따르겠다는 언약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모든 사람들은 변화의 가능성을 가집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심겨지고 뿌리를 내려 열매를 맺는 것은 토양, 즉 그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살기도 죽기도 하는 것이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사실이 두렵게 느껴집니다.

“The parable of the sower” in the Gospels illustrates the dynamic relationship between the Word and us. The word of God, likened to a seed, is sown regardless of whether it is a roadside, a stone field, or a thorn bush. A seed’s vitality depends on the type of soil on which it sinks. The holy word of God is surprisingly dependent on the soil of the heart of the person receiving it.

During the temple repair, a book of the Lord’s law from Moses was found. The scribe of Shaphan reads the book aloud in front of King Josiah. After hearing the word, the king mourns and tears his clothes. It is because he realizes that God’s wrath is great because they did not follow the words of the covenant. The king decides that not only himself, but all people must listen to the words of the covenant.

All the words in the covenant book are proclaimed aloud to the people gathered in the temple. After hearing the word, the king and the people make a covenant to follow the words. When God’s Word is heard, everyone has the possibility of transformation. However, it is up to the soil, the heart of the person, whether the word is planted to settle the roots to bear fruit. I feel terrified that it is really up to us whether the Holy Word of God lives or dies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①

②

③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약으로



29 AUG
토 Sat

요시야 때의 유월절

Passover of Josiah

통독본문 Reading Plan

역대기하 2 Chronicles
35장



새211장(통346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요시야 왕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자신이 제물에 쓰일 짐승들을 내놓고 지도자들도 요시야를 따라 자기 소유의 짐승들을 내놓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월절이 성대하게 지켜집니다.

역대기하 35:7-9, 16-19

7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이를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 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삼만 마리와 수소 삼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8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힐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이천육백 마리와 수소 삼백 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9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나냐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또 하사바와 여이엘과 요사밧은 양 오천 마리와 수소 오백 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16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와 제단에 드렸으며

17 그 때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칠 일 동안 지켰으니

18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19 요시야가 왕위에 있는 지 열여덟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Reading insight

King Josiah gives instructions to the priests and Levites to celebrate the Passover. He donates his own beasts to be used for sacrifice, and the leaders follow Josiah to bring out their own beasts. In this way, the Passover is celebrated magnificently.

2 Chronicles 35:7-9, 16-19

7 Then Josiah contributed to the lay people, as Passover offerings for all who were present, lambs and young goats from the flock to the number of 30,000, and 3,000 bulls; these were from the king's possessions.

8 And his officials contributed willingly to the people, to the priests, and to the Levites. Hilkiah, Zechariah, and Jehiel, the chief officers of the house of God, gave to the priests for the Passover offerings 2,600 Passover lambs and 300 bulls.

9 Conaniah also, and Shemaiah and Nethanel his brothers, and Hashabiah and Jeiel and Jozabad, the chiefs of the Levites, gave to the Levites for the Passover offerings 5,000 lambs and young goats and 500 bulls.

16 So all the service of the LORD was prepared that day, to keep the Passover and to offer burnt offerings on the altar of the LORD, according to the command of King Josiah.

17 And the people of Israel who were present kept the Passover at that time, and the Feast of Unleavened Bread seven days.

18 No Passover like it had been kept in Israel since the days of Samuel the prophet. None of the kings of Israel had kept such a Passover as was kept by Josiah, and the priests and the Levites, and all Judah and Israel who were present, and the inhabitants of Jerusalem.

19 In the eighteenth year of the reign of Josiah this Passover was kept.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유월절에 백성들이 드릴 제물을 위해 자기 것을 내놓은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7-9)

Who presented their offerings at the Passover? (vs. 7-9)

요시아 왕 때 지킨 유월절에 대한 평가는 어땠습니까? (18절)

How was the evaluation of the Passover that the people kept during the time of King Josiah? (v.18)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새열매교회, 남기정(CA)
열린교회, 권혁인(CA)
교회와 예배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나누기 시작할 때

When we start to share

요시아 왕의 개혁은 유월절을 지키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그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유월절을 준비하도록 지시합니다. 인상적인 것은 요시아 자신이 유월절에 드릴 제물을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짐승들을 백성들에게 거저 내어 놓는 것입니다.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의 규모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짐승을 한 사람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구조적인 면에서 생각해 볼 것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걸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왕이 자신의 것을 내놓자 왕의 신하들도, 성전의 최고 책임자들도 기꺼이 자원해서 내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어느 때보다 성대하게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부자 되세요”라는 말이 한때 유행이었습니다. 이전에는 그런 내면의 욕망이 있어도 그걸 드러내지 않는 걸 미덕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덕담으로 주고받으며 아무렇지도 않게 여깁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최고의 꿈은 건물주라는 말도 들립니다. 부를 경계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부는 부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대한 책임을 동반합니다. 가진 사람들이 내어 놓을 때 불평등한 사회 구조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진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우리 모두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모두는 가진 것들이 있습니다. 부자의 기준은 상대적입니다. 그 기준에서 자기 것들을 내어 놓고 나누기 시작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King Josiah's reforms lead to the restoration of Passover. He instructs the priests and Levites to prepare for the Passover. What's impressive is that Josiah himself gives away the beasts he owns for the offering at the Passover. Josiah donated thirty thousand sheep and goats, and three thousand bulls from his own flocks and herds. The fact that one man owns so many beasts has something to think about in terms of ethics, but the important thing is that he comes up with the fresh idea. When the king brings his own, the king's servants and the chief officers of the temple are willing to participate. This will make the celebration of Passover more magnificent than ever.

The word “Get rich quick” was once fashionable. In the past, even though some had such an inner desire, it was considered a virtue not to reveal it. But these days people are now giving and receiving that word as virtue, and they are even considered casual. I hear that the best dream for young people is to become a landlord. There are good reasons to be wary of wealth. Wealth comes with responsibility for the Have Nots people. When the Haves is generous, unequal social structures can be improved. So who are those who have so much? All of us. There is a difference in degree, but we all have things. The standard of the wealth is relative. The kingdom of God comes when you give up your own things and start sharing.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①

②

③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약으로



제목 Title

.....

성경본문 Scripture

.....

주요내용 Outline

.....

하나님의 음성 God's Voice

.....

주일 말씀이나 더 깊이 묵상할 내용을 기록합니다.

나의 결단 / 적용 My Heart / Application

나의 기도제목 My Prayers

교회의 기도제목 Prayers of My Church

한 주간의 일정 This Week

처음부터 끝까지

이철구 목사(남부플로리다한인연합감리교회, FL)

많은 한인 어른들이 <Welfare가 효자다!>라는 말을 합니다. 듣기 민망하긴 하지만, 현실을 반영한 말입니다. 자식들은 살기 바빠서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고 정기적으로 돕지도 못하는데 정부에서 매달 꼬박꼬박 생활비를 보내주니 틀린 말이 아닙니다. 돈을 <빚>으로 삼는 시대입니다. 늙을수록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늙은 몸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돈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노후를 대비한다고 할 때, 그 말은 일반적으로 여생을 위해 예금을 많이 해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적 흐름에 반하는 한 사건이 몇 해 전에 있었습니다. 미국 재무부에서 숨겨진 재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벌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약 2백만 달러 상당의 재산 수령을 거부한 남성이 있어 화제가 된 것입니다. 아이오와주 스톤 레이크에 거주하는 85세의 한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돈을 찾아가라는 정부의 요구에 '돈을 받을 이유가 없다'며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그 거액을 받아 가라는데 거부하다니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주 관계자는 '그는 단지 귀찮다는 이유로 그 돈을 받아 가지 않는 것 같다'고 했는데, 정말 그럴까요? 그가 실성하지 않은 정상적인 상태에서 그런 결정을 했다면 그는 <하산>해야 할 자일 것입니다. 황금을 돌처럼 본 것이니 말입니다. 그분의 선택에 대해 선뜻 이해되지 않았으나, 혼자서 "그분은 돈을 받고 자신이 누리고 있던 평화가 깨지는 것보다 돈을 받지 않고 그 평화를 지키는 것이 좋다고 판단한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 했는데, 그때 떠오른 성경 구절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고후 6:10)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듯이 보입니다. 그에게 욕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누구입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상대방이 가진 무언가를 본다는 말은 그 사람이 가진 욕심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이 보이나, 실상은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항상 현재 진행형이어야 합니다. 과거보다 현재가 중요합니다. 과거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은혜도 받고 헌신을 많이 했으면 뭐합니까?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지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역대하 16:11). 끝까지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지 못하면 이전의 믿음도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아사는 처음에만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의 마지막을 보면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그는 국가 위기 중에 하나님이 아닌 아람의 벤하닷에게 손을 내밀어 구원받기를 청했고, 그 와중에 성전 곳간의 은금을 뇌물로 바치는 죄를 범했습니다. 성전 곳간의 물품은 모두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야 했는데, 아사는 그 뜻을 무시하고 자신 생각대로 유용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에 두라”(욥 22:22). 여기서 <마음에 둔다>는 말은 말씀을 피와 심장이 움직이는 곳 즉 생명의 중심에 있게 한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게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주는 힘으로 생각하고 움직이라는 의미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이 되었다면 그에 걸맞는 삶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중심인 마음에 두고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고레스의 귀국 명령

Cyrus Lets
the Jews Return
Home

통독본문 Reading Plan

역대기하 2 Chronicles
36장



새357장(통39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들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유다의 마지막을 다스린 왕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게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 결과 왕들과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유다 땅으로 돌려보내십니다.

역대기하 36:11-23

11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이십일 세라 예루살렘에서 십일 년 동안 다스리며

12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13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14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죈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15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16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와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17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시매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공홀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18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와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19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20 칼에서 살아 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21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 같이 안식하여 칠십 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22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23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Reading insight

At the end of Judah dynasty, the kings ruled the kingdom evil in the eyes of God. As a result, kings and many people were taken into captivity. But God sent Israelites back to Judah through King Cyrus.

2 Chronicles 36:11-23

11 Zedekiah was twenty-one years old when he began to reign, and he reigned eleven years in Jerusalem.

12 He did what was evil in the sight of the LORD his God. He did not humble himself before Jeremiah the prophet, who spoke from the mouth of the LORD.

13 He also rebelled against King Nebuchadnezzar, who had made him swear by God. He stiffened his neck and hardened his heart against turning to the LORD, the God of Israel.

14 All the officers of the priests and the people likewise were exceedingly unfaithful, following all the abominations of the nations. And they polluted the house of the LORD that he had made holy in Jerusalem.

15 The LORD, the God of their fathers, sent persistently to them by his messengers, because he had compassion on his people and on his dwelling place.

16 But they kept mocking the messengers of God, despising his words and scoffing at his prophets, until the wrath of the LORD rose against his people, until there was no remedy.

17 Therefore he brought up against them the king of the Chaldeans, who killed their young men with the sword in the house of their sanctuary and had no compassion on young man or virgin, old man or aged. He gave them all into his hand.

18 And all the vessels of the house of God, great and small, and the treasures of the house of the LORD, and the treasures of the king and of his princes, all these he brought to Babylon.

19 And they burned the house of God and broke down the wall of Jerusalem and burned all its palaces with fire and destroyed all its precious vessels.

20 He took into exile in Babylon those who had escaped from the sword, and they became servants to him and to his sons until the establishment of the kingdom of Persia,

21 to fulfill the word of the LORD by the mouth of Jeremiah, until the land had enjoyed its Sabbaths. All the days that it lay desolate it kept Sabbath, to fulfill seventy years.

22 Now in the first year of Cyrus king of Persia, that the word of the LORD by the mouth of Jeremiah might be fulfilled, the LORD stirred up the spirit of Cyrus king of Persia, so that he made a proclamation throughout all his kingdom and also put it in writing:

23 “Thus says Cyrus king of Persia, ‘The LORD, the God of heaven, has given me all the kingdoms of the earth, and he has charged me to build him a house at Jerusalem, which is in Judah. Whoever is among you of all his people, may the LORD his God be with him. Let him go up.’”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타락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사신들을 보내 자신의 뜻을 전하려 하십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15, 16절)

To the fallen people of Judah, God sent prophets to communicate His will. But what was the reaction of the people? (vs 15-16)

하나님께서 바사 왕 고레스를 통해 하시려는 일은 무엇입니까? (23절)

What was God going to do through Cyrus, king of Persia? (v. 23)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예수사랑교회, 이강원(CA)
오콜랜드한인연합감리교회, 정현섭(CA)
목회자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희망은 하나님께 있다

Hope is in God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시드기야에 이르는 유다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시기였습니다. 그 결과 성전은 침략 당하고 왕들과 많은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통해 거듭 경고하셨지만 왕과 백성들은 조롱하고 무시하고 비웃었습니다. 때로 세상을 보면 희망이라고는 찾아보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세상 속에서 환경은 무참히 파괴되고 약자는 보호받지 못하고 억울한 사람들은 늘어만 갑니다. 악은 심판받는 대신 번성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희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찾아옵니다.

역대기의 마지막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희망의 그림자를 힐끗 비춰줍니다. 하나님은 바사 고레스 왕을 통해 유다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 예루살렘에 다시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십니다. 인간이 아무리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아도 하나님은 다시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자신의 뜻을 이뤄가시고 맙니다. 역대기를 읽은 사람들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잘못된 삶의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며 바른 삶의 길로 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절망 속에서도 어김없이 희망을 피워내시는 그분을 생각한다면 정답은 명료합니다.

Judah's final journey to doom from king Jehoahaz to king Zedekiah was an evil transition in the eyes of God. As a result, the temple was invaded, and the kings and many people were taken into captivity. God warned again and again through the prophets, but the kings and the people mocked, ignored, and laughed at them. Sometimes when you look at the world, it is difficult to find hope. In the world created by humans, the environment is devastated and the powerless are not protected and the number of people who are vulnerable is increasing. Evil seems to thrive instead of being punished. But hope comes from God.

The end of Chronicles glimpses the shadow of hope from God. God sent the people of Judah back to their hometown through King Cyrus to build the temple again in Jerusalem. No matter how much humans mess up the world, God restores the world and fulfills His will. Those who have read Chronicles are now at the crossroads of choice. Will you go against God and go the wrong way? Or will you serve God and go the right way? The answer is clear if you think of God who consistently makes hope in the midst of human despair.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①

②

③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약으로



하루 \$1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느헤미야 운동

\$ 1 for every day, we are planting the church of Jesus Christ!

한인연합감리교회 교회개척 운동 Nehemiah Project-Church Planting Movement

느헤미야 \$ 1 운동 Mission Fund 웹사이트 <https://go.missionfund.org/kumcnehemiah>

교회를 세웁니다 We plant a church at a time
미래를 준비합니다 We prepare for future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God is leading our way

온라인 헌금 Online Giving

□ 한달 \$ 10, \$ 20, \$ 30, \$ 50 per month □ 하루 \$ 1 per day □ 한달 \$ 30 per month

여러분의 1불 헌금은 한인연합감리교회 개척을 위해 사용됩니다.

Your \$ 1 offering will be used for church planting projects of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es

연합감리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사용됩니다.

Your offering will support for future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 한어회중 Korean speaking congregation
- 영어회중 English speaking congregation
- 차세대회중 Next generation ministry
- 다인종사역 Multi-ethnic ministry

느헤미야 운동의 교회개척 사역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How can we participate into church planting projects for Nehemiah project?

- 가정에서 함께 드립니다. You may give as a family.
- 자녀들과 함께 매달 드립니다. You may share with your children.
- 신용카드로 헌금합니다. You would give with your credit card.
- 느헤미야 운동을 통해, 비과세기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This gift can be listed as a tax-deductible gift for your tax report.

Mission Fund 웹사이트 <https://go.missionfund.org/kumcnehemiah>

우편으로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Check payable to Nehemiah Project

교회를 세우는 느헤미야 운동본부 Nehemiah Project

P O Box 5553 Englewood NJ 07631 / Email contact : kumcdevotion@gmail.com

2020년 8월
기쁨의 언덕으로

소그룹 교재

먼저오심 하나님을 알기 이전 이미 우리 삶에 다가오셔서 역사하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만나주심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다듬으심 우리를 다듬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성결과 성화의 은혜)을 경험합니다.

들어쓰심 주님께 쓰임 받는 사람으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 첫째 주 소그룹 모임

기도의 성소 | 역대하 6:18-21

● 둘째 주 소그룹 모임

하나님의 부력을 신뢰하라 | 역대하 16:1-10

● 셋째 주 소그룹 모임

전부가 아니라면 | 역대하 25:1-2, 14-16

● 넷째 주 소그룹 모임

그저 문을 열면 됩니다 | 역대하 30:1-12

첫째 주 소그룹 모임 본문 역대하 6:18-21

기도의 성소



새364장(통482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새366장(통485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새369장(통487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① 여는 질문

자신에게 특별한 의미를 주었던 예배당이나 기도의 장소가 있는지 생각해 보고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② 본문 이해

솔로몬은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사정을 살펴달라고 빕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될 것입니다. 동시에 그는 성전이 다 담아낼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백성들이 성전에서, 혹은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구합니다.

사실 성전은 하나님을 위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집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성전이 아무리 휘황찬란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거하시기에 충분한 공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공간에 제한되지도 않으십니다. 하지만 사람에게서는 성전이 필요합니다. 제한된 감각을 가진 사람에게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구별된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거룩의 감각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 글이 읽힐 즈음에는 상황이 어떻게 바뀌어 있을지 알 수 없지만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 일상을 빼앗기고 예배당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빼앗기고 보니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를 드리던 공간이 얼마나 소중한 지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저 건물일 뿐이라고, 삶의 예배, 일상의 기도가 중요한 거라고 말하지만 그 공간 속에 쌓인 삶과 신앙의 흔적을 누가 폄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배당이라는 구별된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고 그분께 구했고 그분을 만났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신다는 것을 확인하게 해주는 장소입니다. 그렇게 구별된 기도의 공간과 시간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현실에서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돌릴 수 있습니다. 성전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구별된 기도의 시간이 있을 때 언제든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를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③ 말씀 속으로

1. 솔로몬은 하나님과 성전의 관계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18절)
2. 솔로몬이 드리는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20,21절)

④ 삶 속으로

1.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공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2. 성전과 같이 구별된 기도의 장소가 있습니까? 나의 기도 생활을 점검해 봅시다.

⑤ 암송구절 - 역대하 6:21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⑥ 자녀와의 나눔

하나님께 언제 기도를 드리나요?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나요?

둘째 주 소그룹 모임 본문 **역대하 16:1-10**

하나님의 부력을 신뢰하라



새380장(통424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새370장(통455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새382장(통43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1 여는 질문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나는 걱정이 많은 편인가요? 걱정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자신만의 방법이 있나요?

2 본문 이해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쳐들어오자 아사 왕은 아람 왕 벤하닷의 도움을 청합니다. 벤하닷은 아사 왕의 요청을 받아들여 그를 도우러 나섭니다. 그 덕분에 아사 왕은 위기를 모면합니다. 왕과 백성들이 승리에 도취되어 있을 때 예언자 하나니는 아사 왕을 찾아와 말합니다.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아람 왕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더 많은 전쟁에 휘말리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아사 왕은 화가 나서 예언자를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아사 왕은 이전에 구스 사람과 룽 사람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권력에 취했는지 그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막아 버렸습니다.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군대가 몰려올 때 당연히 현실적인 도움도 생각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사 왕은 가장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두루 살피고 계신다는 사실, 그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해 자신에게 매달리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19세기 덴마크의 철학자이자 신학자였던 쇠렌 키에르케고르는 신앙이란 그 깊이가 100km가 넘는 바다 위에 떠가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물 위에서 살려고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몸은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하지만 부력을 신뢰하고 바다에 몸을 맡긴다면 떠가게 될 것입니다. 신앙은 그렇게 하나님의 부력을 신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만큼 염려와 두려움이 들어칩니다. 다른 의지할 것을 찾아 주위를 두

리번거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더 귀한 우리들을 돌보시지 않겠느냐는 것이지요. “믿음이 적은 사람들!”라는 말씀은 그걸 믿지 못하고 걱정애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을 향한 꾸중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구석구석을 가득 채우고 있는 존재의 바다를 신뢰하는 일입니다.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할수록 우리는 걱정으로부터 놓여나 좀 더 자유롭고 본질적인 일에 집중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③ 말씀 속으로

1. 예언자 하나니가 이사 왕을 질책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7절)
2. 예언자 하나니가 말하는 하나님의 특성은 어떤 것입니까? (9절)

④ 삶 속으로

1. 하나님을 신뢰해서 좋았던 경우나 혹은 신뢰하지 못해 낭패를 본 경우들을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2. 하나님을 신뢰하려면 신뢰할 만한 분인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신가요?

⑤ 암송구절 - 역대하 16:9 상

“여호와와 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⑥ 자녀와의 나눔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예요. 그렇다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질 수 있을까요?

셋째 주 소그룹 모임 본문 역대하 25:1-2, 14-16

전부가 아니라면



새314장(통511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새312장(통341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새322장(통357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① 여는 질문

자신이 소유한 물건 중에서 가장 아끼는 것이 있는지, 아끼는 이유는 무엇인지 함께 나눠 보세요.

② 본문 이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2) 아마스 왕에 대한 역대기 사가의 평가입니다. 새번역은 이 부분을 “마음을 다하여 하지는 않았다.”라고 번역합니다. 이 평가처럼 아마샤는 에돔과의 전투에 나섰다가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상들을 가져와 자기의 신으로 모시고 그 앞에서 경배하며 분향합니다. 그는 주님께서 보내신 예언자의 충고조차 듣지 않습니다. 예언자의 충고를 무시한 아마샤는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걸다가 패하고 맙니다. 후에 그는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아마샤의 이야기는 예수님을 만나러 왔던 부자 청년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에 대해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한 모든 계명을 다 지킬 만큼 신앙적인 열심이 뛰어났습니다. 예수님은 그래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십니다.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자신을 따르라고 하시는 거지요. 이 말씀을 듣고서 그는 근심하다가 결국 예수님을 떠나가고 맙니다. 재산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계명도 지키고 영생에 대해서도 궁금해했지만 재산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전부를 걸만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종교를 하나의 교양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말은 신앙이 우리 삶의 일부라는 생각을 반영합니다. 하지만 신앙은 우리 삶을 새롭게 보게 하는 틀의 전환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정하게 되면 그분을 중심으로 우리 삶은 재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가진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하늘의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전혀 다른 재산으로의 삶의 재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길에 양다리

는 불가능합니다. 재산이 절대 가치가 되거나 예수님이 절대 가치가 되거나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마샤가 마음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은 마음이 없었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신앙은 생활이라는 말입니다. 신앙은 우리 삶 전체를 다르게 살게 합니다.

③ 말씀 속으로

1. 하나님을 따르는 데 있어 아마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2절)
2. 하나님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14,15절)

④ 삶 속으로

1. 아마샤의 우상처럼, 부자 청년의 재산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습니까? 끝내 포기하기 어렵다고 느껴지는 것들을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2.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는 의지적인 노력만으로는 어렵습니다. 하늘 보화의 절대적인 가치를 깨달을 때 가능합니다. 내가 깨달은 신앙의 가치는 무엇인가요? 모든 것을 걸만한 가치를 하나님에게서 발견하셨나요?

⑤ 암송구절 - 역대하 25:2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⑥ 자녀와의 나눔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넷째 주 소그룹 모임 본문 역대하 30:1-12

그저 문을 열면 됩니다



새535장(통325장) 주 예수 대문 밖에
새292장(통415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새300장(통406장) 내 맘이 낙심되며

① 여는 질문

지금껏 살면서 누군가에게 가장 크게 용서받아본 경험은 어떤 것이었나요?

② 본문 이해

성전 제사를 회복한 히스기야 왕은 이제 유월절을 지키려고 합니다. 이들은 오랫동안 율법에 기록된 절차대로 유월절을 지켜오지 못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유다뿐 아니라 온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 유월절을 지키도록 초청합니다. 보발꾼들은 왕의 명령을 따라 두루 다니며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백성들에게 요청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자신의 조상들을 돌보셨던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주님께서도 이스라엘에게로 돌아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보발꾼들의 말을 전해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제각기 갈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들을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하지만 이 초청에 겸손하게 귀를 기울이고 예루살렘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유월절의 은총을 누립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탁월한 비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개입하시기를 기대합니다.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신가’하며 실망하고 한탄하는 이유는 그 기대를 저버리신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와 다릅니다. 강제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분도, 세상의 악을 멈추게 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방식으로 일하실 뿐입니다.

그중의 하나가 이 비유에서 드러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라 기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고 기다려주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로입니다.

다. 하나님은 문 앞에서 우리의 선택을 기다리면서 두드리실 뿐입니다. 우리가 그 초청을 받아들이면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함께 살아가시는 거지요. 이렇게 보면 우리의 선택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관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기초해 있습니다. 그분의 한없는 인내와 무한한 사랑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지탱하게 하는 뿌리입니다. 아무리 잘못해도 돌아오기만 하면,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려도 문을 열기만 하면 맞아 주시는 그분의 은혜와 자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지속시키는 거지요.

③ 말씀 속으로

1.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5절)
2. 보발꾼들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도 돌아오실 것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 회복을 가능하게 합니까? (9절)

④ 삶 속으로

1.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영접했던 경험을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분들은 주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2.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힘입어 받아들여진 존재로서 우리의 삶은 어때야 할까요? 나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 관대한 편인가요? 여전히 풀지 못한 관계가 있으신가요?

⑤ 암송구절 - 역대하 30:9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⑥ 자녀와의 나눔

누군가 미워하는 친구가 있나요? 왜 그 친구가 알미운가요? 그 친구를 용서할 수는 없을까요?

2 Chronicles 6:18–21

Sanctuary of prayer

① Opening Question

Think about and share if there is a chapel or place of prayer that gave you special meaning.

② Understanding today's passage

As Solomon consecrated the Temple, he prayed to God: As the people of God pray looking up the Temple, he implored to God to hear their prayers and heed their pleadings. Solomon built the Temple for God. The Temple would be the house where God resides. At the same time, Solomon knew that God is much bigger than what the house would be able to accommodate. Nonetheless Solomon prayed to God to hear the prayers of the people whether they pray at the Temple or just looking up the Temple.

In fact, the people needed the Temple more than God. No matter how grand the temple is, there is not enough space for God to dwell. God is not limited to any particular space. But people need a temple. People with limited senses should have a separate space to meet God. Otherwise, they will lose their sense of holiness.

I don't know how things will change by the time this article is read, but as of this writing we have been deprived of our daily lives and the chapel by the corona virus. As they were taken away, we are grieving over how precious the space where we gathered together to worship and pray. Some people say that it is just a building, and that worship and daily prayer could be conducted outside the building, but may we dismiss the traces of life and faith accumulated in the space? We went to God through a separate space called the chapel in order to have a fellowship with Him.

The temple is the place to make sure that God exists and He hears our supplications. Only when there is such a space and time for prayer, we can turn our eyes toward God in reality. Just like there is a separate time of prayer to meet God in the temple, you will be able to continue praying to God, wherever you are.

3 Into the Word

1. How does Solomon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God and the temple?
(v. 18)
2. What is the content of Solomon's prayer? (vs. 20-21)

4 Into our Life

1. How do you understand the connection between your church building and your relationship with God?
2. Is there a separate place for prayer like the temple? Let's check your prayer life.

5 Memory Verse - 2 Chronicles 6:21

"And listen to the pleas of your servant and of your people Israel, when they pray toward this place. And listen from heaven your dwelling place, and when you hear, forgive."

6 Sharing with your children

When do you pray to God? Do you have time to pray regularly?

2 Chronicles 16:1–10

Trust God's buoyancy

1 Opening Question

Do you have a lot of worries when encountering a difficult situation? Is there your own way to relieve anxiety and stress?

2 Understanding today's passage

As king Baasha of Israel attacked Judah, king Asa asked for help from king Ben-Hadad of Aram. Having accepted the request for help, king Ben-Hadad came forward to help Asa. And Asa managed to avert the crisis. While the king and the people were celebrating, the prophet Hanani came to visit king Asa to tell him that because Asa relied on Aram instead of God, he would be entangled with so many wars in the future. Asa was so angry that he put the prophet Hanani in prison. When Asa fought against the Cushite and the Libyans, he depended on the help from God. But he closed his ears to God maybe because his mind became intoxicated by his corrupt life style of power and glory over many years.

Asa might have been fearful. When the army of Israel marched on, naturally he thought about realistic ally. But Asa had forgotten the most important fact. The fact that God always watch over all people around the world, and the fact that THAT GOD gives strength to people who depend on Him with all their minds and hearts.

Believing also means trusting God. Soren Kierkegaard, a Danish philosopher and theologian of the 19th century, said that faith is like floating above the sea, over 100 km deep. The more you struggle physically to live on the water, the more you sink. However, if you trust your buoyancy and leave yourself to the sea, you will float on the water. Faith is to trust God's buoyancy.

Anxiety and fear invade as much as you do not trust God. You will wander around looking for something else to rely on. That's why Jesus explains the lilies of field and birds in the air. The God who feeds the birds of the air and the lilies of the field is taking care of us because we are more precious. The words, "People with little faith!", is for those who don't believe it and live in anxiety. Faith is like trusting the existence of ocean that fills every corner of the world we live in. The more we trust the God, the more we will be free from worries so that we live on for what is important and essential.

3 Into the Word

1. Why did the prophet Hanani rebuke King Asa? (v. 7)
2. What is God's characteristic that the prophet Hanani witness? (v. 9)

4 Into our Life

1. Please share the cases in which you were benefited from trusting God or were let down due to your mistrust.
2. In order to trust God, we must first know if He is trustworthy. How am I experiencing God? Is that God reliable?

5 Memory Verse - 2 Chronicles 16:9

"For the eyes of the LORD run to and fro throughout the whole earth, to give strong support to those whose heart is blameless toward him."

6 Sharing with your children

God is our helper when we are in trouble. So what can we do when we have a difficult circumstance?

2 Chronicles 25:1–2, 14–16

If not all

1 Opening Question

Share what is your most important possession and why you care about it.

2 Understanding today's passage

"Amaziah did what was pleasing in the Lord's sight, but not wholeheartedly." (v. 2) This is the commentary on King Amaziah by the Chronicles author. The new translation translates this part as "He didn't do it with all his heart." His evaluation was justified. He brought the idols of Seir and set them up as his own gods, bowed down to them and burned sacrifices to them. He didn't listen to God's prophets. He ignored the warnings of the prophet and got defeated by the king of Israel. And he was killed by the conspirators.

Amaziah's story reminds us of a rich young man who came to meet Jesus. He asked about the way to eternal life. He was faithfully to keep all the commandments Jesus mentioned. Jesus still said there is one thing lacked. Jesus told him to sell everything he has, give it to the poor, and follow Jesus. Hearing these words, he was grieved and eventually left Jesus, because he had a fortune. He kept the commandments and wondered about eternal life, but he could not give up his wealth. He didn't find anything worthwhile to bet on Jesus.

There are those who think of religion as a culture. The word "life of faith" reflects the idea that faith is part of our lives. But faith is a shift in the mental frame that can take our life to a new level. When we acknowledge who is God, our lives must be reinterpreted around Him. Jesus tells the rich young man that if he sells all of his wealth and shares it with the poor, he will receive possession of heaven. It is a relocation of life to

a completely different property. So the way to follow God is impossible with an independent mind. Either wealth becomes absolute value, or Jesus becomes absolute value, we must choose one of the two. The fact that Amaziah wasn't wholehearted was no different from saying that he had no commitment. 'Religious life' means that faith is life. Faith makes our lives different.

3 Into the Word

1. What was Amaziah's problem in following God? (v. 2)
2. Why was God angry with Amaziah? (vs. 14-15)

4 Into our Life

1. Is there any obstacle to the complete follow-up of God, such as the idol of Amaziah and the wealth of a rich young man? Please share what you find difficult to give up.
2. To follow God completely, it is difficult only by willing mind. It is possible when you realize the ultimate value of heavenly treasure. What is the value of your faith? Is God worth enough to bet your whole life on Him?

5 Memory Verse - 2 Chronicles 25:2

"And he did what was right in the eyes of the LORD, yet not with a whole heart."

6 Sharing with your children

Is there any belonging you value most? Why is that?

2 Chronicles 30:1–12

Just open the door

1 Opening Question

Do you have an experience that you were unconditionally forgiven by someone?

2 Understanding today's passage

King Hezekiah, who restored the temple sacrifice, wanted to celebrate the Passover. Hezekiah sent letters to all Israel, Ephraim, and Manasseh, as well as to Judah, and invited them to celebrate the Passover together. The messengers followed the king's orders and asked the people to return to God. In response the Lord would return then, because God is gracious and merciful. Each person had different reactions. Some people laughed and made fun of messengers. However, there were those who humbly listened to this invitation and came to Jerusalem. Those gathered together experienced the grace of Passover.

"Here I am! I stand at the door and knock. If anyone hears my voice and opens the door, I will come in and eat with that person, and they with me." Revelation 3:20 is an excellent analogy to our relationship with God. We think of God as Almighty. So, we expect God to intervene in our lives. Sometimes, when things don't go our way, we are disappointed and lamented by "What is God doing?" Because God seems to have forsaken our expectation. But God's way is different from us. Neither does He force us to do unwillingly, nor is he stopping the evils of the world. God only works in his own way.

God is not a taskmaster, but is tolerant. God respects and waits for our choices. So is our relationship with God. God is knocking at the door waiting for our choice. When we accept the invitation, He comes in and eats and lives with us. It seems that our relationship with God depends on our choice. However, the relationship is based en-

tirely on God's grace and mercy. His boundless patience and infinite love are the roots that sustain the relationship between God and us. No matter how wrong we astray, no matter how long it takes to open that door, if we just return to God, His grace and mercy will welcome us to continue our relationship with God.

3 Into the Word

1. Why is King Hezekiah trying to celebrate the Passover? (v. 5)
2. The messengers say that when people return to God, God will return to them in response. What character of God makes the restoration possible? (v. 9)

4 Into our Life

1. Please share your experiences of opening the door to your heart and receiving God. If you haven't accepted it yet, please share your reasons for hesitation.
2. How should we live our lives as beings accepted by God through God's grace and mercy? Are you generous toward others? Do you still have a relationship you can't solve?

5 Memory Verse - 2 Chronicles 30:9

"For if you return to the LORD, your brothers and your children will find compassion with their captors and return to this land. For the LORD your God is gracious and merciful and will not turn away his face from you, if you return to him."

6 Sharing with your children

Do you have a friend whom you hate? Why do you dislike the friend? Can you forgive that friend?

전염병과 교회, 역사에서 배운다

글쓴이:김정호 목사(뉴욕 후러싱제일교회)

편집자주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지금, 연합감리교뉴스는 전염병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하여 성서, 윤리, 역사, 신학, 묵회, 상담학적인 관점에서 소개하려 한다. 오늘은 그 시리즈의 다섯 번째로 뉴욕 후러싱제일교회의 담임인김정호 목사의 코로나19에 대한목회적 관점을 소개한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예배당 문이 닫히는 사태는 무척이나 당황스러운 경험이다.

앞으로 예배당 문이 열린다고 해도 여러 면에서 교회가 어려워질 것임이 분명하다. 교회는 '필수적 사업체'(essential business)가 아니고, 따라서 문을 닫아야 한다는 뉴욕 주지사의 행정명령은 당연하면서도 충격적이었다.



김정호 목사가 자신을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써 달라고 외치고 있다. 사진 제공, 김정호 목사.

전쟁 중에도 교회는 필수적인 곳이고, 고난과 환란의 때일수록 교회가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을 제공하는, 세상 그 어느 곳보다 필수적인 곳인데, 화창한 봄 날씨가 시작되는 계절에 뉴욕의 교회들은 필수적인 사업들이 아니라고 문을 닫으라는 것이다.

후러싱제일교회는 몇 년 전부터 온라인 생방송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상예배 자체는 어렵지 않았다. 평상시의 모든 예배와 기도회를 실시간 방송을 했다.



어려울 때일수록 정신 차리고 목회를 잘하고 교회를 지켜야 한다는 목적과 함께 어떻게 해서라도 교인들과 긴밀한 연락을 하고자 매일 짧은 영상을 만들어서 내보내면서 목사가 일방적으로 무엇을 교인들에게 제공해주는 식의 목회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영상 예배를 잘하는 교회가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때에 개인은 물론 가정에서 스스로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당분간 50명 이상 모이는 모임이 공공위생상 위험하다는 인식이 있어, 당분간 온라인 예배가 지속될 것이고, 교회들의 재정적 어려움이 커질 것이다.

토니 몰간(Tony Morgan)은 이와 같은 현실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말했다.

1. 아날로그(analogue)에서 디지털(digital)로의 전환
2. 가르침(teaching)에서 훈련(equipping)
3. 모임(gathering)에서 연결(connecting)
4. 글로벌(global)에서 로컬(local)
5. 사역자 고용 비용을 줄이고 사역 연결
6. 다양한 사역에서 사역의 단순화로의 전환

토니 몰간은 4번에서 글로벌에서 로컬이라는 것은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니, 다른 나라 선교지를 지원하던 방식에서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살리는 선교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제안한다.

우리 이민교회도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미국 이민교회를 보면 한인들의 이민이 많이 들어오던 70년대는 교회가 교인들 삶의 중심이었다. 신앙생활만이 아니라 커뮤니티 종합센터의 역할을 했다. 90년대에 이르러 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교회들도 부흥하여 대형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예배도 세대별로 구분된 예배가 확장되고, 각양각색의 프로그램이 도입되어, 확장의 한계가 없을 것 같았다. 예배당을 크게 지으면 교인이 그만큼 예배당에 들어왔다. 그러나 개교회들이 커지면서 공교회성을 상실하기 시작했다. 대형교회는 말할 것 없이, 중형교회 목사들도 제왕적인 목회를 성공적인 모델로 여기는 일이 생겨났다.

그러다가 20여 년 전부터 교세가 줄기 시작하고, 전도의 문이 막히고, 난공불락 같던 기성 교단들이 분열의 진통을 겪는 중에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일어났다.

이 위기는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기회이기도 하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비본질적인 일에 분주했던 교회에 이제는 본질에 집중하라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그것은 이곳도 저곳도 아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예배자가 되어야 함을 뜻한다. 언제 어디에 있어도 전도와 선교적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함을 뜻한다.

교회는 이제 개인과 가정이 예배와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중심이 되도록 그 일을 돕는 역할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것은 30여 년 전 켈 교회 운동이 추구하고자 했던 것인데, 당시에는 그 중요성이 절실하지 못했었는지 모른다.

이번 코로나 사태 이후를 준비하면서 세대별, 언어별로 분리되었던 예배의 담을 허물어야 하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늘날 대부분의 이민 교회들은 신앙 공동체가 아니라 분열된 신앙의 이산가족들이다. 각 세대의 문화와 편의성을 존중한다는 의도이지만 실제로 한 교회 공동체인데 공유하는 찬송과 찬양이 없다. 웬만한 이즈가 되는 교회를 보면 각각 자기가 편한 언어와 문화별로 분산되어서 예배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것을 따로 한다.

세대별, 언어별 전임사역자들이 있어야 제대로 된 교회라는 전제가 있다. 그러다 보니 제대로 무엇을 갖춘 교회라고 할 때, 각자 주어진 공간에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잘하면 되는 교회가 되어버린다. 그러다가 사역자가 바뀌게 되면 난리가 난다.

이런 현상은 재정적으로 넉넉한 교회들에 주어진 고질적인 병폐다. 소규모의 교회를

보면 오히려 모자라고 어렵기 때문에, 가족의 중요성과 공동체의 역할을 더 건강하게 유지하기도 한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중형에서 대형교회 목사들은 건축회사 사장(CEO) 역할을 하면서 세대별, 언어별 하청업자인 사역자들을 고용하는 모회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1. 교회가 지켜내야 할 가장 기본이 되는 ‘필수적인 것’(essential)은 예배다.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와 같은 때를 위해서가 아니라, 성도들이 언제 어디서라도 예배자로 살기 위해 갖추어야 할 것들이 있을 것이다.

후러싱세일교회 모회팀은 현재 성경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필수적 성경구절 50개와 언제 누가 시작을 해도 함께 부를 수 있는 찬송가 50개를 선정해 외우도록 하는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더욱 하나님과의 교제를 강화하는 기도의 훈련이 필요하다.

세대 간 분열을 만들어낸 여러 예배에 대해서도 재고하고자 한다.

주일학교 중고등부도 각각 흠어지는 모회가 아니라, 주일예배도 가족들과 함께 드리고 세대 간 성경공부에도 더 집중하려고 한다.

오늘날 많은 교회의 문제가 우리 자녀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신앙생활을 중단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우리의 교회 신앙교육이 그렇게 프레임 되어 있기 때문이다.

많은 한인 이민교회의 경우 부모들은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좋고, 소위 부흥한다는 잘 나간다는 교회를 찾아다니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인 양 착각한다. 하지만 영어권 사역자들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사역자들이 준비한 프로그램에 (수동적으로) 열심히 참여하는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면 고등학교 졸업 후 성인이 되어서도 능동적으로 방향을 잡지 못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의존적인 신앙교육의 한 결과이다.

어른들의 신앙생활도 청소년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

예배를 포함한 신앙생활 전반에 있어 평신도들이 리더십을 회복해야 하는데, 현실은 교회의 “일”을 신학공부를 한 전문가들을 고용하여 신앙생활을 리드하도록 하는 데 익숙해져 있다.



평신도 신앙운동 정신을 회복해야 한다.

평신도 신앙운동으로 시작된 교단의 목사들이 가톨릭 사제들처럼 옷 입는 것으로 “성직”을 구별하려는 문화가 팽배하다.

또 교단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교인들의 삶의 자리와 너무 거리가 멀다. 개체교회로부터 연회와 총회에 이르기까지 회

의 전문가들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에 대한 기득권을 독점한다. 현장이 소외된 행정 중심의 제도적 교회로서는 교회의 본질을 지켜내기 어렵다.

유대교를 보면 예루살렘 성전 제사 중심에서 디아스포라의 2,000년 역사까지 온 세계에 흩어져 회당을 통한 말씀으로 살아가는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어, 회당 자체를 키우는 데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 신앙의 중심이 되도록 하기 위한 역할을 했다. 가정이 신앙의 중심이 되도록 회당은 신앙의 모든 것을 제공해주고 검증해 주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가정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식일 기도로 시작하는 가정 식사와 14살이 되면 “말씀의 아들, 딸”이 되는 예식을 통해 모세 5경을 외움으로 신앙적으로 성인이 되는 성 인식이다. 이는 세상으로 들어가 책임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목표 삼는 것이다.

2. 교회는 예수의 십자가를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로 돌아가야 한다.

초대교회에 예수님의 사람들은 스테반 순교 이후 예루살렘에 머무를 수 없게 되어 사마리아로 가고 이방으로 흩어졌다. 그리고 마침내 사도 바울이 제자를 훈련하던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림을 받게 된다.

초대교회는 흩어져 박해 가운데에서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었고,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며, 예수를 따르기 위한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즉, 그리스도의 가르침, 기독교의 근본, 그 본질적인 삶을 초대교인들이 살아낸 결과,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얻은 것이다.

결국, 이 정신이, 종교개혁의 역사에서 개혁을 위해 내세운 구호가, “근원으로(Ad Fontes) 돌아가자(Back to the Sources).”,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이었다. “Ad Fontes”로부터 “Sola Scriptura(오직 성경)”라는 가치가 나왔다.

초대 감리교운동 “순회사역자(circuit rider)”들은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며 “홀로도 해내는 개척정신(independent frontier mentality)”으로 교회를 세웠다.

마이클 호튼은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포되지 않는 교회, 십자가의 은혜가 선포되지 않는 교회, 더 나아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와는 상관없어진 현대 교회를 고발한다. 다시 말해 그는 복음의 본질이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세상에서 고난받고 찢든 교인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오로지 교인들의 심기를 살피는 설교, 마치 예수가 세상 성공의 모델이나 된 것처럼 성공 신화를 설파하며 예배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선포되지 않는 상황은 없는지 되돌아보아야 한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그리스도인들의 근거 없는 선민사상과 우월의식으로 무장하여, 거룩함과 소명은 저버리고, 죄의식마저 사라진 모습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그것은 복음으로 돌아가야만 회복될 수 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고백되고, 십자가의 은혜가 선포되고, 교회의 본질, 복음의 본질이 회복되어야 한다.

십자가 없는 언어의 연금술, 복음이 아니라 기복의 신앙, 본 회퍼가 말한 것처럼 죄의 고백과 회개가 없는 싸구려 은혜를 선포했던 교회의 회개가 필요하다. 그래야 복음이 드러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선 성경만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신앙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한다. 우

리는 좀 더 단순해져야 한다.

교인들이 자기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십자가를 기억하며 홀로 또는 가족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말을 타고 여기저기 다니며 전도하여 불일 듯 부흥했던 감리교운동의 원동력이 회복될 것이다.

이를 위해 교회는 십자가의 은혜와 복음을 기억하고 살아가도록 말씀, 찬양, 기도의 제자훈련의 장이 되어야 한다.

주일은 세상에서 살며 경험한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부활의 승리 이야기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축제가 되고, 교회의 전문 사역자들은 세상에 나가 영적 전투에 임해야 할 교인들에게 최고의 영적 무기를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코로나 사태는 우리에게 전 세계적인 아픔과 죽음, 불안과 공포를 주었다. 회복의 기간이 절대 짧지 않을 것이며, 그 회복은 그냥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닐 것이다. 세상도 변하겠지만 교회도 변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 변화의 목표는 돌아가는 것이다. 복음으로 돌아가고, 십자가로 돌아가고, 초대 교회로 돌아가고, 종교개혁으로 돌아가고, 감리교운동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 연합감리교뉴스에 문의를 원하시면 김응선목사에게(kim@umnews.org)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복음 앞에 교회를 고발하다 1

글쓴이: 김영봉 목사(와싱턴사범의교회)

편집자주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지금, 연합감리교뉴스는 전염병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하여 성서, 윤리, 역사, 신학, 목회, 상담학적인 관점에서 소개하려 한다. 오늘은 그 시리즈의 세 번째로 김영봉 목사의 코로나19에 대한 신학 및 철학적 관점을 2회에 걸쳐 소개한다. 후속편인 2부는 목요일 게재할 예정이다.

1 온 세상이 코로나19의 음산한 기운에 짓눌려 멈춰버린 것 같습니다. 봄이 되어 꽃은 만발하고 새들은 좋아서 지절대는데, 그것을 보는 눈도 즐겁지 않고, 듣는 귀도 반갑지 않습니다. 전선이 멀리 있는 줄 알았는데, 하루아침에 내가 선 자리가 전선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전사이고 매사가 전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사순절을 지냈고,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맞았습니다. 묵상하는 제 마음의 창에 코로나19로 인한 고통과 공포에 짓눌린 세상의 모습이 예루살렘에서 고난 당하셨던 예수님의 모습과 중첩되어 나타납니다.

2천 년 전 그때, 감람산에 앉아 맞은편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우셨던 예수님이 지금 이 세상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그것은 이 거대한 재앙을 자초한 인류의 죄악에 대한 눈물이자, 속수무책으로 생명을 잃었고 또 잃을 희생자들에 대한 눈물이며, 자신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눈물입니다.

주님의 눈물을 마음에 품고, 우리도 그 슬픔에 참여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무참히 훼손하고, 우리의 탐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했던, 인류가 저지른 죄의 공범이었음을 고백하고 통회합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 “제 탓입니다. 제 탓입니다. 모두 제 탓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피조 세계에 대해 선한 청지기의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우리도 인류의 탐욕으로 인한 파괴와 훼손에 눈 질끈 감고 참여했습니다.

우리는 이 재앙이 왜 시작되었는지 따져 볼 겨를도 없이 살아남기 위해 말버둥 치고 있는 이 세상을 위해 증보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증보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무거운 죄악으로 인해 이 재앙을 자초하고도 자신의 죄악을 깨닫지 못하는 세상을 위해 십자가에서 주님이 드리셨던 기도를 올립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눅 23:34). 정말 세상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자신의 죄악에서 깨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이 재앙이 지난 후에라도 그 사실을 깨달아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감사하고, 창조 질서를 존중하며 살아가도록 변화에 힘을 다짐합니다.



윌리엄 노아 허러리의 저서 <호모 데우스>에 나오는 인간의 변화 과정을 설명한 이미지, 디아리오 드 세빌라.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말하듯, 인류의 생활 방식이 철저하게 달라지지 않는 한 인류는 이보다 더 크고 무서운 재앙을 자초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이 재앙을 속히 종식시키고, 할 수 있는 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겠지만, 그 이후에는 재발 방지를 위해 더 크고 무거운 책임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일깨우는 일을 교회가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김영봉 목사가 2019년 한인총회 개회 예배에서 갈릴리로 오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 있다. 사진, 김응선 목사, 연합감리교뉴스.

2 우리는 그동안 인류가 쌓아 온 거대한 교만을 회개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된 이후 우리는 전쟁 없는 유토피아를 기대해 왔습니다. 인류의 문명이 머지않아 ‘호모 사피엔스(Homo Sapiens)’를 ‘호모 데우스(Homo Deus)’로 만들어 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인간의 능력은 한없이 부풀어 올라 하나님의 자리까지 침범했습니다. ‘영생’은 과학 문명이 가져다줄 것이며, ‘구원’도 우리 자신의 손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도 인류의 이 거대한 오만에 들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지난 80년의 태평성대 기간에 인류가 쌓아 올린 그 화려한 문명의 탑은 현재 100nm의 초미세 바이러스로 인해 허무하게 무너져 내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인류의 미래는 AI 로봇이나 외계 생명체의 침공으로 인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예언은 보기 좋게 빛나갔습니다. 인류의 적이 허블 망원경으로 관측할 수 있는 외계 생명체나 문명의 꽃이라 불리는 AI 로봇이 아닌 슈퍼 렌즈로만 볼 수 있는 초미세 바이러스—이것은 생물 축에도 들지 못하는 반생물(半生物)입니다—였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망연해집니다.

얼마 전, 어느 신문사에서 제공한 코로나19사태 Before & After 사진을 보았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로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었던 관광 명소들은 이제 텅 비어 있습니다. 어떤 곳은 사람들이 사라진 자리에 원숭이 떼가 모여 놀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들을 보며, 인류가 쌓아 올리는 업적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 아주 똑똑히 보았습니다. 인류는 부풀어 오른 자아를 만족시키기 위해 업적을 쌓아 올리지만, 그것은 결국 무참히 무너질 바벨탑과 다르지 않습니다.

코로나19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너무도 선명하게 대면시켜주었습니다.

한 개인의 인생의 의미는 업적이 아니라 관계에 있습니다.

인생의 과제는 “얼마나 많이 이룰 것이냐?”가 아니라 “얼마나 사랑할 것이냐?”에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이 업적을 쌓기 위해 소중한 관계들을 희생하고 살아갑니다. 그로 인해 소풍과 같아야 할 인생은 살벌한 전투장처럼 변해 버렸습니다.

인류 전체로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인류는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더 큰 업적을 쌓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해 왔습니다. 그 업적이 안전과 번영을 지속할 수 있게 만들 것이라고 여겼지만, 코로나19 사태는 그것이 얼마나 큰 오해와 착각이었는지를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이 점에서도 교회는 세상을 깨우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교회도 업적을 향한 경쟁에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생태계가 기업의 생태계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관계를 맺고 사랑하기에 집중하도록 사람들을 일깨워야 했던 교회들마저 바벨탑 쌓기에 부심했습니다. 그로 인해 건물의 크기와 집회 인원 및 재정 규모를 자랑하는 어리석음을 드러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 사역은 업적이 아니라 관계라는 것, 자랑은 규모가 아니라 희생이라는 것을 잊었습니다.

한 달 넘게 텅 비어 있는 예배당을 보며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봅니다.

이 상황에서 성령은 교회로 모여 복직대는 것이 부흥이라고 여겼던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사역이란 무엇인지, 제자 됨은 무엇인지, 헌신과 희생은 무엇인지 그리고 목회란 무엇인지, 처음부터 다시 따져 보라 하십니다.

문득, 예루살렘 성전의 위용을 지켜보면서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 있지 않

고, 다 무너질 것이다.”(마 24:2)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마음에 울립니다.

우리가 쌓아 올린 종교적 바벨탑이 그렇게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예언으로 들립니다.

수천수만 명이 모여 예배드린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다 허상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나라가 우리 안에 누룩처럼 퍼져 나가는 일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은 헛된 소비요, 정신 나간 헛발질입니다. (2부에 계속)

* 김영봉 목사는 감리교신학대학교 대학원(M.Div.) 미국 남감리교대학교(SMU) 퍼킨스신학대학원(STM)에서 수학한 뒤, 캐나다 맥매스터대학교에서 신약성서와 기독교 기원 연구로 철학박사 학위(Ph.D.)를 받았다.

* 연합감리교뉴스에 연락 또는 문의를 원하시면 김응선 목사에게 tkim@umnews.org로 하시기 바랍니다.

95%의 교인이 온라인 헌금을 하는 교회

글쓴이: 오천의



연합감리교회공보부에서 1,000개의 연합감리교회를 대상으로 실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있는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면서 연합감리교회의 72%가 헌금이 줄었다고 밝혔으며, 그중 약 3분의 1이 40%까지 감소한 것으로 보고했다. 분명한 것은 미국의 많은 교회가 코로나바이러스-19로 인해 재정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러한 재정적 위기 속에서 시카고 예수사랑교회는 코로나바이러스-19 사태로 인해 재정적인 타격을 받기보다, 오히려 이전보다 교인들이 더 많은 헌금을 한다고 한다. 시카고 예수사랑교회는 미국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핫하다는 벤모(Venmo)를 통해 온라인 헌금을 하고 있다. 어떻게 온라인 예배로 대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이 더 관대하게 헌금을 더 많이 하는지에 대해 조선형 목사와 인터뷰를 통해서 그 지혜를 알아보고자 한다.

아래는 조선형 목사와의 인터뷰를 각색한 글이다.

온라인 헌금은 언제부터 시작?

시카고 예수사랑교회가 온라인 헌금을 시작한 것은 약 2년 전이며, 벤모(Venmo)가 소액 결제가 온라인 가능하다고 해서, 혹시 온라인 헌금을 하려는 교인에게 선택권을 주기 위해서 시작했다. 처음 시작할 때, 벤모 계좌는 주로 여름성경학교 등록비, 도서 구매, 교인들의 목상지 구입, 혹은 기부금 등을 교회 행사 비용을 받는 데 많이 사용되었다.

이렇게 온라인 헌금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거의 교인 중 1/3이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리게 시작했다. 온라인 헌금이 시작과 함께 자리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1) 교인들 대부분이 젊은 세대이며, 2) 교회 행사 비용을 낼 때 벤모를 이미 이용해 봤고, 3) 젊은 교인들이 실생활 속에서 벤모를 이용해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코로나바이러스-19 이후의 벤모를 통한 헌금 현황

코로나바이러스-19 사태 이후, 다른 교회들은 급하게 온라인 헌금 방법을 마련하고 있을 때, 이미 벤모를 통해서 온라인 헌금 경험을 가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는 3~4 가정을 제외하고 거의 95%가 벤모를 통해서 헌금하고 있다. 3월 첫 주부터 온라인 예배를 시작해서 3월에 5번의 온라인 예배를 드렸는데, 재정부에서 3월 예산 100%를 초과했다

고 한다. 또한 코로나 세컨드 마일 특별헌금을 만들어서, 코로나바이러스-19로 인해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는데, 이로 인해 교인이 더 많은 헌금을 하기 시작했다. 이번 4월 예산은 처음 두 주 동안 한 달 예산 중 80%가 나왔고, 셋째 주에 거의 100%의 예산이 나왔다.

나머지 5%의 교인은 어떻게 헌금을 하는가?

95%는 벤모를 통해서 헌금하고, 나머지 5%는 벤모 계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취향으로 꺼리는 가정이 있다. 재정부에서 이런 가정에게 우표를 동봉해서 한 달 치 헌금봉투를 보낸다. 교회에서 우표를 붙인 헌금 봉투를 보낸다. 정성을 함께 보내니 각 가정들은 거룩한 상기로 삼게 된다. 변화된 헌금 방식에 대해서 재정팀에서 최대한의 도울 길을 마련해 표현하고 변함없는 신앙고백적인 도전과 청기지 의식에 대해 정기적으로 상기시킬 때에 나머지 분들도 적극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벤모를 통한 온라인 헌금이 주는 유익은?

교인 중 약 15%가 노스웨스턴(Northwestern University) 대학생 혹은 대학원생이며, 약 30%가 직장인 청년들이고, 나머지 55%가 결혼한 젊은 가정들이다. 대학생들은 방학 때, 타주나 한국으로 되돌아가면서,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을 잠시 멈추게 된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바이러스-19 사태가 일어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교회의 공동체성이 유지되었다. 방학 때, 대학생 혹은 대학원생들이 다른 주의 교회나 한국의 교회에 참석하며 그곳에 헌금했지만, 지금은 벤모를 통해 이곳으로 헌금을 하며, 온라인 예배를 참석하고 있다.

결혼한 가정의 경우, 출장이나 휴가를 가서 주일을 교회에서 지키지 못하더라도 주일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를 드린 후, 예배 중에 혹은 월요일이나 화요일 등 주중에 벤모를 통해서 헌금하기도 한다. 교인들의 인식에서 헌금이 없어지지 않으면, 주중에도 십일조와 헌금 등 하나님과의 약속을 벤모를 통해서 지킨다.

온라인 헌금에서 성공할 수 있던 이유는?

많은 교회가 코로나바이러스-19로 인해 온라인 예배와 온라인 헌금으로 돌아서면

서, 아직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에이비씨 뉴스(ABC News)에 따르면, 미국 전역에 많은 교회가 현장 예배에서 온라인 예배로 돌아서면서 매주 헌금이 심각하게 줄어들고 이로 인해 프로그램과 교회 직원을 줄이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한다.

시카고 예수사랑교회의 경우도 코로나바이러스-19의 여파를 비껴가지는 못했다. 교회 중 직장을 잃은 사람과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실업수당을 받은 청년들이, 경기 부양 보조금을 받은 가정들이 자발적으로 헌금을 한다. 코로나바이러스-19의 여파에도 교회가 재정적으로 흔들리지 않은 이유는 요즈음 가장 뜨는 온라인 소액결제 시스템인 벤모(Venmo)를 사용해서가 아니라, 바로 올바른 교회론의 확립이다. 시카고 예수사랑교회는 매월 마지막 주에 새 가족 교실을 열고, 그다음 주인 매월 첫 주에 입교식을 한다. 새 가족 교실에서는 교회의 소속된다(입교인)는 것에 대한 의미와 의무(참석, 기도, 봉사, 헌금)를 가르친다. 이제 더 이상 방문자가 아니라 한 교회에 소속된 입교인으로서, 자신의 몫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한 부분이 되는 것이다. 입교식을 할 때, 한 사람씩 질문을 통해서 교회의 소속이 되겠는지, 입교인으로서 의무를 다하겠는지 공식적으로 교인들 앞에서 고백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진다.

조 목사가 7년 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에 파송을 받으면서 계속해오던 일이다. 교회에는 원래 헌금을 잘하던 교인들도 있지만, 헌금을 왜 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다. 헌금의 의무를 새 가족 교실에서 권장하고, 입교식에서 고백하게 한다. 입교와 동시에 입교인들 중 십일조를 하는 사람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일정 금액을 헌금하는 사람이 생겼다.

7년 전 파송을 받았을 때, 시카고 예수사랑교회의 재정의 약 60% 이상이 개척 교회 보조금이었다. 처음 1년 동안 새신자나 출석 인원이 늘지 않았지만, 헌금에 대한 입교인으로서 의무를 교육함으로써, 교회 자체의 재정이 약 2배로 성장하게 되었다. 그래서 올해는 약 24만 달러의 예산을 책정하게 되었다. 코로나바이러스-19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던 3월에도 줌을 통해 새 가족 교실을 열었고,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입교식을 가졌다. 새신자들은 자신들의 신앙에 대해서 헌금의 의무에 대해 영상을 찍고, 모든 교인 앞에서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다. 4 가정이 입교인으로 등록되었으며, 그중 2 가정이 십일조를 드린다고 한다. 방문자가 입교인이 되어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일부분이 된다

는 교육과 그 헌신에 대한 교육이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되었다.

헌금하고 싶은 마음이 필요

올바른 교회론을 언급하면서, 조 목사는 얼마나 많은 교인이 소속된 교회에 과연 헌금하고 싶었냐는 질문을 던졌다. 헌금에 대한 제일 큰 도전은, 교인이 헌금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것이다. 교인은 하나님께서 적어도 그 교회를 통해서 자신이 드린 헌금을 어려운 사람을 돕는 데 사용하고, 그 교회에게 주신 소명과 사역을 감당하는데 일부분이 쓰이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헌금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소식이 계속 업데이트되어야 한다. 그래서 조 목사는 교인들의 헌금에 대한 보고를 “이웃 사랑” 소식지를 통해서 전한다. 이 소식지에는 지난달 헌금이 선교 사역과 전도 사역, 나눔 사역에서 얼마큼이 쓰였는지 교인에게 보여준다. 이 소식지를 통해서 자신이 드린 헌금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역에 쓰이는 것을 보고 알기에, 교인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헌금을 하고 싶은 것이다.

조 목사는 이런 소식지에 관한 정보는 목회자들이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라 말한다. 그러나 실제로 교인과 선교로 쓰이는 헌금에 대해 정기적으로 의사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느 교회에서든 여성교회 혹은 남선교회에서 선교 사역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지만,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아니다. 교회 전체가 알 수 있는 의사소통의 방식을 찾아 정기적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항상 헌금에 대해 성공적이었는지?

연합감리교회 풀타임 목회자에게 제공해야 할 기본적인 최저 연봉제도(생활비, 사택, 의료보험 등)가 있다. 목회 처음 2~3년 교회의 재정이 회복되고 자체로 교회가 운영되는 중에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도 풀타임 목회자를 위한 최저 연봉 때문에 오히려 사고 이로 인해 교회를 떠난 교인들도 있다. 미자립 교회에서는 자체 재정으로 목회자 사역비와 교회 운영비를 넘어서는 수준에 이르기까지 선교로 이어지기 힘들고 어렵다. 조 목사는 이에 대한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목회자의 생활비를 제공하기 어려운 재정이라도 그중 조금이라도 선교를 해야 하며, 이를 명확하게 소식지 등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또한 목회자가 설교를 통해서 선교의 중요성도 알려야 한다.

지금은 시카고 예수사랑교회에서는 12개의 선교지(사) 혹은 이웃사랑 사역지를 위한 각각의 계좌를 열어두고 선교비를 보내고 있으며, 사역지 별로 적어도 1년에 \$1,000은 교회 재정에서 최저 선교 현금액으로 보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예배 시 헌금에 대해 어떻게 상기하는가?

1. 시카고 예수사랑교회는, 교회 주보에 헌금 집계와 있으며, 지난주 헌금 집계와 이번 달 예산 중 얼마큼이 채워졌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준다. 또한 주일 아침에 모든 소그룹 혹은 속회 카톡방에 유튜브 온라인 예배 링크와 주일 주보를 이미지로 보내고 있다.

2. 온라인 예배가 시작되기 전, 첫 화면에 기도로 예배를 준비할 것과 헌금은 벤모(Venmo)를 통해 예배 전에 드린다는 광고 문구를 약 10초 정도 내보낸다. 7년의 훈련을 통해 교인들이 예배 전에 헌금해야 한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주일예배는 오전 10시 30분이지만 이미 예배시간 한 시간 전부터 온라인 헌금이 시작된다.

3. 온라인 예배 중, 봉헌 기도 시간을 가진다. 모든 교인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두 손으로 직접 헌금을 정성껏 드리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교인들의 마음을 담아 온라인으로 헌금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 온라인 헌금이 실제 직접 드리는 헌금보다 정성이 덜 들어간 낮은 등급의 헌금이 아니라, 똑같은 정성과 고백이 표현되는 헌금임을 기도를 통해 확증한다. 이 봉헌 기도 시간을 통해, 교인이 벤모를 통해 예배 전에 드린 헌금에 대해 같은 마음으로 드리게 되며, 이 시간이 아직 헌금을 드리지 못한 사람을 상기시키기도 한다.

결론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19로 인해 모든 교회가 재정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온라인 헌금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인다. 그러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 몸을 구성하는 지체들이 자신이 교회 됨을 알아야 하고 그 의무 중 하나가 헌금이라는 것을 신학적으로 알아야 한다. 이러한 신학적 교육이 새 신자 교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입교식을 통해 확증되어야 하고, 이러한 의무가 주보, 광고, 그리고 봉헌 기도를 통해서 다시 기억되어야 한다.

* 오천의목사는 한인/아시아인 리더 자료를 담당하고 있는 연합감리교회 정회원 목사이다.
coh@umcom.org나 615) 742-5457로 연락할 수 있다.

MISSIONARY OF THE MONTH

Fan, Chen-lue

Advance : # **3022578**

Country : **Paraguay**

Serving At : **Mary Jo Phillips Methodist
Daycare Center of Asunción**

Home Country : **Taiwan, Republic of China (POC)**



Chan-lue Fan is a Global Mission Fellow with the United Methodist General Board of Global Ministries, engaged in a two-year term of service. She was commissioned on July 28, 2019.

The Global Mission Fellows program takes young adults ages 20-30 out of their home environments and places them in new contexts for mission experience and service. The program has a strong emphasis on faith and justice. Global Mission Fellows become active parts of their new local communities. They connect the church in mission across cultural and geographical boundaries. They grow in personal and social holiness and become strong young leaders working to build just communities in a peaceful world.

Chen-iue is from Taipei, Taiwan. She is a member of Da Zhi Methodist Church in the Republic of China. She holds a Bachelor of Arts degree in philosophy from Fu Jen Catholic University in New Taipei City. She has worked as a bookstore cashier, in a music studio and as an assistant to a children's English-lesson coordinator for the British Council in Taiwan.

"I was born into a family in which both of my parents are clergy," Chen-iue said. "They are the pastor and preacher in the church. Maybe, people think that the kids like us must be the most religious ones among the church. But, actually, I consider that we are the ones who need to work harder to be close to God and religion. I haven't experienced God that deeply because I haven't faced really big troubles in my life. I think it's one of God's mercies that he has given me a really peaceful life, compared to the friends around me." She continues to pray about and discern God's call for her life.

Contact Information : cfan@umcmmission.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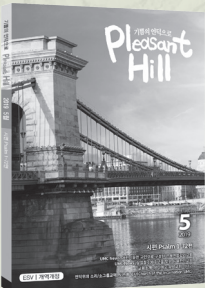
말씀묵상집 ‘기쁨의 언덕으로’를 개척교회에 보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과 매일 함께 걷는 ‘기쁨의 언덕으로’
나의 일기, 묵상이 아닌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마음을 기록할 수 있도록 돕는 ‘기쁨의 언덕으로’
한/영 이중언어로 온 가족이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기쁨의 언덕으로’
하루에 한 장 성경읽기, 말씀묵상, 저널링, 온라인 참여가 가능한 ‘기쁨의 언덕으로’

한 권에 \$ 3.5

**말씀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언덕으로’를
개척교회에 보낼 수 있도록 후원합니다.**

여러분의 정성을 모아 말씀이신 예수님과 만나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기쁨의 언덕으로’를 보내드립니다. 또한 앞으로는 개척교회는 물론 캠퍼스, 군대,
교도소로도 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달에 10권 을 후원하면	매월 \$ 35 per month
20권	매월 \$ 70 per month
30권	매월 \$ 105 per month
50권	매월 \$ 175 per month
100권	매월 \$ 350 per month

기쁨의 언덕으로 / 느헤미야운동

Email : kumcdevotion@gmail.com

P O Box 5553 Englewood NJ 07631

문의 : 선교총무 류계환 목사 / Email: wwjd21st@gmail.com

말씀묵상 길라잡이 '기쁨의 언덕으로' 사역 후원

연합감리교회 한인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기쁨의 언덕으로'는
이민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한 말씀묵상집입니다.

이 묵상집은 이민자들의 영성계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연합감리교회 한인공동체가 시작했고,
이민교회를 위한 이중언어 말씀묵상 길라잡이로 매달 발행되고 있습니다.

'기쁨의 언덕으로'를 위해 목회자 기획위원, 평신도 편집위원,
영어번역위원 등이 모두 자원하여 봉사하며,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헌금은 '기쁨의 언덕으로'를 섬기는 집필팀 워크샵,
평신도 편집위원 수련회, 개체교회를 섬기는 QT 컨퍼런스, 기획위원,
편집위원, 번역위원들에게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기쁨의 언덕으로' 사역을 후원하길 원합니다.

매월 ☐\$10 ☐\$20 ☐\$30 ☐\$50 ☐\$100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연합감리교회 한인 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말씀묵상집 "기쁨의 언덕으로" 사역을 함께 후원합니다.

기쁨의 언덕으로 / 느헤미야운동

Email : kumcdevotion@gmail.com

P O Box 5553

Englewood NJ 07631

문의 : 선교총무 류계환 목사

Email : wwjd21st@gmail.com



“미 전역에 한인연합감리교회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교회를 세우는 느헤미야운동은 모든 한인연합감리교회와 함께 합니다!”

지금 교회 리스트를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변경 사항이 있으면 kumcdevotion@gmail.com 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Alabama (앨라배마 주)**

몽고메리주님의교회(이승필, 334-279-1935)
버밍햄한인연합감리교회(지홍일, 205-957-0595)
프렛빌한인교회(홍성국, 334-221-9392)
헨스빌감리교회(256-489-1158)

• **Alaska (알래스카 주)**

앵커리지한인연합감리교회(금원재, 907-346-2886)

• **Arizona (애리조나 주)**

아리조나연합감리교회(이기용, 480-423-7777)
투스산제일연합감리교회(조형, 520-760-9749)

• **Arkansas (아칸소 주)**

소망연합감리교회(조선옥, 501-308-4127)
아칸사한인연합감리교회(정형권, 479-263-5434)

• **California (캘리포니아 주)**

가나안한인연합감리교회(이상현, 831-333-6857)
가든그로브한인연합감리교회(박용삼, 714-534-6378)
나성금관연합감리교회(이석부, 310-973-5106)
나성복음연합감리교회(김호용, 323-641-0691)
나성중앙연합감리교회(조승홍, 213-747-4209)
남기주주님의교회(김낙인, 626-965-9191)
노스리지연합감리교회(최요셉, 818-886-1555)
드림교회(정영희, 626-793-0880)
리구나힐스한인연합감리교회(림학순, 949-380-7777)
리팔미한인연합감리교회(김도민, 714-226-0300)
로스엔젤레스한인연합감리교회(이창민, 310-645-3699)
로스헬리즈연합감리교회(신병욱, 323-382-0691)
밴나이연합감리교회(안정섭, 818-785-3256)
밸리한인연합감리교회(류재덕, 818-366-0089)
버클리새교회(김종식, 510-528-7346)
베델연합감리교회(한인희, 408-244-8710)
사랑나무교회(이상호, 818-346-1617)
산타마리아베델한인연합감리교회(남기성, 805-922-1004)

산타클라라연합감리교회(홍삼열, 408-295-4161)
상향한국인연합감리교회(송계영, 415-759-1005)
새열매교회(남기정, 650-773-8589)
샌디에고한인연합감리교회(이성현, 858-279-9191)
시온연합감리교회(오경환, 310-834-5504)
어바인드림교회(원홍연, 949-786-8354)
언약교회(구진모, 909-622-8815)
영화연합감리교회(강현철, 213-413-4154)
열린교회(권혁인, 510-652-4155)
예수사랑교회(이강원, 408-746-9553)
오글랜드한인연합감리교회(정현섭, 510-451-9076)
옥스나드한인연합감리교회(남재현, 805-485-0100)
유바사랑의교회(이진식, 925-279-1214)
월셔연합감리교회(신영각, 323-931-9133)
은강연합감리교회(홍종걸, 714-870-9991)
은혜연합감리교회(한진호, 818-241-9352)
임마누엘연합감리교회(함무근, 323-257-7713)
좋은연합감리교회(김두식, 916-987-9191)
주사랑연합감리교회(이정환, 626-575-9191)
카르디아연합감리교회(김범수, 310-473-1285)
카마리오한인연합감리교회(이상영, 805-389-3161)
크레센타밸리한인연합감리교회(김용근, 818-541-0306)
태평양연합감리교회(이도원, 323-255-3734)
토랜스한인연합감리교회(강현중, 310-378-9213)
콘트라코스타한인연합감리교회(김영래, 925-935-0191)
후레스노한인연합감리교회(김규현, 559-299-0240)
희망교회(김정민/가하나, 858-354-0009)
히스페리아한인연합감리교회(민병렬)

• **Colorado (콜로라도 주)**

그리스도중앙연합감리교회(주활, 303-369-0600)
덴버연합감리교회(이선영, 720-529-5757)
임마누엘연합감리교회(전병욱, 303-753-8823)
푸에블로한인교회(최윤선, 719-544-5739)
한미연합감리교회(한동수, 719-570-0300)

• **Connecticut (코네티컷 주)**

뉴헤이븐연합감리교회(최영, 203-387-1579)
스탬포드한인연합감리교회(신승호, 203-353-0488)
커네티컷한인중양교회(김정환, 860-365-0233)
하트포드한인교회(이재삼, 860-953-0141)

• **Delaware (델라웨어 주)**

델라웨어한인감리교회(송중남, 302-235-5735)

• **Florida (플로리다 주)**

남부플로리다한인연합감리교회(이철구, 954-739-8581)
올랜드한인연합감리교회(김호진, 407-801-2731)
탈라하시한인연합감리교회(유혁재, 850-228-1414)
탬파한인연합감리교회(백승린, 813-907-5815)
포트피어스한인선교감리교회(김선용, 772-353-0931)
헤르난도한인교회(윤대섭, 352-726-7245)

• **Georgia (조지아 주)**

노크로스한인교회(박희철, 678-978-2099)
뉴난한인감리교회(남성원, 770-683-9381)
라그레인지한인연합감리교회(김형렬, 706-407-8296)
사바나한인연합감리교회(박진원, 912-355-8225)
시온한인연합감리교회(송희섭, 770-495-8020)
아틀란타베다니한인감리교회(남궁전, 678-546-5700)
아틀란타한인교회(김세환, 678-381-1004)
임마누엘한인연합감리교회(이준협, 770-321-0020)
존스크릭한인연합감리교회(서정일, 770-497-8215)
트리니티 한인교회(김경곤, 678-431-7924)
해밀턴밀한인교회(정찬응, 770-271-4255)
하인스빌한인연합감리교회(김종길, 912-368-4875)

• **Hawaii (하와이 주)**

갈보리연합감리교회(남규우, 808-386-9672)
감람연합감리교회(이영성, 808-956-1004)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한의준, 808-536-7244)
베다니연합감리교회(최현규, 808-626-7434)
아름다운교회(오대현, 808-343-6839)
아이에이한인연합감리교회(정상용, 808-488-3018)
올리브연합감리교회(김배선, 808-622-1717)

• **Illinois (일리노이 주)**

갈릴리연합감리교회(엄모성, 847-998-4610)
글렌브룩한인연합감리교회(고은영, 847-205-9642)
남부시카고한인연합감리교회(김윤기, 708-799-0001)
네이퍼빌한인연합감리교회(박관우, 630-904-9191)
마콤한인연합감리교회(이정일, 309-768-2663)
비전교회(우민혁, 847-949-9705)

올랜드팍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이동근, 708-403-2007)
예수사랑감리교회(오치용, 217-419-5132)
살렘한인연합감리교회(김태준, 847-534-2826)
샘물연합감리교회(박미숙, 847-712-0413)
시카고예수사랑감리교회(조선행, 847-372-6057)
시카고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김광태, 847-541-9538)
중앙연합감리교회(홍진호, 847-797-1144)
하이드팍한인교회(이우민, 773-643-2144)

• **Indiana (인디애나 주)**

블루밍턴한인교회(안성용, 812-331-2080)
인디애나폴리스제일연합감리교회(오기재, 317-894-4456)
퍼듀제자교회(이종민, 217-417-2288)

• **Iowa (아이오와 주)**

디모인한인연합감리교회(이병훈, 515-261-0600)
아이오와시티한인연합감리교회(최균임, 319-337-8397)
에임스사랑의교회(이병훈, 515-233-1063)
락드시티한인연합감리교회(조항백, 563-359-4227)

• **Kansas (캔자스 주)**

위치타은혜연합감리교회(임일호, 316-239-6883)
정선시티한인연합감리교회(문주현, 785-762-4344)
캔자스한인중앙연합감리교회(김다위, 913-648-4277)
피츠버그사랑연합감리교회(정용재, 620-231-2540)

• **Kentucky (켄터키 주)**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김상순, 270-439-3297)

• **Louisiana (루이지애나 주)**

뉴올리언즈한인연합감리교회(이동섭, 504-455-7883)
리스빌연합감리교회(나길서, 337-537-5977)

• **Maine (메인 주)**

무지개연합감리교회(조대섭, 207-774-1617)

• **Maryland (메릴랜드 주)**

늘사랑연합감리교회(박종희, 443-763-4566)
베다니한인교회(박대성, 410-979-0691)
성령의불꽃교회(유재우, 703-276-8018)
솔즈베리한인연합감리교회(정남성, 410-860-0090)
에덴연합감리교회(신요섭, 667-206-4162)
워싱턴감리교회(이승우, 301-309-6856)
하늘비전교회(장재용, 410-200-3859)

• **Massachusetts (매사추세츠 주)**

보스턴연합감리교회(안신형, 781-393-0004)

북부보스턴한인연합감리교회(최진웅, 978-470-0621)
비전교회(이충호, 617-864-1123)
성요한한인연합감리교회(조상연, 781-861-7799)
안디옥한인연합감리교회(강명석, 978-534-3394)
우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김현태, 508-799-4488)

• Michigan (미시간 주)

디트로이트제일중앙연합감리교회(김대기, 248-545-5554)
디트로이트한인연합감리교회(김응용, 248-879-2240)
디트로이트한인연합감리교회-TroyHope(Anna Moon, 248-879-2240)
앤아버한인연합감리교회(조현태, 734-662-0660)

• Minnesota (미네소타 주)

멘케이트한인연합감리교회(유승찬, 507-382-6070)
미네소타한인복음연합감리교회(윤국진, 952-938-2142)
미네소타한인연합감리교회(백성범, 651-633-2434)
은혜한인연합감리교회(박형두, 612-859-5882)

• Missouri (미주리 주)

세인트루이스한인연합감리교회(이명균, 314-426-5683)

• Nevada (네바다 주)

거자씨한일교회(최영원, 702-595-3678)
라스베이가스한인연합감리교회(라은진, 702-434-9915)

• New Hampshire (뉴햄프셔 주)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한상신, 603-430-2929)

• New Jersey (뉴저지 주)

가득한교회(이강, 908-464-1807)
갈보리연합감리교회(조영진, 732-613-4930)
그레이스벤엘교회(장학범, 201-242-8866)
남부뉴저지한인연합감리교회(박태열, 609-965-1222)
뉴저지연합교회(고한승, 201-816-1284-5)
뉴저지영광연합감리교회(임희영, 201-939-9726)
리빙스턴한인연합감리교회(이정애, 973-994-0450)
리지우드연합감리교회-한여회중(안성훈, 914-548-1685)
만모스은혜연합감리교회(정호석, 732-542-4321)
모리스타운한인교회(최상훈, 973-252-5252)
베다니한인연합감리교회(이기성, 973-694-3880)
아콜라연합감리교회(안명웅, 201-843-7970)
아펜젤라기념내리연합감리교회(조만호, 973-256-6831)
제자교회(이영기, 201-394-8446)
주님의은혜교회(최준호, 973-563-5365)
체리힐제일교회(김일영, 856-424-9686)
코너스톤교회(정희섭, 201-767-1172)
티벳한인연합감리교회(이재덕)

• New Mexico (뉴멕시코 주)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김기천, 505-341-0205)

• New York (뉴욕 주)

그리스도한인연합감리교회(정창훈, 347-233-1117)
뉴드림교회(김남석, 516-504-5612)
뉴욕감리교회(강원근, 516-681-0164)
뉴욕그레잇백교회(양민석, 917-326-1723)
뉴욕남산교회(이요섭, 718-680-0328)
뉴욕만백성한인연합감리교회(이종범, 718-701-4953)
뉴욕반석교회(김동규, 516-997-8620)
뉴욕베델교회(김영훈, 718-796-5600)
뉴욕성서교회(김종일, 631-243-5683)
뉴욕주니목교회(문정웅, 718-229-4024)
뉴욕한인교회(이용보, 212-662-1422)
로체스터제일교회(이진국, 585-662-5560)
로체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김동기, 585-872-0188)
롱아일랜드연합감리교회(이원택, 631-499-1260)
모닝사이드연합감리교회(박재웅, 347-377-0329)
메트로폴리탄한인연합감리교회(김진우, 212-758-1040)
미드허드슨한인연합감리교회(이용연, 845-463-0027)
버팔로한인연합감리교회(국재현, 716-748-5886)
부르클린한인연합감리교회(김치호, 718-332-3270)
스테튼아일랜드한인교회(정광원, 718-984-3333)
시라큐스소망연합감리교회(양현주)
아스토리아한인교회(진성인, 718-626-1278)
우리감리교회(김동현, 347-935-9348)
올바니한인연합감리교회(유희성, 518-387-9078)
웨체스터중앙교회(김철식, 914-948-8835)
퀸즈중앙감리교회(이요섭, 718-359-8388)
후러싱제일교회(김정호, 718-939-8599)

• North Carolina (노스캐롤라이나 주)

그린스보로한인연합감리교회(서준석, 336-852-8535)
아가페한인연합감리교회(엄성일, 919-469-1514)

• Ohio (오하이오 주)

맨스필드한인연합감리교회(유보현, 740-238-1219)
데이튼한인연합교회(유준식, 937-294-2018)
베델한인연합감리교회(이미란, 614-451-2085)
새생명연합감리교회(전기상, 248-659-7882)
아덴스한인연합감리교회(이근상, 614-764-8960)
영스타운한인연합감리교회(김현석, 330-743-7020)
캔톤한인연합감리교회(유보현, 740-238-1218)
콜럼버스한인연합감리교회(장기준, 614-882-5819)
한마당연합감리교회(440-845-1728)
한인매디슨빌연합감리교회(우용철, 513-271-1434)

• **Oklahoma (오클라호마 주)**

새빛연합감리교회(정기영, 580-536-6884)
오클라호마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엄준도, 405-672-5062)
텔사한인연합감리교회(손태원, 918-622-0045)
평강한인연합감리교회(김관영, 580-237-6611)

• **Oregon (오리건 주)**

오레곤우리연합감리교회(박은수, 503-641-7887)
포틀랜드한인연합감리교회(오광석, 503-684-7070)

• **Pennsylvania (펜실베이니아 주)**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김덕신, 215-280-5768)
베들레헴한인연합감리교회(김중혁, 610-867-4437)
벤살렘한인연합감리교회(차명훈, 215-639-3120)
소망한인연합감리교회(717-731-9190)
인디애나한인연합감리교회(이성덕, 724-465-2015)
필라델피아제일연합감리교회(박성순, 215-542-5686)
필라델피아교회(조병우, 215-884-5251)

• **Rhode Island (로드아일랜드 주)**

시온한인연합감리교회(전우혁, 401-739-8439)

• **South Carolina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그린빌연합감리교회(신규석, 864-567-3633)
찰스턴한인연합감리교회(배연택, 843-797-8199)
콜럼비아한인연합감리교회(나웅철, 803-447-6186)

• **Tennessee (테네시 주)**

내쉬빌한인교회(강희준, 615-373-0880)

• **Texas (텍사스 주)**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김덕건, 214-901-1116)
달라스북부중앙연합감리교회(조낙훈, 469-235-8041)
달라스제일연합감리교회(박광배, 972-231-0057)
달라스중앙연합감리교회(이상철, 972-258-0991)
동산연합감리교회(유화청, 713-722-9553)
동화연합감리교회(박경원)
러브연합감리교회(김다니엘, 316-218-8498)
버먼트제일연합감리교회(박청수, 409-554-0550)
성루가연합감리교회(한장택, 254-526-3993)
샌안토니오연합감리교회(배혁, 210-341-8706)
우리만나연합감리교회(오오한, 817-657-4559)
윌리엄스메모리얼연합감리교회-한인회중(이병설, 903-794-2882)
웨슬리연합감리교회(이진희, 972-276-2098)
웨이코한인연합감리교회(주요한, 254-757-2621)
임마누엘한인연합감리교회(권성철, 214-238-2003)
휴스턴제일연합감리교회(정용석, 713-462-0708)

St. Peter's UMC-Katy 한어회중(김데이빗 281-541-6286)

• **Vermont (버몬트 주)**

버먼트한미연합감리교회(배상철, 802-876-7622)

• **Virginia (버지니아 주)**

가나연합감리교회(박주섭, 703-339-8899)
버지니아한인연합감리교회(민권홍, 757-484-5988)
새빛교회(김은관, 703-385-3390)
성가연합감리교회(최윤석, 757-877-2270)
알링턴한인교회(류영성, 703-489-4596)
애쉬번한인교회(강현식, 703-336-3679)
엠마오연합감리교회(김철기, 804-272-5831)
와싱턴사목교회(김영봉, 703-939-0559)
와싱턴제일교회(정성호, 571-643-0800/0900)
와싱턴한인교회(김한성, 703-448-1131)

• **Washington (워싱턴 주)**

시애틀연합감리교회(박세용, 206-406-6499)
좋은씨앗교회(정요셉, 253-363-3169)
타코마제일연합감리교회(박용규, 253-589-0882)

• **Washington D.C (워싱턴 D.C)**

알파커뮤니티한인교회(202-680-2394)

• **West Virginia (웨스트버지니아 주)**

현팅톤제일한인연합감리교회(최연, 304-522-0357)

• **Wisconsin (위스콘신 주)**

메디슨한인연합감리교회(한명훈, 973-525-9584)
애플톤시온연합감리교회(김찬국, 920-687-9191)
참아름다운연합감리교회(김성근, 414-425-2530)
케노사한인연합감리교회(곽한두, 262-658-1131)

• **GAUM (괌)**

광한인선교회(김택수)

• **Russia (러시아)**

모스크바연합감리교회(조수진, 011-8-963-617-8439)

성경진도표

2020/01			2020/02			2020/03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01	골로새서	1	01	사사기	1	01	사무엘상	주일
02		2	02		주일	02		1
03		3	03		2	03		2
04		4	04		3	04		3
05		주일	05		4	05		4-5
06	갈라디아서	1	06		5	06		6-7
07		2	07		6	07		8
08		3	08		7	08		주일
09		4	09		주일	09		9
10		5	10		8	10		10
11		6	11		9	11		11
12		주일	12		10	12		12
13	에베소서	1	13		11	13		13
14		2	14		12	14		14
15		3	15		13	15		주일
16		4	16		주일	16		15
17		5	17		14	17		16
18		6	18		15	18		17
19		주일	19		16	19		18
20	빌립보서	1	20		17	20		19
21		2	21		18	21		20
22		3	22		19	22		주일
23		4	23		주일	23		21-22
24	데살로니가전서	1	24		20	24		23
25		2	25		21	25		24
26		주일	26	룻기	1	26		25
27		3	27		2	27		26
28		4	28		3	28		27:1-28:2
29		5	29		4	29		주일
30	데살로니가후서	1-2				30		28:3-29:11
31		3				31		30-31

2020/04			2020/05			2020/06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01	사무엘하	1	01	다니엘	1	01	욥기	1
02		2	02		2	02		2
03		3	03		주일	03		3-4
04		4-5	04		3	04		5-6
05		고난주일	05		4	05		7-8
06	마태	21	06		5	06		9-10
07	마태	22	07		6	07		주일
08	마태	23	08		7	08		11-13
09	마태	26	09		8	09		14-16
10	마태	27	10		주일	10		17-19
11	이사야	53	11		9	11		20-21
12		부활주일	12		10	12		22
13	사무엘하	6	13		11	13		23-24
14		7-8	14		12	14		주일
15		9-10	15	호세아	1	15		25
16		11	16		2	16		26
17		12	17		주일	17		27
18		13	18		3	18		28
19		주일	19		4	19		29
20		14	20		5	20		30
21		15	21		6	21		주일
22		16	22		7	22		31
23		17	23		8	23		32
24		18	24		주일	24		33
25		19	25		9	25		34
26		주일	26		10	26		35-36
27		20-21	27		11	27		37-38
28		22	28		12	28		주일
29		23	29		13	29		39-40
30		24	30		14	30		41-42
			31		주일			

2020/07			2020/08			2020/09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01	역대상	1	01	역대하	6	01	사도행전	1
02		2	02		주일	02		2
03		3	03		7-8	03		3
04		4-5	04		9	04		4
05		주일	05		10	05		5
06		6	06		11	06		주일
07		7-8	07		12-13	07		6-7
08		9	08		14	08		8
09		10	09		주일	09		9
10		11	10		15	10		10
11		12	11		16-17	11		11
12		주일	12		18	12		12
13		13-14	13		19	13		주일
14		15	14		20	14		13
15		16	15		21	15		14
16		17	16		주일	16		15
17		18-19	17		22	17		16
18		20-21	18		23	18		17
19		주일	19		24	19		18
20		22-23	20		25	20		주일
21		24	21		26-27	21		19
22		25	22		28	22		20
23		26	23		주일	23		21
24		27-28	24		29	24		22
25		29	25		30	25		23
26		주일	26		31-32	26		24
27	역대하	1	27		33	27		주일
28		2	28		34	28		25-26
29		3	29		35	29		27
30		4	30		주일	30		28
31		5	31		36			

2020/10			2020/11			2020/12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01	예레미야	1	01	예레미야	주일	01	요한복음	1:1-18
02		2	02		30	02		1:19-51
03		3	03		31	03		2
04		주일	04		32	04		3
05		4	05		33	05		4
06		5	06		34	06		주일
07		6	07		35	07		5
08		7	08		주일	08		6
09		8-9	09		36	09		7
10		10	10		37	10		8
11		주일	11		38	11		9
12		11	12		39	12		10
13		12	13		40-41	13		주일
14		13	14		42	14		11
15		14	15		주일	15		12
16		15	16		43	16		13
17		16	17		44-45	17		14
18		주일	18		46-47	18		15
19		17	19		48	19		16
20		18	20		49	20		주일
21		19-20	21		50	21		C-1
22		21	22		주일	22		C-2
23		22	23		51	23		C-3
24		23	24		52	24		C-4
25		주일	25	예레미야애가	1	25		C-5
26		24	26		2	26		17
27		25	27		3	27		주일
28		26	28		4	28		18
29		27	29		주일	29		19
30		28	30		5	30		20
31		29				31		21



교회를 세우는 느헤미야운동

Nehemiah Project P.O. Box 5553, Englewood, NJ 07631

- ❖ **이메일** kumcdevotion@gmail.com
- ❖ **발행인** 류재덕(연합감리교회 한인 총회장)
- ❖ **운영위원장** 이성현(한인총회 느헤미야 운동)
- ❖ **편집인** 류계환(한인총회 선교총무)
- ❖ **편집기획** 김종완(느헤미야 운동), 김응선(총회 공보부), 오천의(총회 공보부)
- ❖ **영어번역** 양훈, 박길재, 김종완, 김영실
- ❖ **목회자 기획위원** 강현식, 권혁인, 김기천, 김다위, 도은배, 배혁, 서준석, 오치용, 이광훈, 조선형, 한명훈, 류재덕
- ❖ **평신도 편집위원** 유경진, 정창호, 조숙희, 하금숙, 조윤희
- ❖ **편집문의** kumcdevotion@gmail.com
- ❖ **배송/결제문의** salesusa@hosanna.net / 562-944-5344(호산나미디어)

함께 하신 분들

- ❖ **언덕 위의 소리(Voices from The Hill) / 소그룹 모임 교재**
오치용 목사 (예수사랑교회, IL)
- ❖ **주일 칼럼**
 - 이승우 목사 (워싱턴교회, MD)
 - 장재웅 목사 (워싱턴 하늘비전교회, MD)
 - 유기성 목사 (선한목자교회, Korea)
 - 한진호 목사 (은혜한인연합감리교회, CA)
 - 이철구 목사 (남부플로리다한인연합감리교회, FL)

- The ESV® Bible (The Holy Bible, English Standard Version®) copyright® 2001 by Crossway, a publishing ministry of Good News Publishers. ESV® Text Edition: 2011. The ESV® text has been reproduced in cooperation with and by permission of Good News Publishers. Unauthorized reproduction of this publication is prohibited. All rights reserved.
- The Holy Bible, English Standard Version®, is adapted from the Revised Standard Version of the Bible, copyright Division of Christian Education of the National Council of the Churches of Christ in the U.S.A. All rights reserved
- Illustrations by Swiss artist and storyteller Annie Vallotton, as taken from the Good News Translation©1976,1992 American Bible Society. Used by permission.
- 본서에 사용한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의 저작권은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 소유로서 허락을 받고 사용했습니다.
- Copyright by HOSANNA & OneBody
- 구독변경 및 신청문의 salesusa@hosanna.net